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2016. 7. 1. ~ 2018. 3. 5.)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의장단 충의사 참배 (2016. 7. 1.)



▶▶ 윤석우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2016. 8. 31.)



프로야구 CMB 방송 객원해설 (2016. 9. 27.)



KTX세종역신설반대 기자회견 (2016. 10. 24.)



대구서문시장 화재현장 방문 (2016. 12 .23.)



▶▶ 의장단 AI 현장방문 (2016. 12. 26.)



▶▶ 사회복지시설위문 (2017. 1. 23.)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 (2017. 2. 21.)



▶▶ 지방분권개헌촉구 기자회견 (2017. 2. 21.)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예방 (2017. 3. 21.)



▶▶ 충남도의회 서산비행장 방문 (2017. 3. 23.)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 3. 29.)



▶▶ 의장단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장방문 (2017. 5. 25.)



▶▶ 의장단 가뭄피해현장방문 (2017. 6. 8.)



▶▶ 대통령공약실행민관협의회 (2017. 6. 14.)



▶▶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2017. 6. 15.)



▶▶제33회 충청남도여성대회 (2017. 7. 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 7. 17.)



▶▶ 충남도의회–경기도의회 상생협력 협약식 (2017. 9. 4.)



▶▶ 대한불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식 (2017. 11. 1.)



▶▶ 서천 육군8361부대 위문 (2017. 12. 27.)



▶▶ 조종묵 소방청장 예방 (2018. 2. 8.)



▶▶ 송영무 국방부장관 예방 (2018. 2. 13.)



▶▶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2018. 2. 26.)



목 차

CHAPTER I

원내외 의정활동

I - 1. 개회사 ····· 037
- 제289회 임시회 / 2016.7.12. ····· 039
- 제290회 임시회 / 2016.8.30. ····· 043
- 제291회 임시회 / 2016.9.26. ····· 048
- 제292회 정례회 / 2016.11.7. ····· 051
- 제293회 임시회 / 2017.2.6. ····· 055
- 제294회 임시회 / 2017.3.27. ····· 059
- 제295회 임시회 / 2017.5.11. ····· 064
- 제296회 정례회 / 2017.6.1. ····· 069
- 제297회 임시회 / 2017.7.10. ····· 076
- 제298회 임시회 / 2017.8.28. ····· 081
- 제299회 임시회 / 2017.9.19. ····· 086
- 제300회 정례회 / 2017.11.6. ····· 091
- 제301회 임시회 / 2018.1.23. ····· 097
- 제302회 임시회 / 2018.3.6. ····· 101

I - 2. 그 외 활동 ····· 105
- 제10대 후반기 의장 당선인사 / 2016.6.30. ····· 107
- 「2016년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기념식 / 2016.7.26. ··· 109
- 「Peace Road 2016 충청남도 통일대장정」 / 2016.8.2. ··· 110
- 「2016 도 ·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 2016.8.18. ··· 111
- 「충남 해양수산포럼 발족식 및 1차포럼」 / 2016.8.29. ····· 113
- 제3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 2016.8.30. ····· 114
-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수락연설 / 2016.8.31. ····· 116
-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 2016.9.8. ····· 118



CONTENTS

CHAPTER I

원내외 의정활동

- 경상북도 의정회 교류방문 / 2016.9.27. ····· 119
- 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 2016.9.29. ····· 121
- 전임 의장 초청 간담회 / 2016.10.25. ····· 122
-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2016.10.27. ····· 124
- 의정토론회 / 2016.10.28. ····· 126
- 의정토론회 / 2016.11.11. ····· 128
- 청소년 의회교실 인사말씀 / 2016.11.17. ····· 129
- 제1회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포럼 개회식 / 2016.12.1. ··· 131
- 2016년 지역문화예술진흥 협력 워크숍 / 2016.12.8. ····· 132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발표회 / 2016.12.14. ····· 133
- 2016년 의정결산 기자회견 의장님 인사말씀 / 2016.12.14. ··· 134
- 의정토론회 / 2016.12.19. ····· 139
- 충남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업무협약식 / 2016.12.26. ····· 141
- 안전충남비전 2050 선포식 / 2017.1.19. ····· 142
- 2017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 2017.3.6. ····· 143
- 제8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 2017.4.18. ····· 145
-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인사말씀 / 2017.4.28. ····· 149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2017.5.26. ····· 151
- (통합)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제1대 출범식 / 2017.6.14. ··· 153
- 충남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 / 2017.6.15. ····· 155
- 제4회 우수의정 대상 협의회장 인사말씀 / 2017.7.17. ··· 156
- 제1회 충청유교 국제포럼 / 2017.7.25. ····· 158
- 경기도의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 / 2017.9.4. ····· 159
- 2017 도 ·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 2017.9.14. ··· 161

CHAPTER Ⅰ
원내외 의정활동

- 의정토론회 / 2017.10.13. ····· 164
- 2017년 의정워크숍 개회식 / 2017.10.16. ····· 165
- 의정토론회 / 2017.10.17. ····· 167
-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 / 2017.10.19. ····· 169
- 제10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2017.10.19. ··· 171
- 의정토론회 / 2017.10.25. ····· 173
- 의정토론회 / 2017.11.1. ····· 175
- 제2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 2017.11.1. ····· 176
- 제3회 환황해 포럼 / 2017.11.2. ····· 177
- 의정토론회 / 2017.11.22. ····· 178
- 의정토론회 / 2017.12.8. ····· 180
-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 2017.12.13. ····· 182
- 의정토론회 / 2017.12.14. ····· 184
- 2017년 의정결산 기자회견 / 2017.12.26. ····· 186
- 충남도립대학교 개교 20년사 도록 / 2018.1.19. ····· 190
- 2018년 도 및 시 · 군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 2018.2.22. ··· 191
- 의정토론회 / 2018.2.23. ····· 193
- 의정토론회 / 2018.2.28. ····· 195
- 의정토론회 / 2018.3.2. ····· 197
- 의정토론회 / 2018.3.5. ····· 199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Ⅱ - 1. 2016년도 ····· 203
- 공주 주미산 자연휴양림 개장식 / 2016.7.5. ····· 205
- 제7회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 / 2016.7.5. ····· 206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32회 충청남도여성대회 / 2016.7.5. ····· 207
- 정안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2016.7.8. ····· 208
- 공주웅주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 2016.7.8. ····· 209
- 세종유로아울렛 기공식 / 2016.7.8. ····· 210
- 합동새마을금고 신관지점 개점식 / 2016.7.9. ····· 211
- 공주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 2016.7.9. ····· 212
- 충청남도 청소년예산 선정을 위한 타운홀미팅 행사 / 2016.7.9. ····· 214
- 제42회 충남합창경연대회 / 2016.7.9. ····· 215
-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충남 예선 대회 / 2016.7.13. ··· 216
-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나눔숲 완공식 / 2016.7.13. ····· 217
- 제21회 공주시 여성대회 / 2016.7.13. ····· 218
- 2016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 2016.7.14. ····· 219
- 신풍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 2016.7.15. ····· 220
- 제21회 고마나루축제 / 2016.7.16. ····· 221
- 계룡산 세계유산등재추진 토론회 / 2016.7.19. ····· 222
- 2016.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임원 및 대원 워크숍 / 2016.7.23. ····· 223
- 「제23회 공주시장기타기 배드민턴대회」개회식 / 2016.7.24. ··· 224
- 2016년 공주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 2016.7.25. ··· 225
- 제24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 공모전 / 2016.8.1. ····· 226
- 제1회 한국전쟁 전후 충남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 2016.8.3. ····· 227
- 2016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 / 2016.8.12. ····· 228
-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2016년 전진대회 / 2016.8.17. 229
- 2016년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 2016.8.17. ··· 230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17회 공주시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 2016.8.21. …… 231
• 2016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 / 2016.8.24. … 232
• 제6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 2016.8.26. … 234
• 제46회 충청남도사진대전 / 2016.8.27. …… 236
• 제1회 공주시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 2016.8.29. …… 237
• 제5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 2016.8.30. …… 238
• 제13회 탄천면민화합체육대회 / 2016.9.3. …… 239
•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개원식 / 2016.9.7. …… 240
• 제17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16.9.7. …… 242
• 제4회 충남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 2016.9.9. …… 243
• 세계유산등재1주년기념 공산성 성곽 걷기행사 / 2016.9.10. …… 245
• 세계유산등재1주년기념 전국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 2016.9.10. …… 246
• 제14회 유관순애국청소년 전국웅변대회 / 2016.9.10. …… 248
•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당축제 / 2016.9.12. … 249
• 제7회 공주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 2016.9.20. …… 250
• 제9회 충남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 2016.9.22. …… 251
• 부여군충남국악단 2016특별기획공연(백강의 노래) / 2016.9.22. …… 252
• 제33차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 / 2016.9.22. …… 253
• 제9회 충남예술제 / 2016.9.23. …… 254
• 2016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 / 2016.9.23. …… 255
• 제8회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통일선봉대 발대식 / 2016.9.23. …… 257
• 제13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 2016.9.23. …… 258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6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 / 2016.9.25. ····· 259
- 제13회 공주알밤축제 / 2016.9.26. ····· 260
- 공주문화예술촌 개촌식 및 입주작가 오픈전 / 2016.9.26. ··· 261
- 2016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 2016.9.27. ····· 262
-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 / 2016.9.28. ····· 263
- 제2회 전국공주아리랑 경창대회 / 2016.9.28. ····· 265
- 제31회 건국청년운동 순국열사 추모제 / 2016.9.28. ····· 266
- 농수산물검사소 개소식 / 2016.9.29. ····· 267
- 부여 무량사 제4회 힐링 산사음악회 / 2016.9.30. ····· 268
-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다목적회관 준공식 / 2016.9.30. ··· 270
- 제19회 한국백제서화협회 공모대전 / 2016.10.1. ····· 271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 2016.10.4. ····· 272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 2016.10.4. ····· 273
- 제3회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 2016.10.6. ····· 275
- 제4회 무령왕배 전국 론볼대회 / 2016.10.6. ····· 276
- 제13회 공주국제미술제 / 2016.10.7. ····· 277
- 제15회 충청남도지사기 일반 남녀 농악대회 / 2016.10.7. ··· 278
-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지역사회 통합의 날」/ 2016.10.8. ··· 279
-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 천도재 / 2016.10.8. ····· 280
- 2016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 2016.10.10. ····· 281
- 민족통일충청남도 대회 및 제47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 2016.10.10. ····· 282
-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환영만찬 / 2016.10.10. ····· 283
- 2016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공주 복지박람회」/ 2016.10.12. ····· 284
- 민방위대 창설 제41주년 기념행사 / 2016.10.13. ····· 285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월남전 참전 52주년 및 충남도지부 창립 21주년 기념 호국안보결의대회 / 2016.10.13. ····· 286
- 제4회 무령왕배 게이트볼 대회 / 2016.10.13. ····· 287
- 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 2016.10.15. ····· 288
- 제17회 공주시장기 에어로빅스체조 경연대회 / 2016.10.15. ··· 289
- 제10회 백제 31대왕 추모 문화대제 / 2016.10.16. ····· 290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 2016.10.17. ····· 291
-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 경진대회 / 2016.10.18. ····· 292
- 제3회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 / 2016.10.20. ····· 293
- 제20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식 / 2016.10.20. ··· 294
- 제22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및 유소년 축구대회 / 2016.10.22. ····· 296
- 금동산미술관 전람회 / 2016.10.22. ····· 297
- 공주소방서 발전위원회 창립 기념식 / 2016.10.25. ····· 298
- 제19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 / 2016.10.27. ··· 299
- 제25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 2016.10.28. ····· 300
- 영규대사 및 호국의승 추모제 / 2016.10.29. ····· 301
- 제2회 환황해포럼 / 2016.11.3. ····· 302
- 2016.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 2016.11.3. ····· 303
- 제35회 의랑골도덕건강축제 / 2016.11.4. ····· 304
- 2016년 충남 사랑의 끈 연결운동 / 2016.11.10. ····· 305
- 2016년 충남국공립유치원교원 한마음 체육대회 / 2016.11.5. ····· 306
-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공주소방서) / 2016.11.9. ··· 307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1회 공주알밤 그라운드골프 대회 / 2016.11.10. ····· 308
- 2016년 하반기 충남평화통일포럼 / 2016.11.11. ····· 309
- 2016년도 충청남도 축구클럽리그 최강전 / 2016.11.12. ··· 310
- 2016년도 공주예술제 / 2016.11.12. ····· 311
- 강북 한마음 대축제 '공주가 나르샤'행사 / 2016.11.12. ··· 312
- 유구 지역농산물 김장시장 큰잔치 / 2016.11.13. ····· 313
- 제13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 2016.11.14. ····· 314
- 제64주년 재향군인의날 기념식 / 2016.11.15. ····· 315
- 2016년 도내 유림지도자 통합연수 / 2016.11.16. ····· 316
- 제7회 충청남도 척수장애인의 날 / 2016.11.18. ····· 317
- 2016년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2016.11.25. ····· 318
- 2016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련대회(공주시) / 2016.12.2. ····· 320
- 2016년 무령왕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 / 2016.12.4. ··· 321
- 문화예술작품 보급전시 기념행사 / 2016.12.5. ····· 322
- 전국체전 ·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6년 자원봉사자 대회 / 2016.12.7. ····· 323
-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 2016.12.8. ··· 324
-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 / 2016.12.12. 325
- 공주 청년회의소(JCI) 회장 이 · 취임식 / 2016.12.16. ··· 326
- 충남 사회복지 70년사 발간 / 2016.12.16. ····· 327
-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소식 / 2016.12.22. ····· 329
- 2016년 충남체육 한마당대회 / 2016.12.27. ····· 330
- 공주시 새마을 기본정신교육 결과보고회 / 2016.12.29. ··· 331
- 2016년 송년사 / 2016.12.30. ····· 333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Ⅱ-2. 2017년도 ····· 335
• 2017년 신년사 / 2017.1.1. ····· 337
• 대전일보사 주최 2017년 충남 신년교례회 / 2017.1.2. ··· 339
• 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2017년 충남 여성계 신년교례회 / 2017.1.3. ··· 341
• 공주문화원 주관 2017년 공주시 신년교례회 / 2017.1.4. 343
•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 이전 개소식 / 2017.1.6. ··· 344
• 정안 청년회의소 회장 이 · 취임식 / 2017.1.10. ····· 345
• 계룡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17.1.23. ····· 346
• 공주소방서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17.1.24. ··· 347
• 2017년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교례회 / 2017.1.31. ··· 348
• 제18회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 2017.1.31. ····· 349
• 2016학년도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졸업식 / 2017.2.10. ··· 351
•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 2017.2.14. ··· 353
• 충남통일관 재개관식 기념행사 / 2017.2.15. ····· 354
• 제20회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식 / 2017.2.24. ····· 355
•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공주시) / 2017.3.1. ····· 356
• 제3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 / 2017.3.9. ····· 357
• 충남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 2017.3.10. ··· 359
• 2017 한국난대전 / 2017.3.18. ····· 361
• 제35회 충남연극제 / 2017.3.26. ····· 362
•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전시회 개막행사 / 2017.3.27. ····· 363
• 공주JC 창립 제47주년 및 특우회 창립 제39주년 기념식 / 2017.3.28. ····· 364
• 공주경찰서 전 · 의경회 회장 이 · 취임식 / 2017.3.28. ··· 366
• 제11회 사회복지사의 날 및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 2017.3.31. ····· 367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2017년 충청남도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 2017.3.31. …… 368
- 충남장애인체육회 10주년 기념행사 / 2017.4.5. …… 369
- WBC복지TV 충청남도 노래자랑 공주시편 / 2017.4.6. … 370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 법회 / 2017.4.12. …… 3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새청사 개청식 / 2017.4.12. …… 372
- 충남농아인협회 협회장 이 · 취임식 / 2017.4.13. …… 373
- 제13회 공주금강 전국풋살대회 / 2017.4.15. …… 374
- 2017년 제1차 충남평화통일포럼 / 2017.4.20. …… 375
-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 2017.4.20. …… 376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남도지부 제19주년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 2017.4.27. …… 377
-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전야제 / 2017.4.29. … 378
- 2017년도 재인천 충남도민 한마음대축제 / 2017.4.30. … 380
- 제20회 공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 / 2017.5.2. …… 381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 2017.5.10. … 382
- 공주의료원 개원식 / 2017.5.12. …… 383
- 충남연합회장기 제25회 게이트볼 및 제4회 그라운드골프대회 / 2017.5.12. …… 385
- 2017년 제34회 걸스카우트 큰잔치 / 2017.5.13. …… 386
- 제7회 공주 무령왕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 2017.5.13. … 387
-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 / 2017.5.13. …… 388
- 2017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 2017.5.19. …… 389
- 제24회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 2017.5.20. … 391
- (사)좋은이웃 창립13주년 어르신 효 실천행사 / 2017.5.28. … 392
- 제18회 충청남도장애인 합동결혼식 / 2017.5.30. …… 394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 2017.6.9. ····· 395
•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 2017.6.12. ····· 396
• 공주소방서, 201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 2017.6.14. ··· 397
•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 / 2017.6.15. ····· 398
•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 2017.6.16. ····· 400
• 제48차 충남세종지구JC 회원대회 / 2017.6.17. ····· 402
• 2017년 제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 2017.6.19. ····· 403
• 2017년 충남지역치안협의회 / 2017.6.19. ····· 404
• 제1회 전국시니어보디빌딩챔피온대회 / 2017.6.24. ····· 406
• 대한산악연맹 충청남도공주시연맹 회장 취임식 / 2017.6.24. ··· 407
• 백범김구선생 68주기 추모다례재 / 2017.6.26. ····· 408
•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3주년 기념 – 제9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 / 2017.6.26. ····· 410
• 제11회 충남 농아인의 날 / 2017.6.27. ····· 412
• 제43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 / 2017.6.28. ····· 413
• 2017년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워크숍 / 2017.6.30. ··· 414
• 공주로타리클럽 회장 이 · 취임식 / 2017.6.30. ····· 416
• 공주문화원장 이 · 취임식 / 2017.7.4. ····· 418
• 제33회 충청남도여성대회 / 2017.7.5. ····· 420
• 제53주년 충청남도농촌지도자대회 / 2017.7.6. ····· 422
•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제11대 회장 취임식 / 2017.7.7. ····· 423
• 제43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 2017.7.8. ····· 424
• 2017년 충남국공립유치원교원 한마음체육대회 / 2017.7.8. ··· 425
• 사곡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17.7.11. ····· 426
•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체험시설 건립관련 포럼 / 2017.7.13. ··· 427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12회 충청남도 국악제 / 2017.7.16. ····· 428
- 충청남도생활개선회 회장단 수련대회 / 2017.7.18. ····· 429
- 제21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충남 예선 대회 / 2017.7.19. ··· 431
- 유구읍 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17.7.19. ····· 432
- 제26회 대건제 / 2017.7.19. ····· 433
- 제18회 공주시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촉진대회 / 2017.7.23. ··· 435
- 충청남도 청소년예산 선정을 위한 타운홀미팅 / 2017.7.26. ··· 436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보령지대 발대 26주년 기념식 / 2017.7.27. ··· 437
- 제18회 공주시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촉진대회 / 2017.8.9. ··· 438
- 제47회 유구읍민 화합 체육대회 / 2017.8.15. ····· 439
- 2017년 충남새농민 전진대회 / 2017.8.17. ····· 440
-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2017.8.18. ····· 441
- 충남발전협의회장 이 · 취임식 / 2017.8.23. ····· 443
- 2017년 충청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 / 2017.8.24. ····· 445
- 2017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및 생명사랑문화제 기념식 / 2017.8.25. ····· 446
-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골프대회 시상식 / 2017.8.25. ····· 447
- 제7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 2017.8.25. ··· 448
- 제47회 충청남도사진대전 / 2017.8.26. ····· 449
- 2017년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 2017.8.29. ····· 451
- 온양라이온스클럽 창립 제50주년 기념행사 / 2017.8.31. ··· 452
- 제2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충남 합동추모제 / 2017.9.2. ····· 453
- 제18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17.9.6. ····· 454
- 제1회 충남지속가능발전대회 / 2017.9.8. ····· 455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14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 / 2017.9.8. …… 457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 2017.9.8. … 458
• 제11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4대사회악 근절 및 한마음대회 / 2017.9.10. …… 459
• 제19회 충청남도지사배 골프대회 / 2017.9.11. …… 460
• 2017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 / 2017.9.12. … 461
• 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제22주년 기념 안보결의대회 / 2017.9.12. …… 462
• 제14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 2017.9.15. …… 463
• 제25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 / 2017.9.16. …… 464
• 제18기 민주평통 충남부의장 취임식 및 평화공감 특별강연회 / 2017.9.18. …… 466
• 2017년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 / 2017.9.20. …… 467
•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 / 2017.9.22. … 468
• 제10회 무령왕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 2017.9.22. … 469
• 제23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 2017.9.23. 470
•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2017.9.23. …… 471
• 충무공김시민장군 탄신 제463주년 기념식 / 2017.9.23. … 472
• 2017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 2017.9.25. …… 473
• 2017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 2017.9.25. …… 474
• 2017년도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 2017.9.26. …… 475
• 2017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개막식 / 2017.9.27. … 476
• 제63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 / 2017.9.28. …… 477
• 2017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 / 2017.9.28. …… 478
• 제5회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 / 2017.9.29. …… 479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제10회 충남예술제 / 2017. 9. 29. ····· 480
- 임립미술관 제14회 공주국제미술제 / 2017.9.29. ····· 481
- 제3회 전국 공주아리랑 민요경창대회 / 2017.9.29. ····· 483
-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2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 2017.9.30. ··· 484
- 제16회 충청남도 일반 남녀 농악 경연대회 / 2017.9.30. ··· 485
- 제2회 충남 호국영령 추모제 / 2017.10.13. ····· 486
- 한국걸스카우트 창립 71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 2017.10.13. ··· 487
- 2017년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 2017.10.14. ··· 488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 2017.10.18. ····· 489
- 예산3국축제 기념 전국수석인 대축제 / 2017.10.19. ····· 490
- 제9회 대한민국 생활음악경연대회 / 2017.10.21. ····· 491
- 2017년 간무사 한마음 워크숍 / 2017.10.21. ····· 492
- 제19회 한국백제서화협회 공모대전 / 2017.10.21. ····· 493
-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 2017.10.23. ····· 494
- 농협충남본부 신청사 준공식 / 2017.10.24. ····· 495
-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 2017.10.25. ··· 496
- 2017년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및 제48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 2017. 10. 27. ····· 497
-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 / 2017.10.31. ··· 498
- 제10회 내포제시조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 2017.11.1. ··· 499
- 2017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 / 2017.11.2. ····· 500
-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십시일반 나눔 축제 / 2017.11.3. ····· 501
- 제2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 2017.11.3. ····· 502
- 제4회 무령왕배 전국 해동검도대회 / 2017.11.4. ····· 503
- 영규대선사 및 호국의승 추모제 / 2017.11.5. ····· 504

CHAPTER II
도민과 함께

-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의 역사문화실」개관식 / 2017.11.6. ····· 505
- 2017 세종공주축협조합원 한마음대회 / 2017.11.7. ····· 506
-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제3회 고부한마음대행진 / 2017.11.8. ··· 507
- 2017 충청남도축구협회장배 통합 축구대회 / 2017.11.9. ··· 508
- 공주소방서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017.11.9. ····· 509
-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연차대회 / 2017.11.9. ····· 510
- 제18기 민주평통 충남지역 자문위원 연수 / 2017.11.10. ····· 511
- 2017 충남 소비자 대회 / 2017.11.10. ····· 512
- 제6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 2017.11.16. ····· 513
- 금강대학교 제6대 이준원 총장 취임식 / 2017.11.16. ····· 514
- 2017 유구 자카드섬유 페스티벌 / 2017.11.17. ····· 515
-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85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 2017.11.20. ··· 516
- 2017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 워크숍 / 2017.11.20. ··· 517
-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 2017.11.20. ····· 518
- 공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후원의 밤 / 2017.11.22. ····· 519
- 제11회 충남 문인화협회 특별기획전 / 2017.11.25. ····· 520
-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 / 2017.11.25. ····· 521
- 제2회 공주알밤 그라운드골프대회 / 2017.11.25. ····· 522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 2017.11.27. ····· 523
- 2017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회원 수련대회 / 2017.11.29. ··· 524
- 행복한 황혼의 리마인드 웨딩 / 2017.11.29. ····· 525
-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 2017.11.30. ····· 526
-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청양군지회 창립식 및 지회장 취임식 / 2017.12.1. ····· 527



CONTENTS

CHAPTER Ⅱ

도민과 함께

- 민주평통 공주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 / 2017.12.6. …… 528
- 2017년 문화관광해설 시연 경진대회 / 2017.12.8. …… 529
- 2017년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2017.12.8. …… 531
- 금오산 향천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 2017.12.9. …… 532
- 2017년 재경공주향우회 송년회 / 2017.12.13. …… 534
- 2017년 충남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잇다' / 2017.12.21. … 535
- 2017년 송년사 / 2017.12.29. …… 536

Ⅱ-3. 2018년도 …… 537
- 2018년 신년사 / 2018.1.1. …… 539
- 공주문화원 주관 2018년 공주시 신년교례회 / 2018.1.3. …… 540
- 도 ·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2018년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 / 2018.1.3. …… 541
- 2018년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 2018.1.4. …… 542
- 2018년 공주시사암연합회 신년하례법회 / 2018.1.8. …… 543
- 대전일보사 주관 2018년 충청남도 신년교례회 / 2018.1.8. … 544
- 한국효실천시민연대 2018년도 신년교례회 / 2018.1.12. …… 545
- 유구읍청년회 회장 이 · 취임식 / 2018.1.20. …… 546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2018년도 공주시협의회 정기총회 / 2018.1.26. …… 547
- 2017학년도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졸업식 / 2018.2.6. …… 548
- 공주영명고등학교 영명봉황체육관 준공식 / 2018.2.20. … 549
- 민족통일 충남공주시협의회장 이 · 취임식 / 2018.2.20. … 550
- 한국걸스카우트충남 · 세종연맹 임원 이 · 취임식 / 2018.2.27. … 551

CHAPTER III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언론사 등 창간 · 발간 축사 ····· 553
• 충남신문 창간 8주년 / 2016.7.15. ····· 555
• 내포타임즈 창간 4주년 / 2016.7.18. ····· 556
• 중도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 2016.8.17. ····· 557
• 충청남도의정회보 제6호 발간 / 2016.8.19. ····· 558
• 금강뉴스 창간 10주년 / 2016.9.26. ····· 561
• 동양일보 창간 25주년 / 2016.9.29. ····· 562
• 내포시대신문사 창간 10주년 / 2016.10.11. ····· 563
• 백제신문 창간 17주년 / 2016.10.11. ····· 564
•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4주년 / 2016.10.11. ····· 56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 제6호 발간 / 2016.11.10. ····· 566
• 국회사무처 발행 온라인매체 '국회on' / 2016.11.18. ····· 568
• 홍성신문 창간 28주년 / 2016.12.5. ····· 570
• 「금강춘추」 발행 기념 및 신년사 / 2016.12.15. ····· 571
• 충청일보 창간 71주년 / 2017.2.3. ····· 573
• C뉴스041 창간 10주년 / 2017.2.16. ····· 574
• 서울일보 창간 16주년 / 2017.2.16. ····· 575
• 「충청의 축제」 책자 발간 / 2017.3.15. ····· 576
• 「충청의약뉴스」 창간 / 2017.3.20. ····· 578
• 충남일보 창간 25주년 / 2017.3.27. ····· 579
• 충청신문 창간 12주년 / 2017.4.20. ····· 580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 제7호 발간 / 2017.5.10. ····· 581
• 충청투데이 창간 27주년 / 2017.5.23. ····· 584
• 홍주신문 창간 10주년 / 2017.6.13. ····· 585
• 월간시사저널 청풍 창간 27주년 / 2017.7.1. ····· 587
• 21세기 부여신문 창간 13주년 / 2017.7.14. ····· 589



CONTENTS

CHAPTER Ⅲ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 충남신문 창간 9주년 / 2017.7.19. ····· 590
- 내포타임즈 창간 5주년 / 2017.8.1. ····· 591
- 중도일보 창간 66주년 기념 / 2017.8.28. ····· 592
- 백제신문 창간 18주년 / 2017.10.10. ····· 593
-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5주년 / 2017.10.23. ····· 594
- 충남청하문학회 11집 문집 발간 / 2017.10.24. ····· 595
- 전국시도의장협의회보 제8호 발간 / 2017.11.8. ····· 597
- 홍성신문 창간 29주년 / 2017.11.13. ····· 599

CHAPTER Ⅳ
언론보도 기고문

언론보도 기고문 ····· 601

- 중도일보 기고문 / 2016.10.31. ····· 603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1.11. ····· 606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2.8. ····· 608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3.8. ····· 610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5.10. ····· 613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6.14. ····· 615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7.12. ····· 618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8.9. ····· 621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9.13. ····· 624
- 중도일보 기고문 / 2017.9.14. ····· 626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11.7. ····· 629
- 충청투데이 수요광장 칼럼 / 2017.12.13. ····· 631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I 원내외 의정활동

http://council.chungnam.go.kr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Ⅰ

원내외 의정활동

Ⅰ-1 개회사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초심을 잃지 않은 10대 후반기 의회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

〈2016.7.12.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도지사님과 〔김지철〕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종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충남도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 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이라는 '제10대 충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210만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곳곳의 어르신들은 농사지어서 돈 벌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하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양하고 깊게 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과 능력이 공직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 만에, 관람객이 4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충남의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1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우리 충남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함께 면밀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농 혁신'과 '서해안 비전', '경제비전2030'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여 도민들께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항만, 도로, 철도, 항공 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충남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노력들도 지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아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곳곳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어린이집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현명한 대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소송 건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자체의 경계분쟁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여 충남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2016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며, 정파를 떠난 협력의 자세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한 소통으로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회기되어야

〈2016.8.30.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도 심했던 폭염으로 탈진 환자가 발생하고 농작물이 타들어갔으며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피해 농민들과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뭄 등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풍성한 가을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방문과 의정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실시된 '2016 을지연습 훈련'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 · 경과 유관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2일까지 펼쳐진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진정한 노력의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선수단과 우리지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는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들과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들, 서북부권과 동남부권간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들과 교육여건의 변화요인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 노력들과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하는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질 때에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마음을 대변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힘을 실어드릴 것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지적하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2017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와 '2020 계룡 군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제행사에 걸맞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수소차 육성 사업'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며 향후 5년에 걸쳐 추진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이 예상되는 친환경자동차 산업에서 우리 충남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를 대표하게 될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은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OECD 34개국 중 31위에 그쳤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관광객 증가율은 2위를 차지하며 향후 잠재력은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충남 또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해질 때에 'KTX공주역'도 활성화 될 것이며, '서산민항'의 성공적인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입니다.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주민들도 불편한 정주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확충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나가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충남에서도 일찍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전기요금제(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도입 노력을 타 지자체와 공조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충남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도내 곳곳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스런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육 마당'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행정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농어촌 교육청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활기찬 시기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따뜻하게 보내는 명절기간임에도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심사와 함께 주요사업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활기차게 시작한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도의회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조례 제정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과 집행부에 대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 해야

〈2016.9.26.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분이 지나 높은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 미 · 일 3국은 외교장관 대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이라는 맹목적인 길을 걸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보에는 너와 나도 여 · 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북한과 주변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19일에는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상황에서,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되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정부의 대처에 있어서 여러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재난 대응시스템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지진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도내 서북부 지역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맘때면 태풍에 대한 대비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가뭄과 태풍 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이 5조원 이상의 규모로 반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을 국회 예산안 확정에 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62회 백제문화제가 지난 9월 24일부터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백제, 세계를 품다!' 라는 이번 주제와 같이, 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를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에 도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축제들을 통해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민 · 관이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오랜 시간을 공들여 준비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대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충남의 참된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 둔 보람된 시기이면서, 학교에서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수험생들은 수능 등 입시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대비하여 학교의 각종 안전시설에는 문제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각종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어느덧 올 해도 석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심도 있는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해야

〈2016.11.7.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입동인 오늘,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다사다난했던 도정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 사반세기라는 시간을 맞이한 올 한 해, 우리 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도 적극 협력하며 정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적극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활발한 의정토론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은 도정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며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다각도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보태야 합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후반기 특위인 '내포문화권발전 특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위' 활동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해는 환황해권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도가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서산민항 유치'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 및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의 추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결정' 등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한 해였습니다.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으로 도민의 따뜻한 마음과 자랑스러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실시'와 '천안시 고교평준화정책' 등 발전하는 교육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비록 내포신도시 정착의 어려움이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나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며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KTX 세종역'에 대한 충청권의 동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고민하는 합의 노력 없이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청 서남부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대응에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의 확고하고 뚜렷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세종역사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도 KTX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희정 지사께서도 공주역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한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주시어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 등 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안에 있어 도정 및 교육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설계하고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

〈2017.2.6.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돈의 국내 정치 상황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충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왔으며,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내실들을 착실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해보다도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AI와 가뭄, 그리고 쌀값 하락, 미세먼지와 가축분뇨 냄새문제 등은 우리 도민들을 힘겹게 하였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큰 고민과 숙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도 예상이 되는데, 중앙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의 뜻에 의해 펼쳐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변화들이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불확실한 중앙정치 분위기에 편승해서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3농혁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따른 미비점도 보완해서 진정한 충남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활성화 방안,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 KTX 공주역의 활성화,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등에 힘쓰며 충남이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중추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KTX 세종역사가 만들어질 경우 공주역은 그야말로 시골의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나 대응전략이 없었던 것은 안희정 지사님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도정현안의 업무 소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일부에서는 안희정 지사님의 대권 도전에 따른 업무소홀이자 도정공백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도정공백과 업무의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도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교육공동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등을 다각도로 활성화하여 의정역량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면서, '내포문화권발전 특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 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 해의 비전과 여러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새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

〈2017.3.27.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으며,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에 대해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혼돈과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모두가 아픔을 딛고 새롭게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이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들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자리들에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들의 중심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각 당 대표와 만나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적극 건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허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제정권 확대', 그리고 '부단체장 및 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수구조의 문제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인데 반해, 국가와 지방의 지출구조는 4대 6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산단도 아닌데 총 4조 4천억원의 세금을 거두어 지방에는 약 274억원이 배분되는 역구조로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문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철저하게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이 심의해야 할 예산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약 9명의 정책보좌관을 두고있는 반면,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도 1인당 0.23명의 정책 지원 인력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께 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모든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서산비행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총 436억원의 국비확보가 필요한 만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불'에 대한 대비가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도내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물이 필요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서 도민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에이아이(AI)'에 대한 걱정들도 우리 도민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시도별 자살률 2위, 노인자살률 1위'

라는 불명예입니다. 4월에 특히, 자살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의 경선 참여로 도민들께서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인해 미뤄뒀던 안건들에 대해 다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에서도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키며, 향후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올 해에는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6회 전국 소년체전'이 각각 5월 16일과 5월 27일부터 아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 번(3.2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체전에 필요한 2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다짐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하게 되며,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주요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실현 필수요건 지방의회 역량 강화해야 하자

〈2017.5.11.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 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는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뒤로 하며,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대응방안과 미래전략들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민께 비전을 제시하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도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의 지역발전 주요과제들을 실천하는 시책들이 정부의 각 부처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과 열정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이번 선거과정에서 도지사의 경선 참여로 도정 공백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4월 28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전에 3개 정당 대선후보와 각 당 대표들에게 충청남도의 정책개발이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들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지방경찰제 도입도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각 계 각 층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간절함을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역량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보',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과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정유년도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주시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항상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비롯한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고, '적극적인 농촌 일손돕기'와 '내실있는 영농시책'을 추진하셔서 금년에도 풍년 농사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정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 모두의 걱정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우리도에서도 신규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곳 내포지역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될 연료에 대해 주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연료가 내포신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고체연료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고자 하는 도민의 요구는 점점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6회 전국 소년체전'이 오는 16일과 27일부터 아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도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원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세계 인삼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설립하는 '세계인삼도시연맹'이 잘 추진되어, 우리 인삼에 대한 전 세계인의 사랑이 더욱 커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에 열정을 다하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김지철 교육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이 이어지면서,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하여 당부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역 신설 문제 충청권이 상생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2017.6.1.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의 첫 날, 제296회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광주에서 열렸으며, 24일에는'제6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권'과 '인사청문 도입'을 '적극 검토' 한다는 입장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두 분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위 위원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금산 출신 지역 의원님과 함께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 간, 신비의 약초로 불리는 인삼을 전 세계인이 접하며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행사는 내용과 함께 사전 홍보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6일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북도는 제천 한방엑스포를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설명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는데 우리도에서는 인삼엑스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아쉬웠던 만큼 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동북아포럼 당시에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각국의 대표들과 선전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와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활동들이 타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내 가뭄이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령댐은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도 9.9%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898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도 4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 17.2, 예산 27.5, 홍성과 보령 31.4% 등 서북부 지역의 가뭄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산AB지구 등 서해 일원에서는 농업용수원의 염도가 영농 한계치를 크게 웃돌며, 염해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기간에도 강우량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장기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예비비 투입도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산업지역 등의 해수담수화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인류문명의 기원이라 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문명 모두가 가뭄으로 인해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재앙이 바로 가뭄입니다.

지금 우리 도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가뭄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도민의 마음을 절실히 헤아려,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세종역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C 0.59).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청권이 상생하는 데에 분명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세종역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시어, 현재 도내 유일의 KTX역인 공주역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주역이 활성화되어야만 공주는 물론 인근의 논산, 부여, 청양 등 다소 침체된 도내 남부권의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한, '장항선복선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항선복선전철은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그리고 전북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유일의 대량수송 수단이 될 것입니다. 향후 '서해선복선전철'과 연계되면 그 기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며, 서산 민항 취항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와 함께

'KTX공주역 활성화'와 '장항선복선전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도가 철도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민의 관심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다시금 모아져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나온 일방적인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 등 이와 관련한 SOC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명분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우리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적극 채택토록 하여야겠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 의회, 각급기관단체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여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도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내포 지역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걱정과 우려를 해소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도'와 '포항공대', '재단법인 여시재'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와 적성을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충남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교육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그리고 학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6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등이 있습니다.

도정과 학교 현장의 현안들이 잘 반영된 조례안인지 살펴주시고,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순기에 있어,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 심사를 통해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 필요

〈2017.7.10.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가뭄 피해 지역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개원한 제10대 도의회가 어느덧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총 26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54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는 138건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30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7회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을 펼쳤으며,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등 45회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271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370건, '5분 발언' 221건을 제시하며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0대 후반기 의회의 남은 1년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 장마가 시작되어 고대하던 단비가 도내 곳곳에 내리며 도민 여러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지만, 아직도 누계 강수량이 평년 대비 (67)% 정도에 머무르며 가뭄이 해갈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가뭄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께서 물을 더욱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정부와 함께 우리 도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 수출이, 최단기간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다양한 생산품들에 대한 소비촉진 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와 관광지에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며, 도와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도 솔선수범하여 우리 지역에서 알차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이제 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제문화유산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와 시군, 중앙정부, 민간업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유산에 걸맞은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이 다각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서해선복선전철'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권역을 활성화하게 될 '삽교역사'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악취'와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내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하위를 기록하는 꼴찌행정의 표본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비확보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충남 각 지역에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서둘러 주시길 바라며 청양 강정리 지역의 석면피해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 간 열리게 될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물론 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열리는 '백제문화제'도 안희정 지사 취임이후부터 계속 움츠려들어 명맥만 유지하는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일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체계를 상시 가동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처, 식중독 예방, 농산물 수급 안정 등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물놀이 시설과 응급처치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수욕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아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도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으로 인해 우리 충남에서도 전체 학교의 15%인 120곳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급식 대란을 막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등 교육 현안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시어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2017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극심한 가뭄과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40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충제 계란’파문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재정립 기회로

〈2017.8.28.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부터 지속되었던 극심한 가뭄, 그리고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농가가 큰 피해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는 있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체계를 상시 가동하는 등 만반의 재해대책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면서 풍성한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오늘, 제298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실시된 '2017 을지연습'에 성실히 임해 주신 민 · 관 · 군 · 경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금,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행동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 실적이 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신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맡은 바 책무와 의정활동에 충실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룰 국회특위가 오늘부터 열리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천안의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정수가 합리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사업과 미래 전략 사업들이 국가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제63회 백제문화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알찬 프로그램 구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5개 사업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조성 5년차를 맞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는, 관계 기관과 축산 농가의 허술한 제도 운영과 관리, 그리고 대량수급시스템이 낳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더욱이, 친환경 인증 업체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농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먹거리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교사 임용 수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교사 임용과 관련 수도권과 지방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우리 도를 비롯한 5개 도에서는 3년 연속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임용절벽', 지방은 '인력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임용 수급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활기찬 시기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제10대 후반기 의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가 당초에 목표했던, '도의회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조례 제 · 개정 활동'등에 더욱 분발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개헌 논의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야 정계특위 간사를 만난데 이어서, 7월 25일에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8월 7일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각각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현안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전개해야

〈2017.9.19.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높은 가을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이 계속하여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탄은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긴박하게 대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 그리고 일부 주변국의 반발 등이 지속되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8월 28일, 지난 회기 시 도 지휘부가 의회의 사전 양해 없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분명히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3일 후인 8월 31일에는 도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와 양 부지사 세 분 모두가 이틀간 관내에 부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안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도정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2일자로 행정안전부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전출 후 지금까지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내년도 도정방향과 살림을 결정하는 본예산 편성이 자칫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후임 임명이 이루어져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에 있어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대기환경은 도민께서 바라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5조 6천억 원 규모의 국비가 담겨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복지 분야 등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도가 아직도 시설확충 등이 필요한 SOC와 관광 분야 등에서는 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 철도 및 도로 사업과 백제유적 관련 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비가 계획보다 적게 반영되었고, 장항선복선전철과 당진항진입도로 등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 기한인 12월 1일까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이 개관하였습니다. 태안을 찾았던 123만 자원봉사자의 정신을 기리면서, 해양 재난에 대응하고 해양 생태 교육을 실시하는 유익한 공간으로 잘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오는, 9월 21일에는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막을 하게 되고, 29일에는 '제63회 백제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계룡 군문화축제', '홍성 역사인물축제', '논산 상월명품고구마축제', '당진의 심훈상록문화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서천 홍원항 전어꽃게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역축제는 우리 도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따뜻하게 보내는 명절기간임에도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연휴기간이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도민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긴급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 둔 보람된 시기이면서, 수험생들은 수능 등 입시준비에 매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분 등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서울과 강릉 등지에서 안타까운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상태로, 폭행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크고 후유증도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방관자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계도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과 학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사학기관, 특성화고, 학교급식, 유치원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청렴한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대응책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하여 학교의 각종 안전시설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 제 · 개정안 처리와 함께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어느덧 올 해도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활기차게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지향적 조화 속에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2017.11.6. 본회의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도정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김석곤 위원장님과 김복만 의원님, 그리고 조직위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수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애써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52년에 주민 선거를 통해 제1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가 유보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목표 아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경제, 사회 그리고 지방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견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해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된 지 26년, 지자체장 선거 이후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지방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에,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직을 맡아 각 정당 대표와 행정안전부장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쉼 없이 정진하여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방분권에 대한 면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이 반드시 제도화되어 지방분권화의 기초가 내실 있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곧바로 투영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제도'등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들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 비해 월등히 격차를 보이는 의정비의 조정도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함께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조례 제 · 개정 활동은 물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발전 특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안 시대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도가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도시인 내포신도시도 아직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쾌적한 대기질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비록,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반복되는 가뭄'과 '구제역 및 AI',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내포 열병합발전소 문제', 그리고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학교폭력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적하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힘찬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도내 시군별 인구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우려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에 의하면 서천, 청양, 부여, 예산 등 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홍성, 공주 등 4개 시군이 '인구소멸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시책 추진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우리 도의 '3농 혁신'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해 그동안 예산투자대비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해야하는지, 중단해야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3농혁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진두지휘하는 정무부지사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차기 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정책 추진이 흔들리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의 더 큰 활동이 기대됩니다. 직원들도 이유야 있겠지만 자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을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고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 의결',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심 현안사항 중심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정책과 시책에 대해 알찬 마무리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의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도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1.23. 본회의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발전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도내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도세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1위를, 우리 도의회는 전국 2위를 기록하였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며, '장항선 복선전철'과 '서산 민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의 열망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힘찬 미래를 약속하게 될 지역 기반 사업들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AI와 구제역', '가뭄'과 '대기오염',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등은 여전히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큰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총 1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114건의 조례를 비롯해 18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도내 8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58건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여섯 개의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위'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미세먼지 특위'는 우리지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께 알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펼쳐,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펼쳤고, 이를 통해 각 계 각 층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올 해는 '민선 7기 충청남도'와 '제11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중앙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의 뜻에 의해 펼쳐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듯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에 대해서도, 지방이 한 목소리로 힘을 낼 때만이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올바르게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 4대 협의체'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8년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올해, 도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비전 아래,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중점 추진해 온 '행정 · 자치 · 3농'의 '3대 혁신과제'와 '성장 · 권리 · 환경'의 '3대 행복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비전 아래, 특히 '참학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시하신 올해의 청사진에 대해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실천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와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달 9일이면,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평창동계올림픽'이 펼쳐집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올림픽정신으로 전 세계가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220만 도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사태 신속히 수습하고 도민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2018.3.6. 본회의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일 년 농사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영농철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분주한 시기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시고 각종 의정토론회와연구모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희정 도지사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충격에 빠져 매우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는 이 중대한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도민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 충북 제천시와 올 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등 전국적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번 달 말까지 도내 1만 3,0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 참여와 안전점검실명제 등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진단결과에 따라 정밀점검과 보수, 보강 등 철저한 사후조치로 우리 지역에서는 단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0여년 가까이 표류하다 이번 달 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이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우리도의 최대 현안인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롯데측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예의주시하여 또다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이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 · 군에서 생활체육과 문화 · 역사 ·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 치뤄질 계획입니다.

모든 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 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주요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도 차가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새봄의 온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Ⅰ

원내외 의정활동

Ⅰ-2 그외활동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

〈2016.6.30. 본회의장〉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충남도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1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제10대 충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정파를 떠난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10대 도의원 여러분의 힘찬 의정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

〈2016.7.26. 본관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 가족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6년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며 기업의 고용능력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각종 지원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2016. 6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됨.)

여기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도내에서도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도민들께서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가치를 공감하며 공공구매시장의 판로가 확대되어 나가야 하고, 충남 도정에 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응원하면서, 힘을 보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행사를 축하드리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이해해 나가는 계기

〈2016.8.2.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Peace Road) 2016, 충청남도 통일대장정」 개최를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국선열의 고향이자 백제문화유산에 빛나는 우리 道에서 통일대장정의 국내 일정이 시작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 그리고 'UN 제5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위해 의미있는 역주를 펼치는 '한국 종주단과 세계 140개국 종주단' 여러분께 힘찬 성원을 보냅니다.

광복 71주년을 맞고 있지만 남북의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피스로드' 역주가 전세계인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은 분명, '대박'입니다. 그렇지만 '대박'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여러분의 의미있고 활기찬 활동을 충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평화통일'이라는 우리민족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행사를 축하드리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2016.8.18. 리솜오션캐슬〉

도와 시 · 군 입법담당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말복도 지나며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며 끈끈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저와 공개경쟁을 통해 무수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성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만남을 갖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잘 이어 나가는 사람들은 삶에 윤기가 나고 그것이 곧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들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저도 4선 도의원이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의회에서 일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며 그 속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계기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는 바로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6조원 넘는 도 예산을 도의원 40명이 일일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업무 전부를 확인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 시 ·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의 꽃은 바로 '입법기능'이며, 집행부를 올바르게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좌인력 없이는 이러한 입법기능과 정책분석기능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의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으로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방 의회가 주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심층적으로 노력하시며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복무하시는 동안 의원님들과 좋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소중한 연을 만들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근무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서운한 점이 없이 그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찬회가 업무지식 습득을 넘어서 도와 시 · 군 입법담당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태안의 정취도 마음껏 만끽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

〈2016.8.29. 본관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남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하며 제1차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충남해양수산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게 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충남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해양수산분야'가 충남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도민들께서도 기대가 큰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도의장으로서, 고민을 거듭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본 포럼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적극 활성화 해 주시길

〈2016.8.30. 의회 1층 로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마흔 명의 모든 도의원은 제10대 충남도의회 의정방향인

「공감 의정」, 「실천 의정」, 「창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도움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지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충남도 의정에 많은 제안과 조언 등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지난 2010년에 본 자문위원회가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 제2기 활동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3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 저 또한 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지 두 달 된 의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과 210만 도민 또한 저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잠시 후에 선출될,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끌어 가게 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5개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의정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도의장으로서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로 보답

〈2016.8.3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임시회장을 맡아주시어 수고해주신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간 상호 교류와 협력',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제15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의장님들과 항상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정적인 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인상' 등도 집행부와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현안이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난 제14대 협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 정치권과 협의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에 계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 및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댁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기초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방의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

〈2016.9.8. 충남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제7대 후반기 시군의회를 이끌어주고 계신 의장님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시 · 군의회 의장님 여러분!

'91년도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어느덧 사반세기라는 적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선배 ·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노력들이 더해지며 의회도 차근차근 성장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노력들과 입법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집행부와 더불어 열심히 해왔습니다.

의장님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들께서도 도의회의 활동에 언제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도내 광역 · 기초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지방의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의장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뜻 깊은 계기 마련

〈2016.9.27. 도의회 108호실〉

경상북도 의정회 [양재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우리 내포신도시를 찾아주신 경북 의정회원 여러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의정회'와 '충청남도 의정회'가 만남의 자리를 통해, 앞으로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경] 충청남도 의정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도의회는 1952년 5월에 문을 연 이래, 잠시 중단되었다가 '91년도에 부활하여 어느덧 사반세기라는 적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협의회장을 맡게 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나 지방의회의 활동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은 지난 2013년, 이곳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신도시에서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소 불편한 점도 많으실 테지만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서 신도시를 발전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머무시는 동안 충남의 맛과 멋을 느끼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의정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의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2016.9.29. 국립공주박물관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느껴지는 이 좋은 가을에,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백제'라는 주제로 「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가 백제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왔던 백제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이제 서서히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로 향한 힘찬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삼국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적극적인 대외교류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그 문화적 우수성을 전파하며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했던 백제문화가, 문화예술의 시대인 지금, 새롭게 주목받으며 깨어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백제의 역할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이번 회의가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자리가 백제의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며 충남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의원과 의장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열악한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발판 마련

〈2016.10.25. 도의회 국제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윤석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종수] 제5대 의장님, [김재봉] 제6대 의장님, [이복구] · [박동윤] 제7대 의장님, [김문규] · [강태봉] · [정순평] 제8대 의장님, [유병기] · [이준우] 제9대 의장님, 그리고 지금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기영] 제10대 전반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의회는 1952년 5월에 문을 연 이래, 잠시 중단되었다가 '91년도에 부활하여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어느덧 사반세기라는 적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선배 의원님들과 의장님들의 땀과 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에 여러모로 열악한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음은 물론이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선배

의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 중앙으로부터 침해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등도 꼭 관철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협의회장을 맡게 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 의장님들께서도 언제나 지방의회의 활동에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좋은 고견들도 많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침해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2016.10.27. 부산벡스코〉

안녕하십니까?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25주년, 지방자치 21주년을 맞는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행사준비에 고생해 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그리고 [백종현] 부산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이 자리해 주신 시 · 도지사협의회 [최문순] 회장님과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최명희] 대표회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에 의하여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과 경제개발의 이유로 유보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 소집으로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온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여러 변화와 함께 성장하였고 현재의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지방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행정은 주민을 받드는 주민중심 행정으로 변모하였으며, 각 지방은 그 곳 실정에 맞는 특성화되고 개별화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발전의 지방자치 20여년이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가 또 다른 미래와 후세대를 위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 중앙으로부터 침해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비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간 세출비율과 조세구조로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지방자치는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표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인력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고, 광역 의원이 의정활동을 도와줄 정책보좌관 한사람 쓸 수 없는 지금의 지방자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향후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유산 가치 있게 여기며 재창조 작업 중요

〈2016.10.28. 아산교육지원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아산현 관아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아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평생을 노력해 오시며, 오늘의 의미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신 [이기철] 도의원님과 도의회 및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환황해권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충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했었던 도로와 철도의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충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산비행장의 민항유치 노력도 탄력을 받고 있으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도 내년부터 취항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남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처럼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재창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하게 되는 아산현 관아의 복원에 관한 사항도 이러한 의미에서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첫 단추를 계기로 우리의 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아산시민들의 염원이 이어져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재창조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지켜나가야

〈2016.11.11.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환황해권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충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했었던 도로와 철도의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충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산 비행장의 민항유치 노력도 탄력을 받고 있으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도 내년부터 취항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남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재창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하게 되는 천안의 원도심 재생방안도 이러한 의미에서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대흥동 명동거리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약속의 장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도시와는 다른, 깊은 멋과 정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이어지며 고민을 지속해간다면, 원도심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언제나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2016.11.17. 의회 본회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계룡초등학교의 5 · 6학년 학생여러분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에 입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오시면서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양만수] 교감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계룡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충청남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 !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210만 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40명의 도의원들이 모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민의의 전당,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도 및 교육청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하여 도청과 교육청에서 사무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게 될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의원님들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의사진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장선거, 2분 자유발언, 조례제정 등을 진행하면서 투표도 해보고 찬 · 반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청소년 의회교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충남도의회 청소년교실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에너지사회를 다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

〈2016.12.1. 아트센터 고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신재원 부의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제1회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는 에너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소비를 위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충남과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들께서 수소에너지에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새로운 미래 에너지사회를 다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1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인 두 단체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2016.12.8. 공주 한옥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는 아쉬움과 내년을 설계하는 설렘이 있는 소중한 시기에, 「2016년 지역문화예술진흥 협력 워크숍」이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내 '문화원'은 연합회와 15개 지방문화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총'은 8개 도 지회와 14개 시군지회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예술의 부흥을 통해 도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한 영국의 작가(체스터튼)는, '좋은 문화는 무성한 가지와 잎을 품고 있는 나무가 우리 머리를 덮어주고 있는 것과 같고, 나쁜 문화는 모두가 획일적인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만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워크숍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인 두 단체가 친목을 도모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 자주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충남문화재단 및 각 문화원과 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에 우리 충남이 앞장서 가자

〈2016.12.14.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시대이지만,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와 사회전반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은 더 나은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한다. 하지만 차별엔 도전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대며 '차이'를 없애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받은 천부인권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 좋은 충남,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에 우리 충남이 앞장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발표회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무엇보다 중요

〈2016.12.14. 도의회 브리핑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2016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충청남도의회 공식 회기의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21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사회전반에 걸친 격랑 속에서도, 충청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각 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노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분열되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이지만 도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와 내수시장 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가 지도층의 환골탈퇴하는 노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남도의회를 되돌아보면, '총9회 122일간'에 걸쳐, '2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202건과 비교하면 6.4%가 상향된 것으로, 다양한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 토대인 입법 활동에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48건을 포함해 총 136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개최한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통해,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북아 각국의 문화와 관광의 교류를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10대 도의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활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84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62건 등 총398건에 달하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활발히 펼치며, 66건의 '5분 발언'과 136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정 주요정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2015. 7. ~ 2016. 6.)하여, 25년 동안 장기표류 되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불씨를 재점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자족기능을 높이고자하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2014. 8. ~ 2016. 6.)하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청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며 충북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2016년도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도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출범과 함께,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 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을 의정비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2017년에도 항상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입법정책기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운영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지도 25년이라는 사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과 노력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회는 전반기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타협과 협의 노력이 빛을 발하며 7월에 후반기 원구성을 안정적으로 이루게 되었고, 사십 분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들의 응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국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16. 7. 14.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11. 7. 국회 안행위 회부.) 지난 11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각 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우리 충남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쿨넷’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향 고민 필요

〈2016.12.19. 예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따뜻한 팥죽 한그릇이 생각나는 ‘동지’를 이틀 앞 둔 오늘, 도교육청 스쿨넷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용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와 예산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292회 정례회가 폐회되며 2016년도의 공식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힘 입어, 올 해에도 의정이 잘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현 상황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이지만 도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와 내수시장 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하게 되는 '스쿨넷'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여름 때('16. 6월 결산 심의 시)부터 문제가 수면 위로 붉어져,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스쿨넷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가고, 투명한 예산 관리를 통해 충남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 향후 백년을 밝히게 되는 다양한 기반들이 조성될 것

〈2016.12.26.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한 해의 아쉬움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알찬 새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아,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협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뜻깊은 자리는,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 핵심인 '산 · 학 · 연 · 관(産學硏官)'이 상생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자는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계'는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학계'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연구계'는 '산업계와 학계에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관'은 '산 · 학 · 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도의 향후 백년을 밝히게 되는 다양한 기반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본 협의회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어느덧 성탄절도 지나며, 올 한 해가 일주일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시면서, 희망찬 새 해를 설계하는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

〈2017.1.19.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 해를 맞아, 「안전충남비전 2050(이공오공)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의미하는 바가 국민 모두의 가슴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과 단체들은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안전하고, 안전한 만큼 살아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의식에 눈을 뜨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매사에 기민한 대처를 해나갈 때에,'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전'은 우리 도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이자 공공기관들의 존립목적이 됩니다. 오늘 선포하는 「안전충남비전 2050」과 함께 '안전한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대의민주주의 꽃'인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주민들을 지키며,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논의 기대

〈2017.3.6. 덕산 리솜리조트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지난해 8월, 위촉식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뵌 이후, 오늘 「2017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세호]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자문의 역할'에 대해 좋은 강의를 해주실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3기로 힘찬 새 출발을 한 의정자문위원회는 김세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5개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각 계 각 층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로 이루어진 본 위원회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 의정에 많은 제안과 조언 등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40명의 도의원들은 앞으로도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을 잘 받들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과 자문위원간 연계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의 추천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과와 미흡함이 공존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와 이어지는 전체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짧지만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간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

〈2017.4.18. 일본 아키타현 캐슬호텔〉

존경하는 아키타현 의회 [시부야 마사토시] 의장님! 그리고 포럼에 참가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제8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 국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키타현 의회 [시부야 마사토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 각 국의 문화와 관광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은 각 나라와 지방정부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적 문제, 국가 간 영토문제, 역사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긴밀하게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노력 못지않게 지방정부 역시 지역 간 교류협력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 · 개방, 신생러시아의 탄생,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부활 등이 국제사회의 세계화 · 지방화와 맞물리면서 국경을 초월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등 양자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 환동해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등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조직이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의 관광 진흥회 개최와 관광분야의 인적교류 추진 등 문화 · 관광 ·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 각 국의 관광교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문제 등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서울과 지방이 서로가 연계하여 발전하는 관광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는 지역으로,

환황해권 관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남만의 특색 있는 축제 및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볼거리 · 먹거리 · 즐길 거리가 넘치는 충남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과 생태관광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인 백제문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 '백제'를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현지 여행사 방문 설명회와 팸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음식을 활용한 식도락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외 현지 매체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관광 설명회와 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 각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관광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들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각 국 지방의회 의장단 여러분!

동북아시아 발전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과 충청남도는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각 국 관광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북아 각 지역 관광자원들에 대한 공동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에 노력 못지않게 지방정부 역시 지역 간 교류협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충남의 금산군에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충남의 인삼에 대해 큰 관심을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세계 인삼산업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설립하는 '세계인삼도시연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각 국 의장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회 포럼에서도 좋은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알찬 결실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국 모든 지방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17.4.28.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기도 한 오늘,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구조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6년에 걸친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있으며, 주민 우선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독립적인 조세권과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이 보장되는 기반 위에서 주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지방은 자신만의 발전전략으로 독특한 고유의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직을 맡으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도 도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그리고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지방의회는 그 줄기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도 지방의회의 미래방향이 될 상기의 당면 사항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들과 고견들이 모아지면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와 내빈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은 우리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사명

〈2017.5.26. 부여롯데리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신록이 푸르름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백제문화를 간직한 이곳 부여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를 찾아주신 전국의 교육감님들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며 이번 총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신문화의 약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은 우리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5일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초중고 교사를 1만 3천여 명으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일선에서 고심하시는 교육감님들과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의 총회도, 새 정부의 힘찬 출발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각 시 · 도별 교육 관련 중요 의제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의 자리가 시 · 도 교육감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협의회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머무시는 동안, 멋스러운 백제의 문화유산을 몸소 느끼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시한 번,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신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행사준비에 수고하신 협의회와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노조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2017.6.14. 도청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초여름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오늘,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제1대 출범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년간 양분되어 왔던 노조를 통합하시고, 힘차게 제1대 노조를 출범하신 [김태신]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김현진]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과 전국 각 시도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이순광]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과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통합노조 조합원 여러분!

이제 '제1기 충남공무원노조'는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생의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노조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충청남도라는 조직이 합리적이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의욕을 가지고 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도 전반의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고, 도민의 삶도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임해주시어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노조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큰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노조의 활동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책 파트너로서 우리 도의회와도 합리적 협력관계를 잘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 정책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에 충실

〈2017.6.15.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여름의 향기가 가득한 오늘, 충남연구원이 개원 2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데이터에 눈뜨다, 스마트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도와 시 · 군이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 정책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땀방울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 활기찬 미래를 약속하는 데에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마음을 최우선에 두며 충남연구원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남연구원 개원 2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의 소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폭넓게 공유되고, 도민 여러분께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현장의 길잡이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

〈2017.7.1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윤석우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갈수록 전문화 · 복잡화 · 고도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사무를 제대로 감시 · 견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국 시 · 도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확신, 그리고 주민과 지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있었기에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지방자치의 한축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와 함께 지방의회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오늘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상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키는 민생현장의 길잡이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상하시는 아흔 한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본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유교문화권 발전비전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

〈2017.7.25. 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중복', 일요일은 '대서'였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무덥고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활기차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1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지역의 유교문화는 고대 백제시기부터 시작되어, 고려말 성리학 도입과 조선후기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융성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과 문화유산을 창출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구한 충청유교 역사 ·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걸고 있는 도민 모두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제,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제1회 포럼이 매우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2회, 3회… 포럼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류의 장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충청유교문화권 발전 비전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

〈2017.9.4. 경기도의회 접견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오늘,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정성스럽게 마련하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 의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을 펼쳐 주심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 · 도 의장님들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겸, 염동식] 부의장님,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동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가 11개, 특별위원회는 13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은 114분, 비례대표는 12분, 총 126분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우리 도의회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물 네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계셔서 여성의원비율이 20%정도인 점도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방화시대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후원회 설치 허용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간사를 만났고, 각 당 대표를 만났으며, 지금도 각 계각 층의 많은 분들과 협의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한다면, 양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남의 멋진 축제 두 가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금산군에서 9월 22일부터 한 달 간 열리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9월 28일부터 일주일 간 열리는 '제63회 백제문화제'입니다.

꼭 찾아오셔서 충남이 자랑하는 금산인삼과 백제문화의 깊은 멋과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에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 시·군 입법담당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

〈2017.9.14. 대천 한화콘도〉

도와 시 · 군의 입법담당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며 끈끈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저와 공무원시험 통해 직업공무원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과의 만남은 비록 입문의 방법은 달라도 가고 있는 길은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충남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잘 이어 나가는 사람들은 삶에 윤기가 나고, 그것이 곧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들로 살아가다 보니 저도 4선 도의원이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계기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들에게는 바로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의회직원 여러분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6조원이 넘는 예산을 도의원 40명이 일일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000명이 넘는 집행부 직원의 업무를 모두 확인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의회 기능의 꽃은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입법기능'과 '정책분석' 능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건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보좌인력이 없이는 이러한 입법기능과 정책분석기능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으로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방 의회가 주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심층적으로 노력하시며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복무하시는 동안 의원님들과 좋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의회에 근무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서운한 점이 없이 그 노고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찬회가 업무지식 습득을 넘어서 도와 시 · 군 입법담당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보령의 가을 정취도 마음껏 만끽하시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을 보다 더 창조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2017.10.13.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유병국]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환황해권 서해안시대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충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했었던 도로와 철도의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충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근간인 농업을 보다 더 창조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는, '충남형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뜻깊게 다가옵니다.

모쪼록 오늘의 소중한 시간이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충남형 농업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펼쳐져, 농업 발전을 선도해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정유년 올 한 해도 두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의식 고취와 전문지식 함양해야

〈2017.10.16. 태안 리솜오션캐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과 의정업무 등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 의정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뜻깊은 워크숍을 정성스럽게 마련하신, [정병희]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힘차게 출발했던 제10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가 어느덧 15개월이 넘는 보람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정진하여 오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와 우리 지방의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헌 논의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사항이 아직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온 국민의 공감대 확산'입니다.

저 또한 도의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나며 전국 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이면서, 우리 도의회 스스로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여 도정의 중심축으로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민의 동반자 역할에 충실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열리는 금번 워크숍은, 의원님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정담을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모범적인 의정연찬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0대 후반기 충남도의회가 임기가 다 하는 순간까지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에 오늘의 자리가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 중요

〈2017.10.17. 충남연구원 중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종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와 충남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은 다른 문제들로의 여파가 무엇보다도 큰 사안입니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도 8.2%를 기록했으며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도에서도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현장과 농축산업 현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산과 지역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자리가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자리가 자주 펼쳐져,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정유년 올해도 두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고자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형 동네자치’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길

〈2017.10.19.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왕도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우리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공주시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주민자치, 동네자치’를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도정 3대 혁신 과제’로 ‘동네자치’를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 협동과 나눔을 통해,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혁신의 국정과제’로 동네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한 ‘혁신 읍면동 추진’이 선정되어, 우리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충남형 동네자치’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주민자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주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여 관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동네자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인, 주민 스스로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에 함께 공감하며 의정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경연하는 즐겁고 생기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화합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대안 적극 협의

〈2017.10.19. 도의회 특위회의실(108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오늘, 「제10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서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우리 도를 찾아주신 [김봉교], [김태석] 공동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30여년의 시간 동안 지방행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갈수록 전문화 · 복잡화 · 고도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사무를 올바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지방의회가 있기까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진해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확신, 그리고 주민과 지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있었기에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지방자치의 한축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후원회제도 허용'의 문제가 있으며,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지방분권 강화'가 구체적으로 천명되도록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전국시도의회가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대안들도 적극 협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잠시 후에 둘러보시게 될 '백제문화단지'등에서 부여의 고즈넉한 멋을 몸소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돌아가시는 길에도 금산에서 펼쳐지고 있는「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단풍이 물들어가는 공주의 계룡산 등을 둘러보시며,

충남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복지체계와 처우개선에 힘쓰자

〈2017.10.25.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역(周易)에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나타내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불철주야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소방가족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소명의식만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여건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게 됩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은 물론, 의료기관 등의 보건복지 여건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체계와 처우개선에 힘쓰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가, 소방 가족이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도를 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정유년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고자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사회 환경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

〈2017.11.1. 아산교육지원청 3층〉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첫날인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미래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 분야에 그 핵심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다루어질 내용처럼, 진로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미래의 사회 환경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을 슬기롭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지혜롭게 대비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자리가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자리가 자주 펼쳐져, 우리 도와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정유년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자

〈2017.11.1.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입동을 앞두고 있는 만추의 시기에,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제2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는 에너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소비를 위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내포신도시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수소에너지에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새로운 미래 에너지사회를 다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두 달 남았습니다. 하고자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의 지방정부 주도적 우호증진 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고민 중요

〈2017.11.2.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제3회 환황해 포럼」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백제유적을 품고 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 중 · 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오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면서 국가 간 군사 ·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 · 기술 · 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간다면, 동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해진 노동인권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 그 개선방안을 모색

〈2017.11.22.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인 오늘,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종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와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발제자이신,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공정희] 충남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사례발표를 해주실,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님, [이승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님과 다섯 분의 토론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4년에 발족한 이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률상담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는 등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센터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처해진 노동인권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제도개선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자리가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계기가 자주 펼쳐져, 우리 청소년과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2017년 올해도, 사십 여일 남았습니다.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과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

〈2017.12.8. 도 문예회관 107호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대설'이 하루 지나며 몸은 비록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시기가 본격 시작되었음이 느껴지는 오늘, 「문화, 그리고 다양성으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서, 그리고 다문화가정 감성연구모임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홍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와 다문화센터,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이제 '다문화 가정'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이웃을 넘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충남도민 그 자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16년 말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보아도, 우리 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로 외국인주민 비율(4.5%)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문화 가족 수'도 5만 여명으로, 도민의 2.3%를 구성해주고 계시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가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자리가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계기가 자주 펼쳐져, 다문화가정과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2017년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권의 해양수산에 대한 공동상생 발전 방향을 착실히 정립해 나가자

〈2017.12.1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인류가 보존해야할 유산인 동시에,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또한 바다는 지구상 전체 생물의 80%가 살아가는, 전 세계 교역량의 90%가 넘게 운송되는 광활한 실크로드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무게중심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중국과 인접하고 있으며, 세계가 자랑하는 갯벌 등을 보유한 우리 서해안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서해안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도가 연안환경에 대한 상생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이 자주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며,

우리 도를 비롯한 서해안권의 해양수산에 대한 공동상생 발전방향을 착실히 정립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도의장으로서, 서해안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문화’의 확산과 함께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

〈2017.12.14.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하얀 눈과 함께 깊어가는 겨울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 인권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과 [우주형]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달 말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정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도, ‘우리의 희망인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도 이러한 우리 도의회의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정책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제도개선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계기가 자주 펼쳐져, '인권 문화'의 확산과 함께 우리 도의 밝은 미래를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시작하였던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꼭 필요

〈2017.12.26. 도의회 브리핑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7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며, 우리 도의회가 걸어왔던 활동 사항과 앞으로의 각오를 22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 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우리 도가 서해안의 중심지를 꿈꾸며 혼신의 노력으로 더 큰 도약을 일구어낸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은 민선7기와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되돌아보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8회 119일간의 회기를 통해, '184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58건을 포함해 총 113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81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57건 등 총358건에 달하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71건의 '5분 발언'과 130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위'의 활발한 활동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일본에서 개최한 '제8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북아 각국의 문화와 관광의 교류를 높여가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총 16회에 걸쳐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6개의 연구모임에서 총 24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가졌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여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 39개교 1,536명의 학생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본회의 개방을 통해 약 천 여명의 도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2017년도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도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14년 출범과 함께, 도민과 소통하는「공감 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실천 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창조 의정」을 의정비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의정비전을 바탕으로 220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제10대 도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올 해, 활발하게 펼쳤던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입법정책기능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더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특위 활동을 항상 지켜봐주시고 힘찬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된 지 27년이 되는 내년에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이 반드시 제도화되어 지방분권화의 기초가 내실 있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들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제도 허용' 등을 조속히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직을 수행하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각 당 대표 등에게 상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건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대학으로 발돋움

〈2018.1.19. 충남도립대학교 도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무술년 새해에, 「충남도립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역사에 길이 남기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게 되는「개교 20년사 도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교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는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아탑인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 1998년에 개교한 이래, 20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학에서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공직자를 700명 이상 배출하며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대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지속되어, 도민 모두가 자랑하는 명문대학으로서 그 명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본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도립대학교의 개교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이번 도록이 단순한 기록물에 머물지 않고, 본교의 새로운 출발과 무궁한 발전을 다짐하는 자료로서 도민께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담당공무원 역할 중요, 자부심 가지고 전력 다해주길

〈2018.2.22. 아산 온양관광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도를 비롯해 이웃인 대전시와 세종시 입법담당공무원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그리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들어 다양한 주민 욕구와 급속도로 복잡해지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보좌인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보좌관제의 조속한 도입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의회 기능의 꽃은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입법기능'과 '정책분석' 능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때에 가능해집니다.

광범위한 예산을 지방의원들이 효율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며 끈끈한 인연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 7월이면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니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연찬회가 전문지식 습득을 넘어서 함께하신 입법담당공무원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격 제고와 국위 선양,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축제의 장

〈2018.2.23. 계룡시 보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오늘,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방안과 계룡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원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와 국위 선양,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또한, 계룡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지역 국방자원의 대내외 홍보로 관광상품 육성의 계기가 마련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행사로 승인된 중요한 국가행사로서 충남도와 계룡시가 단독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행사이며, 국방부 및 3군 본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엑스포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방 · 군사문화 중심 도시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견들이 오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정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 마련 필요

〈2018.2.28.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희망찬 봄기운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오늘,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장기승]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면 폭력서클이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무 죄의식 없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개선하려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이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견들이 오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정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강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2018.3.2. 당진시 우강면사무소 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오늘, '우강면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명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강면은 교황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당진의 대표적인 휴식과 힐링의 명소입니다. 또한 당진 최대 곡창지인 '소들평야'가 있어 '해나루 쌀'을 전국적으로 이름 높인 주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노후화된 생활환경과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타지역 우수사례, 농산물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우강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강면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편, 지역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정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방안 마련 필요

〈2018.3.5.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소공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생명의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오늘,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연구모임 대표 [김문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 의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과 여성농업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구는 나날이 감소되어 가고 농산물 개방 확대로 여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소중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 체험교육 및 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6차 산업 시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그 처우와 복지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실태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창립식 및 제1

차 회의에 이어 오늘의 연구모임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촌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연구모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Ⅱ 도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Ⅱ

도민과 함께

Ⅱ-1 2016년도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고품질 산림 서비스 제공과 부가가치 창출

〈2016.7.5. 공주 주미산 자연휴양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며, 「주미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소중한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시덕]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도와 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은 현대인들의 휴식처임은 물론, 동식물의 보고이며, 나아가 지구 온난화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처럼, 푸른 산림은 경제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림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림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들게 고품질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 가족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림'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도의회 또한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미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의 개장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 시대 우리 바다는 충남 발전의 동력

〈2016.7.5.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내〉

수산업경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어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충남의 수산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제7회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조호행]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님과 [최영묵] 태안군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 서해안 시대에 우리의 바다는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록 FTA 확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의회, 어업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이 충남의 수산업에 있어서는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제7회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가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시키자

〈2016.7.5. 건양대학교 콘서트홀〉

충남 여성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제32회 충청남도여성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충남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고해 오신, [김화중]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황명선]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성격차 지수'는 145개국 중 100위권 밖이며, '성별임금격차'는 36%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오늘의 주제처럼, '남녀가 함께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제32회 충청남도여성대회」를 축하드리며, '충남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2016.7.8. 공주 정안농협〉

존경하는 [이경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 [조길행] 도의원님, [오영환] 공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안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안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전담의용소방대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정연희] 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과 대원들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대규] 대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쁜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조직이 바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에 전념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충남도의회 또한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안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망이 두터운 조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2016.7.8. 두리웨딩홀〉

존경하는 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과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주웅주로타리클럽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회원의 화합과 결속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이은찬] 회장님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이태하] 신임회장님께도 축하와 함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웅주로타리클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조직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봉사에 솔선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공주가 따뜻한 지역사회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충남도의회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취임하시는 [이태하] 회장님을 중심으로 「공주웅주로타리클럽」이 무궁한 발전을 이뤄 나기기를 기원하면서, 회원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권은 물론 세종·대전을 아우르는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자리매김하길

〈2016.7.8. 세종유로아울렛〉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무르익는 여름이 느껴지는 오늘, 「세종유로아울렛 기공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기업을 발전시키고 오늘의 뜻깊은 기공식 자리를 마련하신, [김정식] 주식회사 새빛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정진석] 국회의원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국제적인 경기불황 등 내외적인 위험요인이 겹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삽을 뜨는「세종유로아울렛」이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권은 물론 세종 · 대전을 아우르는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세종유로아울렛」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종합금융기관으로 힘찬 도약하길

〈2016.7.9. 합동새마을금고 신관지점〉

존경하는 새마을금고 가족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합동새마을금고 신관지점」이 개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합동새마을금고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최철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동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설립 38주년을 맞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서민종합금융기관으로 우뚝서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개점하는 신관지점도 앞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개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합동새마을금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웃과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

〈2016.7.9. 경복궁웨딩홀〉

존경하는 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과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주로타리클럽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회원의 화합과 결속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최현수] 회장님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조원상] 신임회장님께도 축하와 함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로타리클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조직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봉사에 솔선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공주가 따뜻한 지역사회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충남도의회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취임하시는 [조원상] 회장님을 중심으로 「공주로타리클럽」이 무궁한 발전을 이뤄 나기기를 기원하면서, 회원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존재

〈2016.7.9. 신세계백화점 충청점(문화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오늘, 도내 청소년 여러분이 함께 하는 「200송이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평소 충남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고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장기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 충남의 빛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며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존재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도 청소년들이 피동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엄연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이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존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제안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값진 노력들을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진흥원의 관계자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충남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200송이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청소년 여러분께서 꿈꾸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모니 도민들에게 선사 기대

〈2016.7.9. 서산시 문화회관 대강당〉

음악을 사랑하는 충남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2회 충남합창경연대회」가 서해안권 중심도시 서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신 15개 시 · 군 합창단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중한 대회를 준비하신 한상복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音樂)이 있는 곳에는 악(惡)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동을 전해주면서 사랑에 빠지게도 하고, 마음속의 상처와 악한 감정을 치유해주기도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창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연출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선율 속에 천사들이 춤추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과 노력이 미약할지 몰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사회가 아름답게 변화해 간다는 것을 오늘의 합창대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는 활기찬 시기에 펼쳐지는 이번 대회도 멋진 하모니를 도민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참가하신 각 시 · 군의 합창단원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을 뽐내시길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

〈2016.7.13. 예산군 문예회관 대공연장〉

연극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오늘,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충청남도 예선 대회」가 충절의 고장인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연극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승원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함께 연습해 온 학생 여러분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담당 선생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3일간 7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하게 될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멋진 공연들이 펼쳐져, 지역 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연극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듯이, 한 편 한 편의 연극은 독창적이고 유일하다는 매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연극만의 매력을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 연극인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의회도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계층과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2016.7.13.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오늘,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복지시설인 「나눔숲」이 완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이권일] 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경] 마곡사 주지스님, [조길행] 도의원님, [윤홍중] 공주시의회 의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맞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과 재정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진정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평소 지역민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애써주시고, 소외계층과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 우리 충남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복지시설 나눔숲 완공'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해야

〈2016.7.13. 백제체육관〉

공주 여성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21회 공주시 여성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주지역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고해 오신, [김성순]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공주시 기관 ·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성격차 지수'는 145개국 중 100위권 밖이며, '성별임금격차'는 36%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대회의 주제처럼,'남녀가 함께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제12회 공주시 여성대회」개최를 축하드리며,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길

〈2016.7.14. 롯데부여리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2016년도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인 이곳 부여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道를 찾아주신 전국의 교육장님들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를 훌륭히 이끌고 계시며 이번 총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완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용우] 부여군수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며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신문화의 약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 교육'이라는 이번 연수의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총회 및 연수가 교육장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국교육장협의회'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멋스러운 백제문화유산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기쁨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 갖길

〈2016.7.15. 공주 신풍농협〉

존경하는 [이경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 [조길행] 도의원님, [오영환] 공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신풍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풍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의용소방대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이장순] 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차완규] 대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쁜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조직이 바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의'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에 전념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충남도의회 또한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풍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 밤 더위에 지친 시민들께 감동의 무대를 선사

〈2016.7.16. 금강신관공원 야외무대〉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정의 계절이며 젊음의 계절인 이 여름에, 『제21회 고마나루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중한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신, [서경오] 웅진문화회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윤홍중] 시의회 의장님, [조길행] 도의원님과 [오태근] 충남예총회장님, [신현보] 공주예총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나마루축제는 매년 여름이면 공주시민들의 즐거운 여름밤 축제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이제는 음악, 무용, 국악, 연예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져, 한여름 밤 더위에 지친 시민들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사해주시는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고나마루축제'가 공주시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축제로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4주간 열리는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힘 필요

〈2016.7.19.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령왕릉을 비롯한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님을 비롯한 시민협의회원 분들이 22년 전, 처음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계룡산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고 그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계룡산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협의회원으로서, 그리고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세계유산등재에 힘을 불어넣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

〈2016.7.23. 아산시 경찰교육원〉

활기찬 여름의 기운과 함께 자율방범대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지는 오늘, 「2016년도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임원 및 대원 워크숍」이 아산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유태곤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과 학교폭력 계도활동은 물론, 재해예방과 복구에 앞장서 주셨고, 거리질서 유지와 각종 행사시 안전 지원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 주시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율방범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워크숍은 자율방범대의 역량을 강화하며 대원 여러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

〈2016.7.24.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도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삼복더위보다 더욱 뜨거운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지는 오늘, 『제23회 공주시장기타기 배드민턴대회』가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 속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

'엘리트체육' 위주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생활체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배드민턴은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며 경기를 하는 동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간의 정을 돈독하게 채워가는 매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배드민턴의 꾸준한 발전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소 갈고 닦으신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면서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우리나라가 절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산업

〈2016.7.25.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와 충남도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 농업인이 하나되는 축제인, 「2016년 공주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나라가 절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는 '식량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농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만, 결코 자본주의와 시장논리만으로 농업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과 더불어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뜻깊은 행사가 농업경영인 여러분께서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나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2016.8.1. 보령시 문예회관〉

서예인 여러분, 반갑습니다.「제24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 공모전」이 산자수명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하여 '만세지보령(萬世之保寧)'으로 불리는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예인 여러분!

서예는 먹의 농담에 따라 점과 획이 빚어내는 절제와 조화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예술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면면이 담아 온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며,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충남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작품 활동에 전념해 온 수작들을 모아 지역민들에게 서예 예술의 진수를 선보여 주시는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호평 속에 성황리에 공모전이 펼쳐지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는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회원들께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쓴 글귀를 가슴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작품에는 시간과 돈에 쫓겨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무언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빼어난 글씨에 매료되고 귀중한 말씀에 다시 한 번 감동을 얻는 성찰과 교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예 가족 여러분의 부단한 정진과「한국서가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

〈2016.8.3. 충남도청 문예회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충남 유족연합회」정석희 회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전쟁 제66주기를 맞아, 「제1회 충남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3만여 명의 선량한 희생자 원혼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품고서 한평생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6 · 25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4만 명, 우리 충남에서도 3만여 명의 가족과 이웃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으나, 아직도 땅 속에 묻혀있는 유해가 많은 채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반세기만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해를 발굴하며 응어리져 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지속적인 6 · 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 안장과 추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지난해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설립하는 등 유족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2016.8.12.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시기에, 「2016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인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작품들을 출품하시고 수상의 영예를 안으시는 미술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도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작품 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수준 높은 수작들을 예쁜 꽃다발로 엮어 도민들에게 선사하시는 작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힘찬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열정적인 노력을 지속하면서 오늘과 같은 작품전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주시길 바라며,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미술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남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작가님들의 돈독한 우애를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이미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가치

〈2016.8.17.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말복도 지나며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2016년 전진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시고 이번 대회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전량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친환경농업인 가족 여러분! 농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생,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농업전반에 튼튼히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미래 생명산업의 핵심'키'를 쥐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먹거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이미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친환경유기농의 모범 충남!'이라는 오늘 전진대회의 기조처럼 앞으로도 국내외의 모범이 되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전진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친환경 농업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직원 역할 중요

〈2016.8.17.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

보육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2016년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보육교직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먹고 크는 어린이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며, 장차 이 나라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참된 마음과 값진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 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한마음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2016.8.21. 백제체육관〉

자율방범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를 앞둔 오늘, 「제17회 공주시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가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변종길]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과 학교폭력 계도활동은 물론, 재해예방과 복구에 앞장서 주셨고, 거리질서 유지와 각종 행사시 안전 지원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 주시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자율방범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체육대회는 대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언제나 힘내 주시길

〈2016.8.24.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이자 가을이 다가오는 절기인 '처서'를 지나는 시기에, 「2016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산에 빛나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 농업의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에 힘써 주시고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박종숙]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바쁘고 힘든 농사일에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임해주시고,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 나라의 어머니시며, 우리 농업의 주인이십니다.

농업인구는 나날이 감소되어 가고 농산물 개방 확대로 여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소중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 체험교육 및 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6차 산업 시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남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언제나 힘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희망농촌 함께하는 여성농업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서로 간의 끈끈한 마음과 결속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남 농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성농업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욕구와 변화되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 부탁

〈2016.8.26. 계룡 시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많은 도민들께서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폐사 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제6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용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이통장님 여러분!

'이통장제도'는 고려 말부터 기원된 것으로 보며, 1675년 조선시대 숙종 원년에 법적 조직으로 제도화된 역사 깊은 행정제도입니다.

이통장님 여러분은 정부와 주민의 접합점에서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의 대소사에 앞장서시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항상 주민들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 의정이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도 이통장님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민이 뽑아주신 진정한 마을의 리더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변화되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한마음 체육대회는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예술’, ‘찰나의 예술’

〈2016.8.27. 서산시 문화회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46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이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내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이번 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차열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님과 사진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공정한 심사로 권위를 드높여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충청남도 사진대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사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커지면서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대회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 ‘찰나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진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사진기를 다루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작가의 열정과 숨결,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 전달하려는 철학이 훌륭해야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전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혼이 담긴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누리신 작가 여러분께 축하를 보내드리면서, 사진예술이 있기에 우리 충남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작품들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제46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

〈2016.8.29. 백제체육관〉

적십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1회 공주시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적십자 가족 여러분!

'적십자'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인류에게 사랑과 존엄이라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89개국, 1억 명의 봉사원들이 차별이나 조건 없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 곳곳에 희망을 심어주고,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성어린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지역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적십자 봉사회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큰 사랑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한마음대회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쌀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알리는 뜻깊은 계기

〈2016.8.30. 덕산온천관광단지 특설무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제5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이곳 예산군 덕산 일원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에 힘써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광섭]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님, [서정배] 수석부회장님, [이은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밑뿌리는 바로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산업'입니다.

현재, 쌀 개방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이 지속되는 한, 쌀 산업은 대한민국 중추 산업으로서의 힘과 위상을 결코 잃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쌀전업농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며, 쌀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쌀전업농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5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개최를 축하드리며, 온천과 윤봉길기념관 등으로 유명한 이곳 덕산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탄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자리

〈2016.9.3. 탄천중학교 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제13회 탄천면민화합체육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활기찬 주민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신, [김계영] 탄천면장님과 탄천면 체육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출향인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탄천면민화합체육대회」는 4천여 탄천면민의 가장 큰 지역축제이면서 면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흥겨운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활기찬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탄천면민 여러분!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합하되 서로 같지 아니하고, 소인은 서로 같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탄천면민들께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탄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결같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탄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께서 뜻하는 바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그러한 성취들이 모아져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탄천면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13회 탄천면민화합체육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기간, 가족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첨단 장비 활용, 도민 가까이에서 쾌적한 충남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기대

〈2016.9.7.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오늘은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인 백로(白露)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며, 내포신도시에 이렇게 멋지게 신청사를 준공하고, 오늘,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청사를 개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로 유공자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환경이 곧 보건'이라는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물, 공기, 먹거리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한 맞춤형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데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내포신도시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구비되는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며 도민 가까이에서 쾌적한 충남을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일터를 옮기면서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불편을 감수하게 될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 할 의욕을 높여주는 데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인류의 건전한 삶터로 가꾸자는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에'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을 선포하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기 위한'웰빙 충남'의 실천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숙명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며 충남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신청사 개원식을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수요 급증,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역할 더욱 중요

〈2016.9.7. 공주 고마센터〉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며 풀잎에'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白露)인 오늘「제17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산에 빛나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박윤근]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였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고 그 노고를 인정받는 풍토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제17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기회 높여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자

〈2016.9.9.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풍성한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제4회 충남 평생학습 온통박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소통을 위해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시군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여러분,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 가족 여러분! 평생학습은 배움과 나눔,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 주고,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며, 나눔을 통해 온정을 더해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온통박람회」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이 개인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배움공동체, 나눔공동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도내 평생교육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높여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평생학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이웃과 함께 훈훈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자

〈2016.9.10. 공산성 쌍수정 주무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낭만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이곳 공산성을 비롯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유산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걷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공산성을 비롯한 찬란했던 백제유산을 남겨주신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금서루와 공산정, 쌍수정 등을 함께 걷고 담소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함은 물론 시원한 가을정취를 함께 느끼는 오늘의 행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백제유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백제의 후손, 자랑스러운 공주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전세계인이 이곳 공주를 찾아와 감동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이웃과 함께 훈훈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숨결을 폭에 담는 소중한 시간

〈2016.9.10. 공산성 쌍수정 주무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상쾌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이곳 공산성을 비롯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유산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공주를 찾아주신 전국의 어린이 여러분께 반갑다는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두영] 한국미술협회 공주시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공산성을 비롯하여 찬란했던 백제유산을 남겨주신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금서루와 공산정, 쌍수정 등의 멋진 옛 궁터를 화폭에 담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대회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백제유산을 느끼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백제의 후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전세계인이 이곳 공주를 찾아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하루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도 깨달아야 할 진정한 평화의 정신

〈2016.9.10. 천안 독립기념관 강당〉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14회 유관순애국청소년 전국웅변대회」가 유관순열사의 얼이 살아있는 이곳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차디찬 형무소에서 총대로 등을 맞아 등뼈가 튀어나오고, 칼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피와 고름이 흐르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라는 애국정신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전국 각지로 독립만세운동이 펴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셨고,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을 때에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과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세의 우리들이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각국에서도 깨달아야 할 진정한 평화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의 세계화에 노력하시는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유관순열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청소년 여러분께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뜻깊은 웅변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며 후회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

〈2016.9.12.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오늘,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당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전대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든 말(馬)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몽골의 속담이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주시 노인회를 이끌어 주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언제나 어르신들의 마음을 느끼며 노인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마련된 한마당 축제의 자리를 축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사랑하는 가족 · 친지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의 가교적 역할 수행

〈2016.9.20.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제7회 공주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면서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남창희]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이통장님 여러분! '이통장제도'는 1675년 조선시대 숙종 원년에 법적 조직으로 제도화된 역사깊은 행정제도입니다.

정부와 주민의 접합점에서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의 대소사에 앞장서시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항상 주민들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 의정이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도 이통장님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민이 뽑아주신 진정한 마을의 리더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변화되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효(孝)문화를 되살리자

〈2016.9.22.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오늘, 「제9회 충남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온갖 역경을 꿋꿋이 견뎌낸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국가입니다.하지만, 고도의 경제성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복지기반들로 인해 인생의 황혼기를 힘겹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잘사는 이와 어려운 이, 그리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효(孝)문화를 되살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에 앞장서 주고 계신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의 날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모두가 즐겁게 화합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악의 세계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

〈2016.9.22.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낭만의 계절을 가을을 맞으며, 제62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하는 부여군충남국악단의 특별기획공연「백강의 노래」가 펼쳐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여군충남국악단은 1994년에 도립예술단으로 창단되어 그동안 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충남이 자랑하고 있는 국악단입니다. 그동안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충남 예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악은 우리 조상들의 우아한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왔고, 때로는 서민들이 고된 생활 속에서 흥과 여유를 찾으려는 행동 속에서 태어난 민족예술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일제침략 등 우리나라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왔음에도 항상 국악을 사랑하며 우리의 것을 소중히 지켜낸 선조들이 계셨고, 현세를 살아가는 국악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제는 국악이 전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악의 세계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특별기획공연「백강의 노래」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국악과 뮤지컬의 만남을 새롭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예술인구 저변확대에 힘써주길

〈2016.9.22.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전국의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제33차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가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최첨단 산업도시이자 온양온천 등이 유명한 이곳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충남을 찾아하신 전국의 예술인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예총은 1961년도부터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음악 등 10개 회원협회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에 137개 연합회를 둔 한국예술문화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을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해 오신 예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국대표자대회는 우리 충남도가 15년 만에 혼신의 힘을 다해 개최하는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예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긍지가 더욱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충청남도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33차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문화체전 승화시키는 데 기여

〈2016.9.23.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원〉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제9회 충남예술제」가 최첨단산업으로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도시인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본 예술제는 우리도만의 특색있는 공연예술과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충남문화예술의 부흥에 앞장서 오신 예술인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우리도가 15년 만에 혼신의 힘을 다해 개최하는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9회 충남예술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

〈2016.9.23. 계룡시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조치연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2016년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대한민국 국방의 요충지인 계룡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박종호] 삼성 SDI 천안사업장장님, 그리고 [최홍묵] 계룡시장님을 비롯한 계룡시민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참여하신 15개 시 · 군 선수단 여러분과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신 시 · 군 교육장님, 학교장님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체육은 건강증진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협력과 소통 그리고 교감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기에 인간의 고귀한 정신문화를 일깨우게 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는 도내 장애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사회성을 적극 함양하고, 신체적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아님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며 충남 장애인체육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학생선수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여러분들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찬 모습들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 서 주시길

〈2016.9.23. 청양군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의 기운이 한껏 느껴지는 오늘, 「제8회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통일선봉대 발대식」이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이며 칠갑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 청양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수호 지도자 여러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 · 미 · 일 3국은 외교장관 대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위협이라는 맹목적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보에는 너와 나도 여 · 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합쳐 나갈 때에 북한과 주변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 서서,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민간 통일운동의 역군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선봉대로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데에 앞장 서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도내 자유수호 지도자 여러분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런 우리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시켜야

〈2016.9.23.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자랑스러운 서각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자나 회화를 목재나 석재 등에 기록하여 길이 전해 내려오는 '서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 종합예술로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그리고 고궁이나 사찰의 현판 등 훌륭한 서각 작품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각예술의 작품들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면 소재 및 내용, 구성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사상과 글귀가 있고, 독특한 서체와 그림도 있으며 그것들이 입체감 있는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우리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하시는 서각예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성을 이어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13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본 대제전이 도내 서각예술의 확산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연문화의 정수

〈2016.9.25. 금강신관공원〉

공주시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제62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백제의 사대왕과 충신열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장졸들의 영가를 천도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영산대제」를 봉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선양하고 우수한 불교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해주시며, 이번 영산대재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마곡사 주지 [취성원경스님]과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 그리고 공주불자연합회 [김익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산대재는 살아있는 사람이 영가와 함께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닫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나길 기원하는 한마당으로 불교 공연문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산대재도 세계인들이 그 깊이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을 행하는 마음이 전파되어, 공주시의 더 큰 화합과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6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도량이 되어 모두가 성불하시고 불사 회향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가 자랑하는 밤의 명성 지속해 나가야

〈2016.9.26. 금성동 체육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길고 무더운 날들을 이겨 낸 밤송이들이 멋진 속살을 드러내는 이 가을에, 『제13회 공주알밤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중한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김보영] 공주알밤축제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업인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산림은 지난'70년대에 시작된'치산녹화 사업'에 힘입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울창한 숲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심어졌던 나무들이 녹화위주의 수종들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선도적인 임업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제는 밤 재배 등이 활성화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임업인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땀방울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주가 자랑하는 밤의 명성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마다 백제문화제와 함께 열리게 되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공주알밤축제가,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며 발전을 거듭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공주 밤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인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2016.9.26. 공주문화예술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한해 동안 뿌리고 가꾼 보람을 거두어들이는 이 좋은 가을에, 「공주문화예술촌」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오시덕] 공주시장님, [신현보] 한국예총 공주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염원하며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옛 소방서를 활용한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아홉 분의 입주 작가 여러분과 멋진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전통 문화예술과 현대의 예술을 접목하며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 속에 충남 문화예술'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공주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지역예술이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개촌식과 입주작가님들의 오픈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210만 도민들 안전

〈2016.9.27. 당진 실내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오늘, 「2016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인 당진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호명]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우리道 소방인력의 약 70%를 차지하는 1만 여 의소대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210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바로 봉사하는 것." 이라고 미국의 석학 '찰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좋은 날 펼쳐지는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보에는 너와 나도 여·야도 따로 없다

〈2016.9.28.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오늘,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필] 민주평통 공주시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이는 곧 통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며,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이라는 맹목적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보에는 너와 나도 여 · 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합쳐 나갈 때에 북한과 주변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 남북이 대치하는 중대한 고비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민주평통 자문 위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아리랑'의 멋 알리는 데에 항상 노력

〈2016.9.28. 금강신관공원 주무대〉

전국의 국악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황금빛 들녘이 아름다운 이 가을에, 『제2회 전국공주아리랑 경창대회』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산을 품고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신 전국의 국악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국악 예술의 발전에 힘써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남은혜] 공주아리랑 보존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악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예술혼이 녹아있는 민족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을 자랑했던 백제의 숨결이 간직된 이곳 공주의 아리랑도 [남은혜] 명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한 차원 높은 국악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공연이 많이 펼쳐져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국악을 접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공주아리랑'의 멋을 풍성하게 알리는 데에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공주아리랑보존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온 국민이 하나로

〈2016.9.28. 반공건국청년운동 순국기념탑〉

존경하는 [송창화] 대한민국건국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르쳐주신 선열들을 다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403위 청년들의 고귀한 영전에 210만 충남 도민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광복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이라는 격랑의 시기를 겪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신, 우리지역 청년 1403위를 추모하는 '순국기념탑'이 건립된 지도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마음 깊이 삭이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우리 모두는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맹목적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북한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금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순국선열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2016.9.29.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황금빛 들녘과 높은 하늘이 아름다운 이 가을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오랜 준비를 마치고 오늘, 뜻깊은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검사소가 문을 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종인]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물, 공기, 먹거리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한 맞춤형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데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며 도민 가까이에서 쾌적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 좋은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내 농수산물의 최대 유통경로인 이곳 도매시장 안에 최첨단 분석 장비를 갖춘 검사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도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힘찬 걸음을 내딛는 농수산물검사소가 210만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약속하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마음을 담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대와 종교 벽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하모니

〈2016.9.30. 부여 무량사 특설무대〉

부여군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황금빛 들녘이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에 『부여 무량사 제4회 힐링 산사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는 데에 항상 노력하시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정성스럽게 마련하신, [제민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량사는 다양한 국보급 보물과 지방문화재를 간직한 소중한 우리의 불교문화유산으로 통일신라 때 범일국사가 창건하여 1,3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데 정진하여 온 천년고찰입니다.

송림이 우거진 천년고찰의 멋스러움과 만수산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힐링 산사음악회』는 신명나는 음성 공양인 동시에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종교 문화 행사입니다.

특히, 세대와 종교의 벽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의 하모니를 선보이며 불교계의 새로운 포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불자 여러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중한 음악회입니다.

앞으로도 산사음악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 정신이 깃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유산을 알리는 데에 다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을 행하는 마음이 온 누리에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음악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도량이 되어 모두가 성불하시고 불사 회향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절대 양보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산업

〈2016.9.30. 예산군 응봉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느껴지는 오늘,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다목적회관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껏 활용했던 '농기자재 유통센터'는 14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여러 불편을 겪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성원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오늘의 멋진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의미가 깊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의 로컬푸드를 관리하고 판매'하며, '회원 여러분의 교육 및 회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장소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식량산업인 농업'은 우리나라가 절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단합'된 모습과 땀방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농업 경영인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준공을 축하드리며,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 담겨

〈2016.10.1. 서산시 호수공원〉

청명한 가을하늘과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에, 「제19회 한국백제서화협회 공모대전」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유적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서화예술인 여러분!

서화예술은 먹의 농담에 따라 점과 획이 빚어내는 절제와 조화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예술이며,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면면이 담아 온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충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자랑했던 백제왕도의 중심지인 우리 공주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본 공모대전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상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작품 활동에 전념해 오시며 지역 서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오시는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본 대전을 통해 백제서화는 물론 공주시의 깊은 멋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전 기간 동안 빼어난 글씨와 그림에 매료되며 감동을 얻게 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한국백제서화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메달리스트

〈2016.10.4.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황금빛 들녘과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에,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 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힘찬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 곳 대강당에 들어서니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1천 8백여 명의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살갗이 타는 듯 무더웠던 여름과 온몸이 에이는 차디찬 겨울에도 한 틈의 쉼 없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정진하여 왔습니다.

2001년 천안에서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우리 안방에서 치르는 이번 대회를, 명예롭고 후회 없이 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모두는, 이미 메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지도교사님들과 부모님들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210만 도민과 함께 고향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충남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47개 종목, 1천 8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 모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적극 활성화하는 힘찬 첫 걸음

〈2016.10.4.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뜻깊은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센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센터를 잘 이끌어주시게 될,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님, [김지훈]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활동가 여러분!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지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돕는 정책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 하며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충남은 작년에 관련 조직('15년 1월)과 조례('15년 10월)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도민들은 없습니다. 이곳 센터가 '충남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힘찬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도의회 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묵묵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가는 시민활동가 여러분께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다시 한 번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기능인 자긍심과 활발하게 활동하길

〈2016.10.6. 온양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벼이삭들이 아름답게 고개를 숙이는 이 가을에, 「제3회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가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인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문화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겨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오늘까지 지켜져 전해오고 있는 귀중한 재산'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는 없고, 모든 것은 늙거나 퇴색되어 결국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날 문화재 복원을 위해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령왕릉이나 정림사지 5층석탑, 미륵사지 석탑과 같은 백제의 유산들도 풍화되어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인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재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활발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뜻깊은 오늘의 작품전시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론볼'

〈2016.10.6. 공주론볼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멋진 낭만의 계절, 가을이 한껏 느껴지는 오늘, 「제4회 무령왕배 전국 론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민족의 영산 계룡산과 백제문화의 숨결을 자랑하는 이곳 공주시를 찾아주신, 각 시·도 론볼 회장님을 비롯한 론볼 가족 여러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득규] 공주시 론볼연합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론볼가족 여러분! 15년만에 충남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내일부터 시작되며, '전국장애인체전'도 21일부터 열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며 펼쳐지는 이번 론볼대회가 참으로 기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아름답고 푸르른 잔디구장에서 함께 볼을 굴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론볼(Lawn bowling)'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가을날,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론볼과 함께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론볼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길

〈2016.10.7. 공주시 임립미술관〉

풍요와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제13회 공주국제미술제」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문화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주국제미술제는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가을에 매 년 개최하며, 충남 미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충남은 고대 백제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유려한 멋을 자랑하는 백제의 미술은 당시 동북아시아 예술의 중심이었으며, 일본 등 주변국에 그 우수성을 전파하였습니다. 고대왕국 백제의 본 고장인 이곳에서 전 세계의 미술인들이 함께 축제의 장을 벌인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이 이해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미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인으로서의 열정적인 노력을 지속하면서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미술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전 세계 미술인 여러분의 그 열정과 우애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악 부흥으로 국악 우수성을 재조명 해야

〈2016.10.7.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대한 개막을 알리는 오늘, 「제15회 충청남도지사기 일반 남녀 농악대회」가 전국체전의 주무대인 이곳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농악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모심기와 논매기와 같은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신명나는 농악으로 고단함을 잊어 왔습니다. 논길을 걷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꽹과리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흥겨운 가락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농악 소리도 이젠 듣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신세대 문화들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잊혀져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악이야말로 수 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가장 한국적인 전통예술입니다. 흥겨웠던 우리의 농악을 다시 부흥시키며 국악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일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책무일 것입니다. 농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이에 앞장서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이러한 공연이 많이 열리며 도민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전국체전과 함께 펼쳐지는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잔잔한 감동을 누려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2016.10.8. 옥룡동 주공1단지 아파트 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오늘, 지역주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날』행사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신,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정운]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나눔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헬렌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서로가 힘이 되어주며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신나는 문화체험 한마당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날 좋은 추억들 쌓아가시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역사, 오늘과 미래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2016.10.8. 공주 신원사 중악단〉

존경하는 [중하] 신원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오늘, '명성황후 왕실 중흥'과 '국운 융창'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곳 신원사 중악단에서, 「명성황후 추모 천도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 도민의 마음을 담아 명성황후와 호국영령을 추모합니다.

1895년 10월 8일(양력)은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비운의 삶을 마감하신 날입니다. 올 해로 112주기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명성황후를 추모하게 됨은, 아픈 역사를 되새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 나아가자는 교훈을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생애가 주는 깨달음을 통해 국민적 갈등이 해소되고, 험난한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천도재가 이토록 아름다운 날에 열반에 오르신 그 분의 고귀한 뜻과 높은 기개를 다함께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신원사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명성황후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장애가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2016.10.10. 부여국민체육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오늘, 「2016년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가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여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힘찬 활동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 친구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립의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회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물어가며, 그 어떠한 상황도 학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직업적 소양을 길러나간다면 훌륭한 직업인으로 성장하여 우리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학생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직업기능경진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뽐내는 명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이라는 희망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

〈2016.10.10. 서산시 문화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평화와 상생을 염원하는「2016년 민족통일충청남도 대회 및 제47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족통일 회원 여러분!

통일은 분명'대박'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역량이 갖추어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올바른 통일관의 확립과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 대북한 민간대표기구로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국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동안 통일문예 작품을 공모 · 시상하고, 새터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일홍보 강연회 및 통일 골든벨 등 각종 국내 · 외 활동을 통해 통일촉진을 위한 계도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노력들이 지속되어 우리민족의 통일 이라는 희망찬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활발한 민간 외교

〈2016.10.10. 리솜스파캐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해외동포 선수단을 환영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신 [안희정] 도지사님, 세계한인체육회장총연합회 [권유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체전을 빛내주시기 위해 먼 걸음을 해주신, 세계한인체육회 [이광복] 일본 선수단장님, [노덕환] 미국 선수단장님을 비롯한 17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이북5도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해외동포 선수단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먼 타지에서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도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활발한 민간 외교를 펼치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동포애를 함께 느끼며, 각국 선수단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자리는 물론, 이번 전국체전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향수를 느끼며 평생 간직하게 될 좋은 추억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후회 없이 체전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세계한인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각 국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정신과 사랑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핵심

〈2016.10.12.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백제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축하하며 개최하는『2016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공주 복지박람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하며,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신, [유만행]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님, [이재완]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유공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헬렌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나눔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없는 봉사정신과 사랑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따뜻한 마음 변치 않으시면서, 공주시와 충남을 잘 보살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지박람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친교를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2016.10.13. 공주시 농업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민방위대 창설 제4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 민방위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 민방위대장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방위대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테러의 위협이 가중되고,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 외 주변 상황이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면서, 평소,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역 내의 여러 재난현장과 재난발생 예방에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사 노력해 주시기에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재삼 감사히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민방위대가 더욱 튼실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영령들과 참전 전우들은 우리 민족의 든든한 기둥

〈2016.10.13. 도 문예회관〉

애국 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오늘, 월남전 참전 52주년과 충남도지부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도약의 발판이었던 월남전을 전우들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흥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청남도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청춘은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로 돌진했던 애국 영령들과 참전 전우들은 우리 민족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이루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6.25 전쟁 시 도움을 받았던 우방국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아 외교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안보결의대회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충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2016.10.13. 금성게이트볼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낭만의 계절에, 「제4회 무령왕배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헌정] 공주시 게이트볼연합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게이트볼 대회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며 펼쳐지게 되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은 잠시 잊고 게이트볼과 함께 공주의 가을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게이트볼 가족 여러분!

오늘날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성을 함양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웃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리며, 공주시 게이트볼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 명문사학 역할

〈2016.10.15. 모교 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올 해로 개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학교는, 1908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며, 일제의 만행에 굴복하지 않고 항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 해방 후에는 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재건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뜻깊은 개관식을 갖는 '영명역사관'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더 크게 웅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이 학교의 명예졸업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를 통해 모처럼 추억에 젖으며 회포를 푸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명중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증진 큰 몫

〈2016.10.15. 금강신관공원 야외상설무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낭만의 계절에, 「제17회 공주시장기 에어로빅스체조 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미화] 공주시 에어로빅스체조 연합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에어로빅스체조'를 발전시켜 나가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변치 않으며, 지역의 생활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경연대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에어로빅스체조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의 기강과 혼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

〈2016.10.16. 신원사 고광암 백왕전〉

존경하는 고왕암 [견진]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가을을 맞아, 오늘, 「제10회 백제 31대왕 추모 문화대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백제의 임금 서른 한분과 의자왕의 아들 풍태자와 융태자를 비롯한 백제 유민들의 넋을 위로하며 추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신원사 고왕암은 여타 사찰과는 달리 백제 임금님들과의 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전통의 백제고찰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서기 660년 의자왕의 명에 따라 '등운 스님'이 고왕암을 창건하셨고, 의자왕의 아들 융 태자가 이곳 고왕암 융피굴에서 피난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백제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온조왕에서 의자왕까지 31대왕을 추모하고, 풍태자와 융태자, 그리고 백제유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 온 애국지사까지 추모하는 문화대제가, 올해로 십 회 째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뿌듯합니다.

백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족이 갈라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올바르고 부강하게 이끌어 나가자는 교훈을 공감하며, 백제의 기강과 혼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고왕암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시길

〈2016.10.17.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이 가을에,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 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힘찬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 곳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6백여 명의 우리도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투지와 열정으로 여러 힘든 여건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15년 만에 우리 안방에서 치르는 이번 대회에 명예롭고 후회 없이 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나가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자이며 메달리스트입니다. 부디 승패를 두려워말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시면서, 충남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지도교사님들과 부모님들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210만 도민과 함께 우리 도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충남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25개 종목, 6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 모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신들은 이 사회에 올바른 길 제시

〈2016.10.18.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오늘,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 경진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충남 노인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님과 각 시 · 군 지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든 말(馬)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몽골의 속담이 있고,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라는 그리스의 속담도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남의 노인회를 이끌어 주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어르신들의 마음을 느끼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기념식을 축하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한마당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년기 여전히 인생의 활동기

〈2016.10.20.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높은 하늘과 깊어가는 가을이 아름다운 오늘, 「제3회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내 15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흥겹게 화합하는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최연임]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님과 복지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유공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100세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인생의 활동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활기차고 보람된 참여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 속담에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축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웃으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늘 웃으시는 일 많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

〈2016.10.20. 공주문화원 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느껴지는 오늘, 「제20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나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박형만]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을 타지에서 땀 흘리며 고생해 오시면서도 고향과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해마다 아름다운 가을이 되면 우리를 찾아 주시어 따뜻함을 전하시는, [박형만] 회장님의 그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이며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나태주] 만희복지사업 운영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금 대상자로 영예롭게 선정되신 사십 분의 수혜자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공주 시민 여러분!

유명한 미국 배우이면서 한평생을 봉사하면서 산, '오드리 헵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것이다. 바로,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각박해져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박형만 회장님과 같은 분들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장님의 그 마음을 가슴깊이 새기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수여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만희복지사업’의 숭고한 정신이 무궁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마당 되길

〈2016.10.22. 당진시 종합운동장〉

깊어가는 가을에, 「제22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및 유소년 축구대회」가 서해안 시대의 교두보인 이곳 당진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마련하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양춘기 충청남도 축구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축구 가족 여러분!

오늘날 축구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건강하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축구발전은 물론 도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축구해설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영표 선수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일상이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변치 않으시면서, 늘 즐기는 자세로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축구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속팀의 명예를 한층 더 빛낼 수 있도록 선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했던 백제 예술혼 우리 곁에 되살아나

〈2016.10.22. 정안면 광정리 금동산미술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아름다운 오늘, 「금동산미술관 전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술 가족 여러분!

우리 공주는, 생동감 있고 유려한 멋으로 동아시아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백제왕국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세계유산의 본고장입니다.

자랑스러운 이곳에서, 예술인 여러분들이 그 열정적인 노력을 지속해주신다면, 찬란했던 백제의 예술혼은 우리 곁에 되살아나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 하면서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날을 수놓고 있는 전람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유영열 화백님을 비롯한 예술인 여러분의 끈끈한 우애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동산미술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에 큰 힘

〈2016.10.25. 공주소방서 대회의실〉

공주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공주소방서 발전위원회 창립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오영환] 공주소방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소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시며 더욱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앞장서시게 될 [조동헌] 공주소방서 발전위원회 추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주역(周易)에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발전위원회'가 참으로 고맙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공주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발전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창립총회 및 기념식의 자리를 축하드리며, 「공주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공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필요

〈2016.10.27. 보령시 정심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낭만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제19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이 세계인이 즐기는 머드축제의 본고장인 이곳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여가문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도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됨은 물론이고 즐겁고 풍요로운 일상을 선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소 신체의 불편함을 이겨내며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립니다.

오늘의 소중한 문화예술마당도 여러분들이 그 끼와 재능을 맘껏 뽐내시며,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민 화합의 향연

〈2016.10.28. 보령종합경기장〉

생활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좋은 가을날에, 「제25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머드축제의 고장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생활체육인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100세 시대인 요즈음, 스트레스는 많고 시간은 부족한 도민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또한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25회 째를 맞는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충남인의 건강 길잡이로서 튼튼한 충남을 만들어 온 일등 공신이었으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민 화합의 향연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해주시는 선수단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인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도내 체육인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두 달 남짓 남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언제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와 의승들의 숭고했던 호국정신 알려야

〈2016.10.29. 계룡산 갑사〉

존경하는 갑사 [화봉]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품에 안고 천 육백여년의 깊은 세월을 간직한 이곳 갑사에서, 「영규대사 및 호국의승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려다 순국하신, 기허당 영규대사님과 800여 호국 의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 싸운 세분의 승장(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중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시고 여생을 마쳤지만, 기허당 영규대사만이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비운의 승장이십니다. 대사 뿐만 아니라 의병 모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서 모두가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규대사와 800승병에 대해 조선의 국가적 조치는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영규대사와 800 의승들의 원혼을 달래고, 이를 계기로 대사와 의승들의 숭고했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힘과 기개를 얻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추모제와 산사음악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날을 수놓으며 그 분들의 고귀한 뜻과 높은 기개를 다함께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갑사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규대사님과 800여 호국 의승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

〈2016.11.3.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제2회 환황해포럼』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자랑스러운 백제유산을 품고 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 · 중 · 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군사 ·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엉키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큰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 · 기술 · 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환황해권의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하며,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길

〈2016.11.3. 태안군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을 사흘 앞 둔 가을의 끝자락에, 「2016년도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악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그 불편함들이 결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과 자기성취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힘을 길러주는 한 때의 어려운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충남의 지체장애인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주요구성원으로 적극적인 활약 해주시길

〈2016.11.4. 도덕노인복지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오늘, 「제35회 의랑골도덕건강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오로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가치가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도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린 어르신들의 고명하신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과 마음을 함께 하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건강축제를 축하드리며, 유익한 건강강좌도 들으시고, 서로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덕노인복지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소중한 '사랑나눔'의 정신

〈2016.11.10.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입동이 지나며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2016년 충남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 충남의 대표도시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복지 가족 여러분! 유명한 미국 배우이면서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간 '오드리 헵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각박해져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끈 연결운동'과 같은 소중한 '사랑나눔'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나눔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분의 활동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어가는 가을날을 아름답게 수놓는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사랑의 끈 연결운동'과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교원 여러분의 역할 중요

〈2016.11.5. 공주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오늘, 「2016년 충남 국공립 유치원교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돌보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영미] 충남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교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먹고 크는 어린이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며, 장차 이 나라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교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마음과 값진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지며 일하실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 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한마음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가족 여러분 언제나 응원

〈2016.11.9. 공주소방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오영환] 공주소방서장님과 [조동헌] 발전위원회 회장님, 공주시의용소방대 [이경수] 연합회장님, [신양순] 여성회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 활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로운 일입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쁜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계신 의로운 분들입니다. 따라서 도민은 물론, 소방가족 여러분들까지 안전해야만 진정으로 안전한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며, 화마와 싸우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을 충남도의회에도 언제나 응원하며 여러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쉰 네 번째로 맞이하는 소방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공주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

〈2016.11.10. 공주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색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오늘,

「제1회 공주알밤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 가족 여러분! 오늘날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성을 함양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남짓 되는 짧은 역사를 지니고는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친목과 우의를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나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며, 깊어가는 공주의 가을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리며, 공주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기대

〈2016.11.11.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통일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2016년 하반기 충남평화통일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이는 곧 통일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며,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노력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롭게 진전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뜻깊은 포럼의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화합하며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 뽐내길

〈2016.11.12. 예산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 한결 매서운 겨울바람이 느껴지는 시기에, 『2016년도 충청남도 축구클럽리그 최강전』이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간직하며 내포신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구는 그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져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축구발전과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즐긴다는 것은 승부를 떠나 선수들과 서로 화합하며 자신이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을 뽐내는, 행복한 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경쟁의 무대를 210만 도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6년도 충청남도 축구클럽리그 최강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수단과 임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충청남도축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향기이자 소중한 자산

〈2016.11.12.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색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오늘, 「2016년도 공주예술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공주예술은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예술 무대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공주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깊은 멋을 알리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은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향기이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공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술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6년도 공주예술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예총 공주시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우리의 깊은 멋을 알리는 계기

〈2016.11.12. 신관동 번영로 공원〉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공주 강북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마음 대축제인「공주가 나르샤」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금년 한해도 극심했던 폭염 등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점들도 있었지만,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등을 통해 공주 시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보람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공주를 찾아주시는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우리의 깊은 멋을 알리는 계기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우리 공주지역을 깊이 사랑하며 그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주의 소중한 향기이자 자산입니다.

특히 공주시강북발전협의회는 공주시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호흡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떨어지는 낙엽들이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낭만의 시기에 펼쳐지는 오늘의 행사가 공주시민과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많은 분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따뜻한 행사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공주시강북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김치가 주는 따뜻함을 나누는 시기

〈2016.11.13. 유구읍사무소 주차장〉

유구읍민과 공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색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 「유구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김장시장 큰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와 함께 김장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담가주시던 김장김치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이웃 간에도 '김장 하셨어요?'라는 얘기로 소식을 묻고 서로의 김치도 나누어 먹는, 날씨는 비록 추워지지만 마음은 따뜻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구지역사회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김장김치가 주는 그 따뜻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유구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점을 앞두며 원활한 출하를 기원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유구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

〈2016.11.14.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함께 겨울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13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공주시에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본 연극제에서는 6일간 여섯 팀이 지역고유의 방언을 사용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멋진 무대를 선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멋진 공연들이 펼쳐져, 향토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연극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듯이, 한 편 한 편의 연극은 독창적이고 유일하다는 매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연극만의 매력을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 연극인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변치 않으시면서 더욱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13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연극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연극 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관·군이 시대 흐름에 변화하는 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야

〈2016.11.15. 나라사랑의 집〉

여러분,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함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오늘, 「제6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재향군인회원 여러분!

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립한 이래로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자랑스러운 애국단체입니다.

친목 · 애국 · 명예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 애국사상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방위를 위해 민 · 관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주지역사회와 시민 모두를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세계와 안보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노력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과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민 · 관 · 군이 합심하여 시대 흐름에 변화하는 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기념식이 재향군인회원 여러분 모두의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림 지도자의 깊은 지혜들을 모아나가야

〈2016.11.16. 부여군 유스호스텔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시기에, 백제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 부여에서, 「2016년 도내 유림지도자 통합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성기문] 충청남도향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당진시의회 의장과 도의원을 역임하시며, 의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림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충 · 효 · 예 교실운영'과 '청소년 인성교육' 등 도덕성 회복운동을 펼치시며 유교를 진흥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번 연수도 '유림지도자의 전통적 가치관을 현대사회에 재확립'하고, '도덕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함께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충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유림 지도자분들의 깊은 지혜들을 모아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통합연수의 자리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충청남도 향교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수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돕는 데 함께 해야

〈2016.11.18.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입동이 지나며 설레는 첫 눈이 기다려지는 겨울 어귀에, 「제7회 충청남도 척수장애인의 날」행사가 충남의 대표도시인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척수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가 많은 척수장애인 여러분은 풍부한 사회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 등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가 이뤄진다면, 척수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성숙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인 여러분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데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숭고한 재활 의지를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

〈2016.11.25. 도 문예회관〉

새마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실천의지를 다지는 「2016년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동규] 도 새마을회장님과 [유재문] 지도자협의회장님, [김옥수] 부녀회장님, [김진수] 문고회장님, [이경용] 직장새마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충남의 모든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개발 또는 정신계발 운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태동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한국 사회에 가장 소망되는 정신 세 가지를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으며, 이젠 유네스코가 인정하며 UN이 적극 권장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2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은 복지, 문화,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더불어 잘살아보자."라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문화운동이 바로 '제2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펼치고 계신 '제2새마을운동'이 더 나은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축하드리며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2016.12.2. 공주시 리버스컨벤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2016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련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바르게살기운동은'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아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운동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주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범적인 활동들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데에 든든한'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

〈2016.12.4.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2016년 무령왕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문화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공주시를 찾아주신, 전국의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의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 '엘리트체육' 위주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생활체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배드민턴은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며 경기를 하는 동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서로간의 정을 돈독하게 채워가는 매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 배드민턴의 확산에 앞장서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평소 갈고 닦으신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머무시는 동안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공주시의 깊은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들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공주시배드민턴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

〈2016.12.5. 홍성문화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명언을 담은 미술작품을 제작하여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도내 전역에 걸쳐 기증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문화예술작품 보급전시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도 물질만능주의와 성장일변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국민정신의 부재'를 해소하고 개개인의 인성이 다시금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며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나눔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예술인 여러분들의 그 고마운 열정과 노력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문화예술작품 보급전시 기념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본 행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문화마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어린 땀과 노력, 양대체전 성공적 마무리

〈2016.12.7. 아산시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 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6년 자원봉사자 대회」가 성웅 이순신의 고장인 아산시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어린 땀과 노력으로,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펼쳐진 양대 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체전기간동안 여러분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자원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처 눈길이 닿지 못한 곳들을 살피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기 위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충청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마당 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2016.12.8. 공주영명중학교 영명학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도의 문화적 자부심을 북돋아 준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박물관이 위치한 터인 '국고개'는 옛날에 '이복'이라는 효자가 어머니 봉양을 위해 국을 얻어 품에 안고 고개를 넘다가 국을 쏟았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공주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2006년도에 설립된 박물관은 멸실될 위기에 처한 역사자료를 3만점 이상 수집하였고, 매년 도민들과 함께하는 벚꽃축제와 인문마당 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도의 현안사업들과도 연계되는 이번 '충청유학, 미래를 청(淸)치다'특별전 또한 시의적절한 전시회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선양하며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특별전의 개최를 축하를 드리며,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역사박물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과 국가의 경제의 버팀목

〈2016.12.12.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는 아쉬움과 내년을 설계하는 설렘이 있는 소중한 시기에,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지역 무역인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수출유공자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러분!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충남의 무역은 2년 연속으로 무역흑자 전국 1위라는 자랑스러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무역역량을 확충하고 해외전시 박람회를 적극 펼치는 등 수출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 주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어가는 세계 경제를 바라보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무역이 앞으로 더욱 새롭고 고된 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세계 경제 강국의 신화를 이끌어 낸 우리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국가의 경제의 버팀목 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업이 잘 돼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시상식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발전 선도와 새로운 역사 창출의 원동력

〈2016.12.16.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자랑스런 공주청년회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 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공주 청년회의소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는 현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백제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고대왕국이 힘차게 부활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 12만선이 붕괴되어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주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지역민의 힘을 모아야 하며, '공주 청년회의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만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 공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오.

저 또한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값진 활동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을 드리며,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회장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공주 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발자취와 새로운 미래 토대 마련 계기

〈2016.12.16.〉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지역 사회복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충남 사회복지 70년사」의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시며 뜻깊은 발간을 마련하신, 박윤근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최석원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와 조선시대의 의창과 상평창 등 과거 각 시대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정책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에 명시되면서부터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의 초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헬렌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도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제나 나눔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시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가 70년의 역사를 맞으며 이를 기록하게 되는 일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의 발자취와 그 발전과정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맞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 사회복지 7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설계 교육’과 ‘재취업 알선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길

〈2016.12.22. 충남 노인회관 3층〉

여러분!반갑습니다. 한해를되돌아보며마무리하는소중한시기에「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힘찬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일군, ‘베이비부머 세대’인 현재의 ‘5~60대’는, 이제 각종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책들이 ‘청년’과 ‘어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노후준비가 미약한 채로 평균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4~50년을 더 힘차게 사셔야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광역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갑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설계 교육’과 ‘재취업 알선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등 5~60대의 예비노년세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센터와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기를

〈2016.12.27. 리솜스파캐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아쉬움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알찬 새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아, 「2016년도 충남체육 한마당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체육 가족 여러분! 올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충남 체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통합된 '충남체육회'가 출범하였고, 15년 만에 우리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담아 참으로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체육발전을 위해 언제나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에 찬 정유년 새 해가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시면서, 희망찬 새 해를 설계하는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시군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

〈2016.12.29. 공주새마을회관〉

새마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펼쳐오신 새마을 운동과 교육활동의 결실들을 맺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개발 또는 정신계발 운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태동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한국 사회에 가장 소망되는 정신 세 가지를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으며, 이젠 유네스코가 인정하며 UN이 적극 권장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2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은 복지, 문화,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더불어 잘살아보자."라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문화운동이 바로 '제2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펼치고 계신 '제2새마을운동'이 더 나은 우리 공주시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자리를 축하드리며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주시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회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 마련한 해

〈2016. 12. 3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2016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탄핵 정국과 장기적 경기침체, AI 확산, 그리고 지속되는 가뭄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된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는 사연들이 도내 곳곳에서 꽃을 피웠으며, 많은 어려움들을 도민들께서는 슬기롭게 헤쳐 나갔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충남의 경제성장, 도로와 철도의 지속적인 확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많이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며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사십 명의 도의원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가 추진한 '3농 혁신 정책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역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고,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회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자 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Ⅱ

도민과 함께

Ⅱ-2 2017년도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도민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한 해

〈2017.1.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찬 2017년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 해 였습니다. 침체된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힘겹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새 해의 시작은 묵은 해의 끝과 맞닿아 있지만, 금년 정유년은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새 해에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40명의 도의원 모두가 열심히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항상 연구해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안전」,「복지」,「교육」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의 폭을 넓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을 헤쳐 나가자

〈2017.1.2.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전일보사' [남상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무대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지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함께 새해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2017년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 해 였습니다. 비록 새 해의 시작은 묵은 해의 끝과 맞닿아 있지만, 금년 정유년은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새 해에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40명의 도의원 모두가 열심히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도민과 소통하며 항상 연구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본격적 으로 펼쳐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안전」,「복지」,「교육」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의 폭을 넓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 만들자

〈2017.1.3. 예산터미널 3층〉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내 여성 리더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남 여성계 신년교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화중] 회장님과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들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해, 2017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셨던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오늘날, 여성으로서의 삶은 가족 안에서의 든든한 울타리는 물론, 당당하게 남성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더욱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여성들이 살고 싶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힘찬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새 해에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40명의 도의원 모두가 열심히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항상 연구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본격적 으로 펼쳐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

〈2017.1.4. 공주문화원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2017년 정유년 새 해를 맞아, 공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뜻깊은 해입니다.공주시와 충청남도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 해였습니다. 비록 새 해의 시작은 묵은 해의 끝과 맞닿아 있지만, 금년 정유년은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공주시민은 언제나 일치단결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슬기로운 면모를 발휘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공주시가 백제의 숨결을 품고 약동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또한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주시민과 충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은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40분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한 봉사 기여

〈2017.1.6. 공주 두리웨딩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 해를 맞으며,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이 대전에서의 6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천년왕도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우리 공주에 새롭게 자리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전을 마무리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희]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걸스카우트 가족 여러분! 1958년 '대한소녀단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걸스카우트 정신은, 여성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충남세종연맹에서도, 새로운 둥지에서 제16대 김정희 연맹장님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개소식을 축하드리면서,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걸스카우트운동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여성 및 청년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만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공주 발전 선도하길

〈2017.1.10. 정안농협 2층 대회의실〉

자랑스러운 정안 청년회원 여러분! 붉은 닭의 해인 희망찬 정유년 새 해를 맞아 「정안 청년회의소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정안 청년회의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을 맞으시는 [이영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분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취임하시는 [정종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는 현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백제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고대왕국이 힘차게 부활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 12만선이 붕괴되어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해를 맞아, 공주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지역민들께서 힘을 모아야 하며, '정안 청년회의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만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 공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오.

저 또한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값진 활동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을 드리며,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회장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정안 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소방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

〈2017.1.23. 계룡면사무소 2층〉

존경하는 [박건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활기찬 정유년 새 해를 맞으며, 「계룡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신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부터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주에 큰 눈이 내리긴 했지만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산불 예방은 물론이고,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화재에 필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화목보일러와 전기장판 등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들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소방대장 이 · 취임식을 거듭 축하드리며, 계룡면 전담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

〈2017.1.24. 리버스컨벤션〉

존경하는 [박건수]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활기찬 정유년 새 해를 맞으며, 「공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의용소방대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정채덕] 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류석만] 대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바로 봉사하는 것." 이라고 미국의 석학 '찰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활동을 항상 응원

〈2017.1.31. 리버스컨벤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2017년 정유년 새 해를 맞아, 공주시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뜻깊은 해입니다.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 해였습니다만, 금년 정유년은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공주시민은 언제나 일치단결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면모를 발휘해 왔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포근히 보듬어 주시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공주시가 더욱 약동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 또한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주시민과 충남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바라시는 모든 소망들을 하나 하나 이뤄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신감 가지길

〈2017.1.31.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대하게 열리는, 「제18회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학생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하신 학부모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자녀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역의 인재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학사모를 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큰 자부심과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더 큰 세상에서 당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정들었던 대학 문을 나서게 됩니다.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지금,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지고 힘차게 이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학위를 받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 되어주길

〈2017.2.10.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영명학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학업에 정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두고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274명(중:99회97명, 고:97회177명)의 졸업생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이기서]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아들, 딸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맞이하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정든 친구들을 떠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생각과 줄기찬 노력에서 얻어지는 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위기상황은, 우리들이 부패와 부조리에 도덕적으로 무뎌진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즉, 이럴 때일수록 태산처럼 의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 신념을 확고히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올 해로 개교 111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영명역사관을 개관하는 등 미래를 향해 더 크게 웅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의 명예졸업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학생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필요

〈2017.2.14. 도청 대회의실〉

우리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제16대 집행부 출범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4대와 제15대 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을 맞는 [이두영]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6대 연합회를 힘차게 열어주실 [박의열] 회장님과 새로운 임원진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현대사회에서도 절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산업분야입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는 '식량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농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만, 결코 자본주의와 시장논리만으로 농업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과 더불어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늘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충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16대 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

〈2017.2.15. 충남통일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통일관 재개관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이는 곧 통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며,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노력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롭게 진전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새롭게 재개관식을 갖는 충남통일관도 남북간의 평화정착 및 화해협력을 준비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참신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통일관을 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통일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충남통일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당찬 삶 살기를

〈2017.2.24.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봄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20회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학생 여러분의 뜻깊은 입학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올곧게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족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고 하였고, 여성 수필가인 '로잘린 카터'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큰 자부심과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당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학생 여러분들이 소중한 보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영광스런 입학을 축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세운 주춧돌

〈2017.3.1.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맞서 항거하였던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민족운동'입니다. 특히, 우리 공주를 비롯한 충남지역의 치열했던 항일운동은 광복 후 6.25전쟁과 국토의 분단 등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주춧돌이 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선열들의 거룩한 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결집하여, 우리 선열들이 흘리셨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함께, 공주기미3.1독립만세운동의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여 백제 왕도를 품은 자랑스러운 공주지역을 힘차게 발전시켜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3.1운동의 참뜻과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

〈2017.3.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활기찬 새봄을 맞아 오늘, 「제3회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허성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리더 여러분!

21세기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예견하였습니다만,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성 중심의 시대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성만이 가진 섬세함과 강인함, 사려 깊음은 각 가정을, 마을을, 나아가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평등은 더하고, 차별은 빼고'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충남 풀뿌리여성 리더 분들의 힘을 확인하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궈온,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며, 문화, 경제, 농업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이 어떻게 지역을 바꾸어 왔는지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좋은 선진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풀뿌리여성 리더 분들을 육성하는 데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0만 도민의 편리한 두 다리

〈2017.3.10. 충남 교통연수원 소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며,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 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조합을 잘 이끌어주시고, 영예로운 이임을 맞으시는, [김해경]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2대 조합을 힘차게 열어주실 [홍선기]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이곳 계룡산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머무시는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백제 왕도의 숨결을 깊이 있게 품고 있는 공주의 멋과 맛을 느끼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여러분!

오늘, 210만 도민의 편리한 두 다리가 되어주시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버스나 기차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한계는 접근과 이용시간의 불편함입니다.

택시는 이를 잘 보완하고 해소하면서, 지역 곳곳의 도민들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점, 도민 모두가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6천여 대의 충남 택시 중, 4천여 대가 개인택시인 만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소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률의 감소 등 어렵고 팍팍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친절한 마음으로 도민들께 봉사하며 소임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과 땀방울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취임식과 정기총회의 자리를 축하드리면서, 「개인택시운송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 우수성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

〈2017.3.18.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새 봄의 싱그럽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에, 난 문화의 보급과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난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2017 한국난대전」이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온 충남도민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는 이미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난 예술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들의 건전한 정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예 산업으로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문화 및 관광,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란인 여러분께서도 충청남도가 발전하는 모습에 언제나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난 문화를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에 충남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난대전」이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진정한 「국제 난 대전」으로 발돋움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향토 연극예술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

〈2017.3.26. 예산군 문예회관〉

연극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제35회 충청남도 연극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해로 서른다섯 번 째 맞는 충남연극제는 지역 연극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연극문화의 확산을 통해 충남의 향토 연극예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일간 8개 시 · 군을 대표하는 극단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게 될 충남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멋진 공연들이 펼쳐져, 지역 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연극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지역 연극은 지역민의 생활모습과 가치관, 그리고 깊은 애향을 표출하는 소중한 향토문화예술의 밑뿌리입니다.

언제나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민들에게 연극을 알리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며,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연극 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에너지의 근원

〈2017.3.27. 도청 본관 1층 로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름다운 새 봄을 맞으며,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이종원]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전 도의원님이신 [김장옥] 온양미술박물관 창의아트체험관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기에 평생 고생만 하셨다.' 우리네 어머니는 농사짓고, 소키우고,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제대로 못 입으시고, 제대로 못 드시면서도 오로지 남편걱정, 자식걱정만 하셨습니다. 지금의 젊은 어머니들도 직장일, 농사일로 매우 바쁜, 워킹여성으로써 1인 3역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다 해도, '어머니'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에너지의 근원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숭고함을 되돌아보는 이번 전시회는 그 의미가 남다른 깊이에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자리들이 자주 마련되어, 바쁘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지만 큰 울림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전시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남문화재단」과 「온양미술박물관 창의아트 체험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리더'

〈2017.3.28. 공주 클래식뷔페 3층〉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새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공주JC 창립 제47주년 및 특우회 창립 제39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영호] 공주청년회의소 회장님과 [이인배] 특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회원여러분! '젊음'을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공주시를 있게 한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인류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JC의 신조는 각박해져가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리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훌륭한 분들을 배출한 조직이 바로 '공주JC와 특우회' 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참 봉사정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JC의 참 정신을 사랑하는 저 또한,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주지역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창립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회원님 간 우정과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는 가운데, '공주JC와 특우회'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요즘입니다.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국가관과 애국심, 우리사회의 큰 힘

〈2017.3.28. 공주경찰서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새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공주경찰서 전 · 의경회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전 · 의경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은, 정부수립보다 앞선 1945년 10월에 창설(군정청에 경무부)되어, 건국의 기초를 다졌고, 한국전쟁의 풍랑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섰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치안과 안보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왔습니다.

2011년 3월, 전국 각지의 83만 전 · 의경 전역자 여러분들로 출범한 '전 · 의경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며, '국가안보단체', '치안협력단체', '사회봉사단체 및 친목단체'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국가관과 애국심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으며,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과 땀방울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공주경찰서 전 · 의경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복지체계 갖춰야

〈2017.3.31.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멋진 시기에, 「제11회 사회복지사의 날 및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산에 빛나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오늘날은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으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전체예산의 3분의 1일 정도가 바로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역할은 나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고 그 노고를 인정받는 풍토가 자리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 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충남사회복지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인구 저변 확대와 관련시설 확충 노력 필요

〈2017.3.31. 천안시 상록CC〉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활기찬 새 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2017년도 충청남도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가 충남의 중심도시인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성 함양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동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며, 봄의 정취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골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과 투혼의 스포츠 정신 자랑스럽다

〈2017.4.5. 덕산 리솜스파캐슬〉

여러분!반갑습니다. 아름다운봄꽃들이피어나는활기찬시기에,「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장애인체육가족 여러분!

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노력해 온, 장애인체육회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장애인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사회가 점점 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라는 높은 벽을 스스로 뛰어넘어 열정과 투혼의 스포츠 정신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장애인 선수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와 용기들은 우리 도민 모두에게 큰 힘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감동의 땀방울들을 온 도민들께서 힘차게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충남장애인체육회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멋과 맛을 널리 알리야

〈2017.4.6. 신관동 둔치공원 야외무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나리와벚꽃이우리를반기는아름답고활기찬시기에,「WBC복지TV」와「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에서 마련한「충청남도 노래자랑」이 백제왕도의 깊은 멋을 간직한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지만, 당연히 '건강'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춤'과 '노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이 웃으시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의 뜻깊은 자리는 우리 충남 지역 곳곳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백제 문화유적 등 충남이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를 꿈꾸는 우리 충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주시와 충남을 언제나 더욱 사랑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멋과 맛을 널리 알리는 데에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WBC복지TV 충청남도 노래자랑」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2017.4.12. 도청 본관 1층 로비〉

사랑하는 불자여러분!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점등 법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먼저, 석가세존의 높으신 자비의 뜻을 전해 주시며 충남 발전에 앞장서 오신, 수덕사 [옹산] 큰 스님과 [정묵] 주지 스님, 마곡사 [원경] 주지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의 주지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안희정] 지사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조한영] 충남도청 불자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웃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가는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하는「연등 점등 법회」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불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 계기되길

〈2017.4.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관 앞〉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알록달록 사랑스런 꽃들이 서로의 향기를 뽐내는 화창한 봄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멋진 새청사에서 뜻깊은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세종시의회는 하나의 광역시의회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를 관할하고 있는 의회로서,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회로서의 대표 역할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새청사 개청을 계기로, 세종시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방향의 중심에는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 이 있습니다. 일련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가 자리잡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충남의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새롭게 거듭난 만큼, 세종과 충남은 튼튼한 하나의 뿌리입니다. 세종과 충남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가자는 힘찬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새청사 개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미래 꿈꾸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2017.4.13.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우리를 반기는 시기에, 「충청남도농아인협회 협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회원 여러분!

불편한 신체장애를 가졌지만, 전세계를 돌며 희망전도사로 활동중인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나중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황무지를 기름진 옥토로 가꿔갑니다. 회원 여러분은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며, 강인한 의지와 희망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힘찬 의지와 노력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풋살’은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스포츠

〈2017.4.15. 공주 시민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봄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13회 공주금강 전국풋살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전국최대규모의 본 풋살대회를 해마다 개최하시는 중도일보의 [최정규] 사장님과 공주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대회에 참가하시는 전국 10개 시 · 도의 120여개 풋살팀의 선수 여러분들게 힘찬 응원과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풋살 가족 여러분!

오늘날 ‘축구’와 ‘풋살’은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밝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풋살’을 향한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공격이 강한 팀은 승리할 수 있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임하시는 모든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승부를 떠나 풋살인 모두가 화합하며 즐기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공주시의 깊은 멋과 맛을 느끼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

〈2017.4.20. 온양관광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시기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2017년 제1차 충남평화통일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급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날, 남북관계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평화통일의 튼실한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뜻깊은 포럼의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키우며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자

〈2017.4.20. 부여 군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인 오늘,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가 백제왕도의 숨결을 간직한 부여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그 불편함들이 결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과 자기성취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충남의 지체장애인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초석, 세계평화의 수호자

〈2017.4.27. 돌산가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록달록 사랑스런 꽃들이 서로의 향기를 뽐내는 아름답고 활기찬 봄을 맞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 제19주년 창립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가 내포를 품고 있는 용봉산 자락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저를 포함한, 32만 베트남참전 용사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십니다.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은 위대한 금자탑으로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엽제 전우 분들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역경에 놓여 있습니다.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난치병과 맞서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참전용사 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애국애족의 호국의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고엽제 회원 및 유족 여러분들의 복리를 증진하며 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을 반성하며 겸손하기를

〈2017.4.29. 신관동 둔치공원 야외무대〉

공주시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활기찬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온 시민이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 전야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일체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진리를 전하시면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해주시는, 제6교구 교구장님이신 [원경] 큰스님과 사암연합회 회장님이신 [중하]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의 골은 깊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전해주시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네 삶을 반성하게 하는 겸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행하는 오늘의 자리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염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애향 불패의 선봉장

〈2017.4.30. 용봉산휴양림운동장〉

재인천 충남도민회 향우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활기찬 봄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 향우 여러분들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인 「2017년도 재인천 충남도민 한마음대축제」가 충남의 새로운 중심인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용봉산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천 향우 여러분!

재인천 충남도민회는 130만 명 재인천 출향인들이 70여 년 전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온 애향 불패의 선봉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남 농특산물 판매, 향우자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불우이웃돕기, 사랑 나눔 캠페인'등 고향 사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셔 주시는 점에 대해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충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출향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화합하는 충남인의 마음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를 꿈꾸는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항상 향우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인천 충남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길

〈2017.5.2. 공주시 문예회관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과 들에 신록이 일기 시작한다는 '입하'를 앞둔 오늘, 「제20회 공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그 불편함들이 결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과 자기성취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충남의 지체장애인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장애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간차원 주도적 역할 기대

〈2017.5.10.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산하에 활기찬 봄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굳게 단결했을 때에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냈고, 분열했을 때에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젠, 핵무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북한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결집시키고 국제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묵묵히 헌신해 온,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이 한 단계씩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민간차원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 다함께 노력

〈2017.5.12. 공주의료원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싱한 초록 잎의 생명을 만끽하는 시기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 이전 신축사업을 마무리하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910년부터, 우리 공주와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 온 공주의료원이, 앞으로 중부권 최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더욱 폭넓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공주의료원 가족 여러분의 힘찬 새 출발을 21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국가 의료재난 및 응급사태 발생 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에 고루 분포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이 대처하기 힘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도 민간병원보다 공공의료서비스에 더욱 초점을 두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4개 지방의료원 모두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익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원의 정체성을 높여가는 데에 다함께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개원식을 축하드리며, 「공주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목과 우의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

〈2017.5.12. 공주시 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오늘, 「충남연합회장기 제25회 게이트볼 및 제4회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친목과 우의를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고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서로가 화합하며 즐기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백제 왕도의 깊은 멋을 간직한 이곳 공주에서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좋은 추억들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리며,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및 청년 운동'

〈2017.5.13. 공주 고마아트센터 야외무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달 5월입니다.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15일)을 앞둔 오늘, 한국걸스카우트 충남 · 세종연맹의 「2017년 제34회 걸스카우트 큰잔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걸스카우트 가족 여러분!

1958년 '대한소녀단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걸스카우트 정신은, 여성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충남 · 세종연맹에서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으며, 금년부터는 공주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고, 제16대 김정희 연맹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걸스카우트운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성 및 청년 운동' 으로 굳건히 자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언제나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한마당의 자리는, 걸스카우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우애를 증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큰 잔치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2017.5.13. 공주시 박찬호야구장〉

전국의 야구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오늘, 「제7회 공주 무령왕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이곳 박찬호 야구장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야구'는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프로야구는 어느 프로종목보다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호인 야구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밝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구'를 향한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건강한 지역사회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공격이 강한 팀은 승리할 수 있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임하시는 모든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승부를 떠나 야구인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백제왕도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공주의 멋과 맛을 즐기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정성어린 마음 전달되는 시간 되길

〈2017.5.13. 공주시 박찬호야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처럼 포근한 5월의 가운데에, 81년 교육의 길을 걸어 온(1936년 개교) 이곳 강경여자중학교에서,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정성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높은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배움이 충만할 수 있고,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과 빈곤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에 열정을 다하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며 선진 충남교육을 이끌어주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제자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 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사회를 만드는 힘

〈2017.5.19. 보령시 종합체육관〉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이면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7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보령시에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아낌없는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가장 못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1,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와 건강문제가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에서, 생활체육은 전 연령대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생활체육에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다면 고령화시대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느끼며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당당한 신사적인 스포츠

〈2017.5.20.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볼링 가족들의 우정과화합을다지는「제24회충청남도지사기시 · 군대항볼링대회」가글로벌해양관광도시인 보령시에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볼링을 비롯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생활체육'활동들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볼링은 타인과의 신체접촉 없이 온전히 자기의 집중력에 의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신사적인 스포츠이면서, 단체대항전 등을 통한 화합과 친목 도모의 효과가 큰 생활체육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우의를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고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각 시 · 군의 명예를 드높이며 모두가 화합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곳 보령시의 무르익어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좋은 추억들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볼링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값진 노후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2017.5.28. 온양온천역 광장〉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사단법인 '좋은이웃' 창립 제13주년 기념 「어르신 효 실천행사」가 이곳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소당 사단법인좋은이웃 중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좋은이웃'은 '봉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나누려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골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대청소' 등을 시작으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각종 재능기부사업' 등을 진행해 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응원 하겠습니다.

자나 깨나 자식걱정 하시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시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오신 자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님을 남들보다 더욱 편안히 잘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늘 부족하기만 한 게 자식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마음먹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강한 정신력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값진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으며, 어르신들께서 더욱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미처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운 고민들은 언제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제도개선 및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한마당 행사가 '효'를 다시금 상기하며, 어르신들이 즐겁게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좋은이웃」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만큼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을 것

〈2017.5.30.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18회 충청남도장애인 합동결혼식」이 백제왕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아름다운 서른 쌍의 신혼부부 여러분께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혼’만큼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도 결혼하는 신랑신부를 ‘천생배필’이라 부르며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의 인연’이라고 하여 ‘현세의 두 사람의 만남은 전생에서부터 맺어왔고, 내세에도 소멸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은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결혼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신성하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시고 이웃과 지역을 밝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장애인가족 여러분께 언제나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성대한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서른 쌍의 신혼부부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에너지로 도민에게 힘이 되어주길

〈2017.6.9. 예산종합운동장 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충절의 고장이면서 이제는 내포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참가선수단 여러분!

'메달의 색깔은 달라도, 흘린 땀의 색깔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승자이며,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장애라는 높은 벽을 스스로 뛰어넘고 열정과 투혼의 스포츠 정신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와 용기들은 도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패를 떠나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하는 힘찬 모습들을 이번 대회에서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210만 도민께서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감동의 순간마다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도민 모두가 즐겁게 화합하는 활기찬 대회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공감과 인식개선 필요

〈2017.6.12. 아산시청 3층 시민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웅 이순신의 고장이며 첨단산업으로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이곳 아산시에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든 말(馬)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 라는 몽골의 속담이 있고,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라는 그리스의 속담도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함께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노인학대 관련 상담 건수가 총 1만 2천 8백여 건에 달했다는 자료가 말해주듯이, 이제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쉬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노인학대의 주 원인이라 여겨지는 '노인일자리문제'와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인권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과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과 신속한 현장대응 등이 뒷받침 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처음으로 열리게 된 이번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평소 철저한 대비 지속해 나가야

〈2017.6.14. 공주시 삼화페인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201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테러와 사회적인 재난, 그리고 자연이 가져다주는 재난 상황들은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단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아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현장의 통합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긴급구조 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이 공조를 돈독히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지휘와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훈련도,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300여명의 단체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의미가 깊은 종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의 위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즐겁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9년간 도민 화합의 향연

〈2017.6.15. 계룡시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른 6월의 가운데에,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대한민국 국방의 수도인 계룡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69년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민 화합의 향연이었으며,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해 온 통로였습니다.

활기찬 경기를 통해 체육인과 장애인, 그리고 도민 모두를 합심하게 하는 뿌리가 되어왔고,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제97회 전국체전을 우리도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계룡의 힘 화합으로! 충남의 꿈 열정으로!"라는 구호아래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도 강인한 기상을 품은 대백제인의 후손인 우리 충남도민에게 굳센 의지를 심어 주고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대회에 참가하신 7천여 참가 선수와 임원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지는 일정 속에서 건강하게 후회 없는 실력을 펼치시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우정을 서로 나누며,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도의 발전을 함께 약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회 준비에 애쓰신 계룡시민 여러분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10만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중심의 축제 붐을 조성 기대

〈2017.6.16. 금산 다락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다짐하면서, 「범도민지원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차게 출범하는 '범도민지원협의회'도 도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을 결집시키고, 관람객 유치를 적극 활성화하며, 입장권의 활발한 예매를 선도하는, 즉, 민간 중심의 축제 붐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뒷받침 될 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엑스포의 성공을 염원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이번 엑스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십 분의 도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엑스포의 성공을 바라며 다양한 활동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렸던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에서도 본 엑스포의 일정과 '세계인삼도시연맹'에 대한 설명을 펼치면서 동북아시아 5개국에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엑스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커져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참된 청춘의 모범 답안을 제시

〈2017.6.17. 세종 호수공원 잔디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제48차 충남세종지구JC회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JC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 JC는 195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청년운동으로 재건하자는 취지로 창립되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깨어있는 청년, 도전하는 젊음, 함께하는 번영'의 산실로 성장하며, 참된 청춘의 모범 답안이 되어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을 보살펴 왔으며,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이렇듯 조국에 대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젊은 열정을 불태우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힘찬 활동들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과 충남은 튼튼한 하나의 뿌리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세종과 충남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충남세종지구JC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키우길

〈2017.6.19. 공주 한옥마을〉

민주평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백제의 깊은 멋을 간직하고 있는 공주시에서'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2017년 제2차 충남평화통일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굳게 단결했을 때에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내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젠, 핵무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북한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시키고 국제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묵묵히 헌신해 온, 민주평통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이 한 단계씩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포럼의 자리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키우며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기관 간 공조 노력 중요

〈2017.6.19.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걱정이 깊어가고는 있지만, 짙어가는 신록이 생기 있게 느껴지는 오늘, 「2017년 충남지역치안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모든 도민께서 더욱 힘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민 모두가 안심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대적 패배감에 젖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언제 어느 때 그 절망이 표출될지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로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과 기관들

간의 공조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을 치안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도내 교통사고 저감 대책' 과 '오토바이 절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더욱 깊이 고민하며, 값진 고견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휘트니스 열정적 활동 기대

〈2017.6.24. 공주대 산학연구관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신록이 아름다운 오늘, 2017년 한국실버휘트니스 중앙연합회장배 「제1회 전국시니어보디빌딩챔피온대회」가 백제왕도의 깊은 멋을 간직한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1,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와 건강문제가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에서, 보디빌딩을 비롯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들은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든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보디빌딩 등 실버 휘트니스 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다면 고령화시대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고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연습했던 실력을 마음껏 펼치시며 모두가 화합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에 머무시는 동안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좋은 추억들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실버휘트니스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산악을 즐기길 기대

〈2017.6.24. 공주대 산학연구관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신록이 아름다운 오늘,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충청남도공주시연맹 회장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악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상황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 증진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산악'을 비롯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들은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친환경적인 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정식종목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힘차게 출범하는 통합 연맹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산악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산악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산악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겨레의 영원한 등불

〈2017.6.26. 마곡사〉

존경하는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과 태화선원 [수좌] 주지스님, 그리고 각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68주기를 맞으며 그 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분의 높은 뜻과 정신을 기리며, 그 넋을 위로하고 추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생은 우리 겨레의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선생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데는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다. 의로써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백성이 여러 패로 갈려서 한 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 편은 저 나라에 붙어서 망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왜의 세력이 궐내까지 침입하여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一死保國)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한 마음으로 뭉쳐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선생의 말씀은, 북한은 물론 강대국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선생의 '애국 애민 정신'을 무궁히 계승 발전시키며 후대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군을 피해 이곳 '백범당'에 은거하시며,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출가 하셨던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추모다례재」와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의 고귀한 뜻과 높은 기개를 다함께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마곡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에 앞장서 주시길

〈2017.6.26. 서산 시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6.25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곳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수호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주변 강대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국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이 맹목적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뜻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 서서, 63년이라는 환갑이 넘는 시간들을 민간 통일운동의 역군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선봉대로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 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뜨거운 활동들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자유총연맹 회원님들과 북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오신 이주민들이 하나 되는, 더욱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자

〈2017.6.27. 서천국민체육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생태관광도시인 서천에서 「제11회 충남 농아인의 날」 행사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황무지를 기름진 옥토로 가꿔갑니다.

우리 농아인 가족 여러분은 강인한 의지와 희망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농아인 여러분께서도 충남도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배려하며 온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힘찬 의지와 노력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기려야

〈2017.6.28.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충청지역민들의 호국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가족 분들의 자립자활 의욕을 높이는, 「제43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 우리민족은 반만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외침을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와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은 6 · 25전쟁 등과 같은 민족의 큰 시련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굳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가족과 부모, 형제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헌신하신 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애국선열을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가슴에 나라사랑과 보훈정신이 충만하면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대일보훈대상」이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하며 보훈 가족 여러분께 큰 힘이 되고,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확산 시키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통장님 여러분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

〈2017.6.30. 서천군 문예의전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2017년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워크숍」이 천혜의 자연환경 도시인 서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이통장님 여러분!

'이통장제도'는 고려 말부터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675년 조선시대 숙종 원년에 법적 조직으로 정착된 역사가 깊은 우리의 행정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주민의 접합점에서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의 대소사에 앞장서시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항상 주민들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 의정이 도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홀로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의 리더로서 이통장님 여러분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워크숍 자리는 소통과 정보교류, 그리고 소양 함양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워크숍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에 솔선하는 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길

〈2017.6.30. 리버스컨벤션웨딩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여름이 성큼 다가온 시기에 오늘,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로타리클럽 회장 이 · 취임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로타리 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조원상] 제39대 회장님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중책을 맡으시며, 로타리클럽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이태훈] 제40대 신임회장님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로타리클럽 가족 여러분! 「국제로타리 클럽」은 20세기 초, 황폐해진 미국사회를 염려한 청년 변호사 ‘폴 해리스’가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작은 모임에서 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숭고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온 자랑스러운 단체입니다. 「공주로타리 클럽」도, 지난 1977년 창립되어 빈곤에 시달리는 불우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년소년 가장 돕기 성금 전달, 그리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긴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이웃과 지역을 위하는 '봉사'에 솔선하는 단체로 굳건히 자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공주가 온정이 가득한 지역사회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며, 「공주로타리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충남 문화예술로 발돋움 시켜야

〈2017.7.4. 공주문화원 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공주문화원장 이 ·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주가 사랑하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문인이시며, 지난 2009년부터 공주문화원을 잘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나태주] 제15대 원장님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주문화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며 지역문화의 창달에 앞장서 주실, [최창석] 제16대 신임원장님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생을 공주와 충남의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며 후학 양성에 헌신해오셨고, 각종 지역문화 활동도 활발히 해오셨으며, 도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향유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자랑스런 전통 문화 예술을 오늘에 맞게 잘 계승 발전시켜서 '세계 속에 충남 문화예술'로 발돋움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54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이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

〈2017.7.5. 천안시청 봉서홀〉

여성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맞이하기를 기원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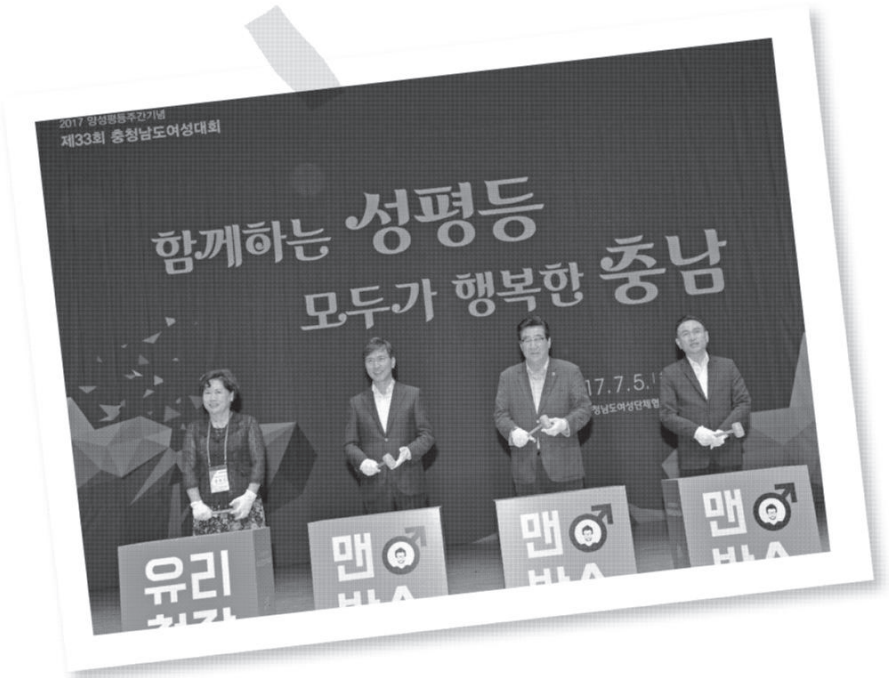
7월 첫째 주인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며, 도내 여성분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33회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충남의 대표 선진도시인 이곳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초점이 여성들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혹자는 남성들의 후퇴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커질수록 남녀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곧 우리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개선시켜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여성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2017.7.6. 보령시종합체육관〉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보령시에서, 도내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혁신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제53주년 충청남도농촌지도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가격하락, 그리고 고령화의 심화 등 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의 존망을 가르게 되는 '식량산업인 농업'은 우리나라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과 땀방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964년에 시작된「충남 농촌지도자회」는,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이를 농업현장에서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 왔으며,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께서는 우리 충남농업의 튼튼한 주춧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바른 보육정책 시행되야

〈2017.7.7. 논산NS웨딩홀〉

어린이집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4절기 중,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인 오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제11대 회장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상수] 회장님께서는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시도연합회 협의회장도 맡게 되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어린이집 가족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크는 어린이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며, 장차 이 나라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사랑이 충만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보육 가족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마음과 값진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보육수요가 급증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좋은 보육시설과 훌륭한 교사,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이상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원장님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밝게 웃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보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적인 하모니를 연출하는 음악 장르

〈2017.7.8. 당진시 문예의전당〉

음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 여름향기 가득한 오늘, 「제43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인 당진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신 15개 시군 합창단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야 말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소리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만큼 감동을 전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악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합창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연출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선율 속에 천사들이 춤추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노력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사회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격적인 여름을 맞으며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펼쳐지며 도민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가하신 각 시군의 합창단원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을 뽐내시며 멋진 경연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들은 도민 모두를 화합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

〈2017.7.8. 공주시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 충남 국공립 유치원교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공주시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돌보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영미] 충남국공립유치원교원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보육 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란, "저마다의 꿈이 간직되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각양각색의 예쁜 꿈 화분을 정성껏 가꾸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소임일 것입니다. 보육 가족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올바른 보육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2017.7.11. 사곡농협 2층〉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 였고, 내일이면 '초복'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사곡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오늘날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쁜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조직이 바로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복이 자손까지 미친다.'는 우리네 정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문화유산도 좋은 문화콘텐츠 뒷받침되어야

〈2017.7.13. 한국문화연수원 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초복'이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체험시설 건립관련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한국문화연수원」이 자리한 이곳은,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우거진 태화산과 마곡천을 사이에 둔 '명당'으로 삼재팔란(三災八難)이 피해간다는 전국 10승지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2005년도에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와가마군'은 다양한 구조형태와 기와편들로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는 노력들이 이렇게 다시금 시작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년 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 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도 좋은 문화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기와문화체험시설'도 면밀하게 잘 진행되어 알찬 콘텐츠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에 본 체험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포럼의 자리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2017.7.16. 서산문화회관〉

국악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짙어가는 녹음이 아름다운 오늘, 「제12회 충청남도 국악제」가 서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악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예술혼이 녹아있는 민족예술의 결정체입니다. 국악은 우리 조상들의 우아한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왔고, 때로는 고된 생활 속에서 흥과 여유를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제침략 등 우리나라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왔음에도 항상 국악을 사랑하며 우리의 것을 소중히 지켜낸 선조들이 계셨고, 현세를 살아가는 국악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제는 국악이 전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한 차원 높은 국악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연이 많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국악을 접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새로운 변화 주도해주길

〈2017.7.18. 한국문화연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충청남도생활개선회 회장단 수련대회」가 이곳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여성농업인 여러분 !

농촌사회에서 여성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 그리고 농사일까지 1인 4역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농업인구가 나날이 감소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가족 여러분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여성농업인이 미래 성장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제 농업은 1,2차 산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은 '농업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보화 기술습득을 위한 IT 교육'에 노력하고 계시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사랑 나눔 활동'도 적극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리더라는 자긍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더욱 매진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농업인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합과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

〈2017.7.19. 예산군 문예회관〉

연극을사랑하는청소년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열정의계절을맞으며,「제21회전국청소년연극제 충청남도 예선 대회」가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년도에도 이틀간 5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충남을 대표하여「제21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하게 될 공연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지역의 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극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듯이, 한 편 한 편의 연극은 독창적이고 유일하다는 매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연극만의 매력을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민에게 알리고 계신 연극인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극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는 관객입니다. 이번 연극제에도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회에 참가하신 연극 가족 여러분이 우정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연극 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용사

〈2017.7.19. 유구그랜드예식장〉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초복’이 있었고, 오는 토요일은 ‘중복’입니다. 비록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지만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유구읍 남성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여러분을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용사라고 부르면 딱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분들이 바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바로 봉사하는 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홍훈기] 신임대장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며, 「공주소방서」와 「유구읍 남성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우리 충남의 빛이며 희망

〈2017.7.19.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정〉

사랑하는 대건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건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제26회 대건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대건인 여러분!

본교의 주보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을 오늘에 실천하고 있는 대건인 여러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대건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축제의 주제는 "대건인이여! 더욱 찬란한 빛을 뽐내어라!"입니다. 이 주제처럼 학생 여러분은, 우리 충남의 빛이며 희망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빛이 밝을 때(젊을 때)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빛이 흐려져도 (늙어서도) 풍성함이 남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며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스물여섯 번 째「대건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2017.7.23. 공주시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중복'이었고 오늘은 '대서'입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쉬운데다가 농가에서는 일이 많아 바쁘고 금방 지치게 되는 때입니다.

부디 활기차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제18회 공주시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촉진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과 학교폭력 계도활동은 물론, 재해예방과 복구에 앞장서 주셨으며, 각종 행사시 안전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 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 주시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자율방범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활성화촉진대회는,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도모하며 대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행사

〈2017.7.26. 도청 대회의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내 청소년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도의 청소년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는 「1,000송이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 충남의 꽃이며, 빛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도 청소년 여러분이 피동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엄연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이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존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제안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작년의 '200송이'에 이어 올 해에는 '1,000송이의 청소년 꽃'이 피게 되어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값진 활동들을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도를 더욱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00송이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청소년 여러분께서 꿈꾸는 모든 일들이 성취와 보람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

〈2017.7.27. 보령시 해양과학고등학교 체육관〉

전국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여름 보령의 백사장 은빛이 아름다운 오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보령지대 발대 26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교통봉사대원 여러분! 지난 1986년 2월,'작은 사랑의 봉사 활동으로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하자'라는 취지로 출발한「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동안 전국 38개 지대의 대원 여러분이 다양하고 훈훈한 봉사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봉사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심장병 아이를 돕는 데 앞장서 주시고,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돕는 일에도 노력하고 계시며,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와 추모 활동을 하는 데에도 적극 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전국순회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발대 26주년을 맞는 보령지대도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을 비롯하여 교통정리, 무료급식, 장학금 지원, 장애인 차량지원 등 지역 곳곳에서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잘 보듬어주시면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기념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

〈2017.8.9. 천안 삼거리공원〉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인 입추의 시기에, 우리 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한마당인「제15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 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그 파고에 정면으로 맞서고 계신 상황입니다.

농업은 아무리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미래성장산업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농업발전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결코 자본주의와 시장논리만 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힘차게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뜻깊은 대회가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며, 우리 농업의 발전을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읍민과 출향인사 한마음으로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흥겨운 자리

〈2017.8.15. 유구초등학교〉

유구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면서 유구읍민이 하나 되는 한마당인 「제47회 유구읍민 화합 체육 대회 및 노래자랑」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47회 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9천여 유구읍민의 가장 큰 지역축제이면서 읍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흥겨운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고단함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활기찬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유구읍민 여러분!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합하되 서로 같지 아니 하고, 소인은 서로 같되 화합하지 못한다.' 고 하였습니다. 유구읍민 여러분께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유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가슴깊이 자리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유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뜻하는 바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그러한 성취들이 모아져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유구읍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광복 72주년 기념 「제47회 유구읍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가장 중요

〈2017.8.17. 논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되는, 「2017년 충남새농민 전진대회」가 논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 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그 파고에 정면으로 맞서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농촌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회원 상호간 최신 농업기술 정보를 교류하며 충남농업의 발전을 약속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한국새농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자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 분주

〈2017.8.18. 보령시 머드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복이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드의 고장이며 서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제전의 참가를 위해 우리 도를 찾아주신 전국 2만여 명의 선수단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해로 열두 번 째 열리는「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다양하고 화려한 해양레저스포츠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환황해권 해양레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보령시의 바다를 마음껏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바다는 개발하기 위한 인간만의 자원이 아니고, 보존해나가야 하는 인류와 전 생명체의 유산입니다. 바다는 지구 전체 생명체의 80%가 살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90%가 넘는 양이 운송되는 광활한 실크로드입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점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은 물론이고 바다를 살리고 어촌을 풍요롭게 하려는 해양자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가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수산 · 관광 ·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해양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께서 바다를 아끼면서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각 종목에서 후회 없이 멋진 승부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충남 서해안의 멋진 풍광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

〈2017.8.23.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심했던 가뭄과 장마철에 이어진 집중호우,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도민 모두가 힘겨워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신선한 가을을 맞게 되는 절기인 '처서'인 오늘, 「충남발전협의회 회장 이 ·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그동안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어 협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임동규] 회장님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 새마을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전영한] 회장님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도의 사회복지 활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활동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1990년에 창립된 이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도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발전략과 관광산업 발전 등 우리 도의 주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와 여론수렴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520여 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지속되면서'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면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한돈 생산의욕 더욱 고취 해야

〈2017.8.24. 덕산 리솜 스파캐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2017년 충청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충절과 사과의 고장이며 이제는 내포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잇따른 FTA체결로 인한 수입개방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지속, 그리고 반복되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 한돈인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내 한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마음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회를 계기로 우수 한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한돈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돈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 나눠야

〈2017.8.25. 공주시 고마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심했던 가뭄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많은 도민께서 아직도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2017년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및 생명사랑문화제 기념식」이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날이 갈수록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이 흔치않은 사건으로 인식되며 마을에서도 쉬쉬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젠, 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서도 1위가 되었을 만큼,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진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의 자살은 남은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사회와 국가에게도 회복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겐 다른 약이 필요치 않고, 진심어린 눈빛과 손길, 그리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감동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문화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도민 모두가 자신에게 다짐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2017.8.25. 덕산 리솜 스파캐슬〉

전국의 골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골프대회」가 서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찾아주신 전국의 골프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로가 화합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동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아름다운 태안의 정취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 행정에 가교적 역할 수행

〈2017.8.25. 예산 윤봉길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심했던 가뭄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많은 도민께서 아직도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제7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 대회」가 충절과 사과의 고장이며 내포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이통장님 여러분!

'이통장제도'는 고려 말부터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5년 조선시대 숙종 원년에 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된 매우 역사 깊은 행정제도입니다. 이통장님 여러분은 정부와 주민의 접합점에서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 의정이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도 이통장님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민이 뽑아주신 진정한 마을의 리더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변화 되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속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담아

〈2017.8.26. 서산시 문화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나며 낭만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47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이 서해안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더해가는 본 사진대전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사진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계신 최차열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훌륭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작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충청남도 사진대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커지면서 이제는 충남이 자랑하는 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본 대회의 명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예술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정지시켜 표현하는 창조의 예술로서, 한 시대의 역사를

투영시켜주고 우리네 삶속에서 피어나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진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사진기를 다루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작가의 열정과 숨결,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 전달하려는 철학이 훌륭해야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전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혼이 담긴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작가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예술이 있기에 우리 충남이 더욱 빛나게 되고 더 큰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전을 축하드리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UN이 적극 권장하는 전세계적인 운동

〈2017.8.29. 백제실내체육관〉

새마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 화합과 행복을 선도하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을 위한, 「2017년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숙현] 공주시새마을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개발 또는 정신계발 운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으며, 이젠 유네스코가 인정하며 UN이 적극 권장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은 복지, 문화,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더불어 잘살아보자."라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문화운동이 바로 '제2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께서 펼치고 계신 '제2새마을운동'이 더 나은 우리 공주시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길

〈2017.8.31. 온양라이온스클럽〉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온양라이온스클럽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67년에 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을 합쳐서는 두 번째로 출범한 온양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지역민을 위해 많은 봉사사업을 추진하며 봉사단체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집수리 봉사와 생필품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크고 작은 봉사 활동을 50년간 펼쳐 오셨기에 이제는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흔적을 지역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50년 활동보다 앞으로 5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무궁한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둡고 소외되어 있는 곳을 찾아 적극 봉사함으로써 이웃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온양라이온스클럽이 이번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더 큰 미래를 견인하며 열정으로 봉사하는 클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상처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노력 지속 필요

〈2017.9.2. 도청 문예회관〉

한국전쟁 충남유족연합회 회원님들과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67주기를 맞으며 「제2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충남 합동추모제」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희생자 분들의 넋을 기리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품고서, 한평생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4만 명, 우리 충남에서도 보도연맹사건 등으로 3만여 명의 가족과 이웃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를 안은 채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응어리졌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015년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노력하며 적극적인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안장 사업과 다양한 추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시실

〈2017.9.6. 홍주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를 하루 앞둔 오늘, 「제18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내포신도시를 품으며 힘차게 웅비하고 있는 홍성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와 조선시대의 의창과 상평창 등 과거 각 시대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정책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에 명시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의 초점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복지 가족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고 그 노고를 인정받는 풍토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입각한 발전이 중요

〈2017.9.8. 온양관광호텔〉

여러분, 반갑습니다.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지나면서 풍성한 가을이 찾아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1회 충남지속가능발전대회」가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시고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이진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님과 홍승욱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복기왕 아산시장님과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 김병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은 2008년 UN이 제정하였던 '세계 인도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부터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팻말에는 2015년 UN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도 적혀 있습니다. 이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는데, 17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종식, 굶주림 종결, 건강과 웰빙, 질적인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산업 · 혁신 ·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 행동, 수중 생물, 육지 생물, 평화 · 정의 · 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환황해권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소 부족했었던 도로와 철도의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충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의 밝은 미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입각하여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도민께 더욱 깊이 있게 심어주는 데에 본 대회가 좋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앞으로의 협의회 활동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쌀 가치를 다시금 알리는 뜻깊은 계기

〈2017.9.8. 아산 신정호 국민관광지 야외음악당〉

쌀전업농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늘, 「제14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가 도의 발전을 이끄는 첨단산업도시인 이곳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밑뿌리는 바로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산업'입니다.

현재, 쌀 개방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이 지속되는 한, 쌀 산업은 대한민국 중추 산업으로서의 힘과 위상을 결코 잃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쌀을 지키고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힘차게 뒷받침하는 쌀전업농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쌀전업농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며, 쌀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이며 메달리스트

〈2017.9.8.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이 가을에,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 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힘찬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 곳에 들어서니 여러분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작년에는 15년 만에 우리 안방에서 개최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도 명예롭고 후회 없이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4백여 선수 여러분'과 '2백여 임원 및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투지와 정신력으로 여러 힘든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나가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자이며 메달리스트'입니다. 부디 승패를 두려워말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시면서, 충남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지도교사님들과 부모님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10만 도민과 함께 충남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충남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 사회악 근절하자

〈2017.9.10. 서산시 해미중학교 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지나면서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오늘, 「제11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4대사회악 근절 및 한마음대회」가 서해안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과 학교 폭력 계도활동은 물론, 재해예방과 복구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또한 거리질서 유지와 각종 행사시 안전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 주시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자율방범대와 함께 언제나 분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

〈2017.9.11. 태안 현대솔라고CC〉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19회 충청남도지사배 골프대회」가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성 함양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동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골프 인구의 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며, 아름다운 태안 지역의 가을 정취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골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2017.9.12.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백로'를 지나는 시기에, 「2017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이 충남 문화예술의 중심도시인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작품들을 출품하신 칠십여 작가 여러분과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지니며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예쁜 꽃다발로 엮어 도민들께 선사하시는 작가님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며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길 바라면서,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미술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작가님들의 돈독한 우애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영령들과 참전 전우들은 우리 민족의 든든한 기둥

〈2017.9.12. 도 문예회관〉

애국 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제22주년 기념 안보결의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힘들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주었던 월남전을 전우들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청남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청춘은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로 돌진했던 애국 영령들과 참전 전우들은 우리 민족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이루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6.25 전쟁 시 도움을 받았던 우방국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아 외교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경지인 서각예술의 힘

〈2017.9.15.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서각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14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휴양도시인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각은 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레 나무를 고르고 다듬어 작가의 마음을 글과 문양으로 새기는 과정은 각자장(刻字匠)의 영혼을 담는 과정일 것입니다. 소중한 글귀가 입체감 있게 각인되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도 깊이 간직되기에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서각작품입니다. 그리고 수 만 마디의 장문보다 단 한 글자의 힘으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경지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서각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우리 고유의'서각'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그리고 고궁이나 사찰의 현판 등 훌륭한 서각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오늘날까지 자랑스럽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서각예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성을 이어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행사를 축하드리며,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2017.9.16.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서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제25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가 산자수명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하여 '만세지보령(萬世之保寧)'으로 불리는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충남의 서예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수열 한국서가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시는 서예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예인 여러분!

서예는 먹의 농담에 따라 점과 획이 빚어내는 절제와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예술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면면이 담아 온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며,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자랑스러운 충남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작품 활동에 전념해 온 수작들을 모아 지역민들에게 서예 예술의 진수를 선보여 주시는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호평 속에서 성황리에 전람회가 펼쳐지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는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동양미학을 지필묵에 담는 서예인 여러분의 자긍심이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쓴 글귀들을 가슴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빼어난 글씨에 매료되고 귀중한 말씀에 다시 한 번 감동을 얻는 성찰과 교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서가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새로운 길이 열리길

〈2017.9.18.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은 가을하늘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새롭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하면서 「제18기 민주평통 충남부의장 취임식과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평화공감 특별강연회」가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다양하게 급변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날, 남북관계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평화통일의 튼실한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키우며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 다해 주길

〈2017.9.20. 보령시 신흑동 머드랜드 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2017년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가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내 축산업의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오늘의 성대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신 [유찬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축산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축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축산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잇따른 FTA체결로 인한 수입개방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지속, 그리고 반복되는 구제역과 AI 등으로 축산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내 축산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오늘의 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수 가축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며,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축산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축산가족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시민 보호 최우선

〈2017.9.22.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오늘,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의용소방대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을 맞으시는, [박건수] 제11대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류석만] 제12대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소대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활기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소대원 여러분!

미국의 석학 '찰스 엘리엇'은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바로 봉사하는 것."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잘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석만 신임회장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하면서,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매력 넘치는 스포츠

〈2017.9.22. 공주시립테니스장〉

전국의 테니스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분을 하루 앞두고 풍성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오늘, 「제10회 무령왕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를 찾아주신 전국의 테니스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로가 화합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니스'는, 직장이나 집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 에게 꼭 필요한 민첩성, 근력, 순발력 등을 강화시켜 주는 매우 유익한 스포츠입니다. 특히 매너를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며, 동호인 간 친목을 다지고 경기를 즐기는 사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매력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앞으로도 온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아름다운 공주의 가을 정취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속팀 명예 한층 더 빛낼 수 있도록 선전

〈2017.9.23. 공주시 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인 오늘, 「제23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왕도의 깊은 멋을 간직한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축구 가족 여러분!

오늘날 축구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건강하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축구발전은 물론 도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유명 축구선수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난 세계 최고의 선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늘 건강하게 즐기는 자세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축구대회의 개최를 축하 드리면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속팀의 명예를 한층 더 빛낼 수 있도록 선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마당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공주시의 그윽한 가을 정취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정체성 확인시켜 주는 연결고리

〈2017.9.23. 경남 김해시 수릉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경남 김해시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게 된 것을 공주시민과 충남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도는 아름다운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며 문화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던 백제 왕국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시 줄다리기와 판소리, 은산별신제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중요문화재로 계승보존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산들을 밑거름 삼아 우리 충남 민속예술이 더 큰 열매를 맺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속예술인 여러분!

우리의 민속예술에는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으며,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발견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쉰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도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속예술인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큰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민속예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의 자랑이자 충남의 자랑

〈2017.9.23. 천안시 박물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충무공김시민장군 탄신 제463주년 기념식」이 장군의 고향이자 호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시민장군께서는 1554년 천안 병천에서 탄생하여,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이 되셨고, 1591년에 진주판관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장군께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방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3만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하였을 때 3,800여 군관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왜군 2만 명을 살상하여 격퇴하셨습니다. 그 후 선무2등 공신에 제수되고 충무공의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진주성대첩은 왜군들의 전략과 기세를 꺾어 마침내 왜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전투였기에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 자랑이자 충남의 자랑이며, 우리민족의 정신과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충무공김시민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배할 충렬사도 복원하면서, 생가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펼쳐지는 헌다례 및 문화축제의 장을 통해 이러한 염원들이 더욱 커져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선양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은 사랑의 무한 리필

〈2017.9.25. 덕산 리솜스파캐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아름다운 오늘, 「2017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이 윤봉길 의사의 혼이 서려있는 덕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 오시면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관형]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눔은 사랑의 무한 리필'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무한대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강산이 두 번 이상 변하는 오랜 세월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운동을 펼쳐오셨으며, 재난구호와 응급지원 등 그늘지고 어두운 곳의 '의로운 가로등'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발자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과 나눔의 메아리'가 되어 따뜻한 인연을 맺어주는 '오작교'로 도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살맛나는 충남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무한 사랑을 펼치고 계신 여러분의 값진 활동에 보람과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 되길

〈2017.9.25. 서산시민체육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과 소방가족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오늘, 「2017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오늘날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 불안 요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소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부터 주민을 잘 보듬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은 '소방호스 끌기'를 비롯해 '수관연장 및 방수자세', 그리고 '개인장비 착용'등을 겨루며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고단했던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즐겁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

〈2017.9.26. 천안시 유관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오늘, 「2017년도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가 충남의 대표도시인 천안시 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조건임에 틀림 없지만, 그 불편함이 결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과 자기성취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힘을 가져다주는 한 때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가족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은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규모 자연미술 이벤트 자리매김

〈2017.9.27. 연미산 금강자연미술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가을에, 「2017 금강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 개막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하여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자연 파괴 등의 현실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미술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프레 비엔날레'는 내년에 개최하게 되는 '201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작가 여러분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험적이고 자유스러운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자연미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작가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를 비롯한 충남은 아름다운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며 문화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던 백제 왕국의 숨결이 살아있는 세계유산의 본고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산이 좋은 밑거름 되고 작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찬란했던 백제의 예술혼은 우리 곁에 되살아나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술인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연문화의 정수

〈2017.9.28. 공주 신관공원 주무대〉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백제의 사대왕과 충신열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장졸들의 영가를 천도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산대재는 살아있는 사람이 영가와 함께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닫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나길 기원하는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연문화의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공연에서 행해지는 불교 음악과 각종 의식은 한국전통문화의 근원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산대재도 세계인들이 그 깊이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을 행하는 마음이 전파되어, 공주시의 더 큰 화합과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3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도량이 되어 모두가 성불하시고 불사 회향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는 인류의 미래 대비하는 핵심가치

〈2017.9.28. 금산 다락원〉

친환경농업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풍성한 시기를 맞으며, 오늘 「2017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펼쳐지고 있는 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친환경농업인 가족 여러분!

농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생,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농업전반에 튼튼히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미래 생명산업의 핵심 '키'를 쥐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먹거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이미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유기농에 있어서 국내외의 모범이 되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제도 개선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학생에게 건강증진보다 더 높은 소중한 가치

〈2017.9.29. 당진실내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제5회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항만물류도시인 당진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포츠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협력과 소통 그리고 교감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기에 인간의 고귀한 정신문화를 일깨우게 됩니다. 더욱이 장애학생들에게는 건강증진보다 더 높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자기극복을 통한 '자신감 배양'과 '자존감 향상'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본 체육대회는 도내 장애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사회성을 적극 함양하고, 신체적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아님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도 장애인체육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수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찾아가시는 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찬 모습들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

〈2017.9.29.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공연무대〉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시기에, 「제10회 충남예술제」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본 예술제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공연예술과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충남문화예술의 부흥에 언제나 앞장서주시는 예술인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열정과 노력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금산군과 충청남도가 혼신을 다해 마련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내 예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우리 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10회 충남예술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사랑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 하길

〈2017.9.29. 임립미술관〉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4회 공주국제미술제」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백제문화를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미술문화 창조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임립] 미술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작품들을 출품하시고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미술가 분들과 관람객 여러분께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고대 백제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유려한 멋을 자랑하는 백제의 미술은 당시 동북아시아 예술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왕국 백제의 본 고장인 이곳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미술인들이 함께 축제의 장을 벌인다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임립미술관 공주국제미술제는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가을에 매 년 개최하며, 충남은 물론 아시아 미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90

일 동안 '아시아를 주목하다'라는 주제로 웅장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미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멋지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시아인이 사랑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미술인 여러분!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인으로서의 열정적인 노력을 지속하면서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미술제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전 세계 미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우애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임립미술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이 가까이에서 국악을 접해 나가길

〈2017.9.29. 공주문화원 대강당〉

전국의 국악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제3회 전국 공주아리랑 민요경창대회」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산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국악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네 삶과 정서, 그리고 예술혼이 녹아있는 민족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을 자랑했던 백제의 숨결이 간직된 이곳 공주 아리랑도 [남은혜] 명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한 차원 높은 국악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공연이 많이 펼쳐져 지역주민 모두가 가까이에서 국악을 접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전 국민에게 '공주아리랑'의 멋을 풍성하게 알리는 데에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공주아리랑보존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의 아름다움을 사진예술로 승화

〈2017.9.30. 공주문화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오늘, 우리의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백제유적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아이러브 세계문화 유산도시 공주 사진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제68회 백제문화제의 개막과 함께 전시회가 펼쳐지게 되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전통 문화예술과 현대의 예술을 접목하며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 속에 충남 문화예술'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인 사진예술로서, 백제문화의 깊은 멋을 알리고 계신 작가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세계인이 사랑하는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에 항상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사진전시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공주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악은 한국적인 전통예술

〈2017.9.30. 공주시 백제문화제 주무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6회 충청남도 일반 남녀 농악 경연 대회」가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백제문화의 깊은 멋을 알리는 백제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여서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우리 농악에는 오천년을 이어온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모심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같은 고된 일을 할 때마다 이웃과 서로 도우며, 흥겨운 가락에 쌓인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명나는 가락을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며 흥에 쉽게 취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농악 소리도 이젠 듣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신세대 문화들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잊혀져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악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가장 한국적인 전통예술입니다. 농악을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으로 이를 다시 부흥시키며 국악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데에 앞장서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좋은 공연이 많이 펼쳐지며 도민과 함께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높이는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잔잔한 감동을 누려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

〈2017.10.13. 충남보훈공원〉

존경하는 [최현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높고 청명한 하늘과 쌀쌀해지는 바람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오늘, 우리에게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르쳐주신 선열에 대해 다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몰군경 호국영령의 고귀한 영전에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광복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6.25 전쟁이, 역사 속에 머물고 있는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정전이라는 현실에 깊은 아픔이 느껴지지만,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도 듭니다.

과거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역사적 비극은 씻을 수 없는 일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 장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4만 전사자와 45만 부상자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수많은 전몰군경과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 등을 강행하며, 맹목적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선열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금 기리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

〈2017.10.13. 부여 롯데리조트 사비홀〉

걸스카우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한국걸스카우트 창립 제71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가 백제왕도의 깊은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부여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걸스카우트 가족 여러분!

1958년 '대한소녀단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걸스카우트 정신은 여성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충남 · 세종연맹에서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셨으며, 현재 제16대 김정희 연맹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걸스카우트운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성 및 청년 운동' 으로 굳건히 자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언제나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지도자 대회는,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전국의 걸스카우트 지도자를 격려하고 서로간의 우애와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

〈2017.10.14. 태안군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시기에, 「2017년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서해안시대를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는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보육교직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은 어린이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며, 장차 이 나라를 건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참된 마음과 값진 노고에 대해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교직원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정진하길

〈2017.10.18.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 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 곳 문예회관에 들어서니, 선수와 임원 여러분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젊은 에너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작년, 15년 만에 우리 안방에서 개최하였던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여러분께서 올 해에는 충북으로 힘차게 출정하시는 모습을 뵈니, 더없이 명예롭고 자랑스럽습니다.

레슬링의 전설 '심권호' 선수는, "내가 선을 긋는 순간, 나의 한계가 결정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1천 7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서는, 차디찼던 겨울과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내며 한 틈의 쉼 없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정진하여 왔습니다.

그 땀방울을 몸에 새기며 모든 경기에 후회 없이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랜 시간을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모두는, 이미 메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임원진과 지도 교사님들께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고향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충남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소판

〈2017.10.19. 윤봉길체육관〉

전국의 수석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어우러지는 「예산3국축제 기념 전국수석인 대축제」가 윤봉길 의사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작품을 출품하시며 대축제에 함께해주신 전국의 수석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수석애호가 여러분!

'수석은 자연의 신비이자 오묘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수의 온갖 풍경을 닮아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빛과 형상을 담고 있는 수석을 보고 있노라면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대자연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일은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노력과 미적 안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을 누비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축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주민 여러분이 수석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로움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전국수석인 대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수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신비한 힘

〈2017.10.21. 천안예술의전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9회 대한민국 생활음악경연대회」가 흥타령의 고장인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천안에서 태동한 본 대회가 어느덧 9회째를 맞이하면서 규모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자랑스러운 생활음악인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는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구절이 있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에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신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음악을 전하시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더욱 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음악인 여러분과 협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8개 부문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오랜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으신 실력을 맘껏 뽐내시면서, 전국의 생활음악인 여러분의 만남에서도 하모니가 형성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 생활음악경연대회'의 지속적인 성공개최와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와 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되어 주길

〈2017.10.21. 공주 12월의 왈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기에, 「2017년 간무사 한마음 워크숍」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유적의 깊은 멋을 간직한 우리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간호조무사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60년대부터 예방접종과 결핵퇴치 등에 앞장서 오셨고, '70년대에는 5천여 명의 간호인력이 광부와 함께 서독으로 파견되어 국위선양과 조국의 경제발전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늘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건네는 배려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고 나아가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을 줍니다.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 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 한 분야

〈2017.10.21. 공주문화원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오늘, 「제19회 한국백제서화협회 공모대전」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유적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서화예술인 여러분!

서화예술은 먹의 농담에 따라 점과 획이 빚어내는 절제와 조화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예술이며,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면면이 담아 온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충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자랑했던 백제왕도의 중심지인 우리 공주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본 서화대전은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상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작품 활동에 전념해 오시며 지역 서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오시는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본 대전을 통해 백제서화는 물론 공주시의 깊은 멋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서화인 가족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전 기간 동안 빼어난 글씨와 그림에 매료되며 큰 감동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한마당

〈2017.10.23.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오늘,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든 말(馬)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몽골의 속담이 있으며, 이와 비슷한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인 '한비자'의 말로 직역하자면, '늙은 말의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라는 그리스의 속담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남 노인회를 이끌어 주시는 어르신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어르신들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며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한마당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농협되길

〈2017.10.24. 농협충남본부 신청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인 상강(霜降)이었습니다. 선선한 기운이 감돌며 깊어가는 가을이 아름다운 시기에, 「농협충남본부 신청사 준공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농협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우리 농업을 지키며, '농촌의 수호자'이자, '식량안보의 파수꾼'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충남 웰빙의 본거지'인 농협 충남본부가 56년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를 준공하게 된 것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주춧돌'을 다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일류 충남 농업을 이루기 위해 지역과 더욱 하나 되고 도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농협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도민의 행복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축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터를 멀리 옮기면서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불편을 감수하게 될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 할 의욕을 높여 주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준공식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면서, 「농협 충남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환경권 보장과 삶의 질 높이는 노력해야

〈2017.10.25. 덕산 리솜스파캐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내포신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에서 「신 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주제로「국제컨퍼런스」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우리 도에서는 노후 발전소에 대한 염려는 물론 신규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지속 되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탈석탄'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시간이, '2020년 신 기후체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인 역량이 중요

〈2017.10.27.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우리 민족의 평화와 상생을 염원하는 「2017년 민족통일충청남도 대회 및 제48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서해안 관문 휴양도시인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도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족통일 회원 여러분!

통일은 분명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난제입니다. 하지만, 통일은 결코 우리 정부나 주변국, 그리고 정치인 등의 힘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회원 여러분의 염원과 같이 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인 역량이 갖추어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 대북한 민간대표기구로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국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동안 통일문예 작품을 공모 · 시상하고, 새터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일홍보 강연회 및 통일 골든벨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통일촉진을 위한 계도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 우리민족의 통일이라는 희망찬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

〈2017.10.31. 천안시청 봉서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월의 마지막 날에,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가 충남의 중심도시인 천안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아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운동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도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범적인 활동이 계시기에 주민 모두가 따뜻하게 화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시민 윤리와 도덕성이 살아있는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소중한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가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겨울의 길목으로 향하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조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

〈2017.11.1. 공주문화원 대강당〉

전국의 시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오늘, 「제10회 내포제시조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백제왕도의 깊은 멋을 간직한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시조가족 여러분!

시조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멋과 풍류가 깃들어 있는 우리만의 가락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배어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선조는 고된 삶 속에서도 시조를 통하여 삶의 여유를 찾고 애환을 달래 왔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전통 속에서 깊게 자리 잡아온 시조가 오늘날에는 서구 물질문명 확산 등으로 조금씩 잊혀지고 있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조 동호인 여러분께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조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계시기에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힘찬 활동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개최하는 시조경창대회가 우리 시조의 진가를 재확인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시조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대회에 참석해주신 전국 각지의 시조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머무시는 동안 공주에서의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감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요소

〈2017.11.2. 보령문화의전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오늘, 건축문화의 확산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도모하는 「2017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가 이곳 보령시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문화제가 뜻깊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건축 및 공공디자인 가족 여러분!

지금의 21세기는 '문화감성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건축과 디자인'은 일상생활의 중심에서 문화와 감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공동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유구한 백제문화유산과 곳곳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첨단산업도시와 내포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다양성과 활력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 자산들에 여러분의 창의성이 보태진다면, 우리 지역 고유의 매력을 뽐내는 도시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축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문화제가 건축과 공공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셔야

〈2017.11.3.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공주시노인복지관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나누자! 즐기자! 함께하자! 십시일반 나눔 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나눔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요즈음 '우리사회가 진정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애써주시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복지가족 여러분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따뜻한 한마당이 자주 펼쳐지길 바라면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높여가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웃으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늘 웃으시는 일 많으시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충남을 만들어온 일등 공신

〈2017.11.3. 서천군종합운동장〉

생활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장 위 탐스런 감나무가 가을의 풍요를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시기에, 「제2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서해안 갯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서천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생활체육인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100세 시대인 요즈음, 스트레스는 많고 시간은 부족한 도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더욱이 생활체육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를 맞는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충남인의 건강 길잡이로서 튼튼한 충남을 만들어온 일등 공신이었으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민 화합의 향연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도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해주시는 선수단 여러분이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인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선수단 여러분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

〈2017.11.4. 공주시 백제체육관〉

전국의 검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을 앞두고 있는 만추의 시기에, 백제왕도의 깊은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공주시에서, 「제4회 무령왕배 전국 해동검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하면서, 공주시민과 충남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로가 화합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동검도'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이미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로 동호인 간 친목을 다지고 경기에 임하는 사이에 자신감은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매력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앞으로도 온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라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아름다운 공주의 가을 정취도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주시해동검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대선사와 800여 호국의승 넋 위로하고 추모

〈2017.11.5. 계룡산 갑사〉

존경하는 갑사 [탄공]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깊이 간직한 채, 천 육백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이곳 갑사에서, 「순국 425주년 영규대선사 및 호국의승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려다 순국하신, 기허당 영규대선사님과 800여 호국 의승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 싸우신 세분의 승장(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중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시고 여생을 마쳤지만, '기허당 영규대선사'께서만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비운의 승장이십니다.

대선사뿐만 아니라 의병 모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며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규대선사와 800승병에 대해 조선의 국가적 조치는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영규대선사와 800여 의승의 원혼을 달래고, 이를 계기로 그 숭고했던 호국정신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힘과 기개를 얻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추모재와 산사음악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날을 수놓으며 그 분들의 고귀한 뜻과 높은 기개를 다함께 가슴 깊이 되새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갑사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규대선사님과 800여 호국 의승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문화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기술 접목

〈2017.11.6. 국립공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을 하루 앞두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국립공주박물관 정성스럽게 마련한「충청남도의 역사문화실 개관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개관하는 역사문화실은, 2004년에 상설 전시관을 개관한 이래 약13년 만에 새롭게 단장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과 유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기술에 접목하여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을 기념하면서 '백제의 불교미술 특별전'도 함께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라는 공주의 자부심이 오늘의 개관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으로부터 찾아주시는 관람객 분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국립공주박물관'과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실'이 백제의 그윽한 향기를 더 깊이 있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백제문화의 세계화에 언제나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관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 다하길

〈2017.11.7. 공주 백제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입동'인 오늘, 우리 공주와 세종의 축협 조합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2017 세종공주 축협 조합원 한마음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220만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여러분!

지금 우리 축산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잇따른 FTA체결로 인한 수입개방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지속, 그리고 반복되는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해 축산 가족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내 축산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마음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회를 계기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축산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일상의 시름을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에너지의 근원

〈2017.11.8. 보령 비체팰리스〉

새마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오늘, 세계인이 사랑하는 머드의 고장인 이곳 보령에서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제3회 고부 한마음 대행진」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 가족 여러분!

오늘,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여러분과 더불어 결연을 맺고 계신 어르신들을 뵙게 되니, 왠지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유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기에 평생 고생만 하셨구나.'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다 해도, 어머니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에너지의 근원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노인섬기기 운동'을 펼치며 관내 홀몸노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마을 정신'처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즐겁게 화합하며 우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

〈2017.11.9. 보령시 운동장 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오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보령시에서 「2017 충청남도축구협회장배 통합 축구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축구 가족 여러분!

오늘날 축구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건강하고 단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축구발전은 물론 도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2002월드컵'의 주역이었고 지금은 축구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상이지만 축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늘 즐기는 자세로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축구대회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속팀의 명예를 한층 더 빛낼 수 있도록 선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마당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충청남도축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활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일

〈2017.11.9. 공주소방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 활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로운 일입니다. 소방관 여러분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맞서고 계시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쁜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시며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계신,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도민은 물론이고, 소방가족 여러분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실 때에 진정으로 안전한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적극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쉰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소방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공주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

〈2017.11.9. 도 문예회관〉

적십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 제법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연차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적십자 가족 여러분!

'적십자'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인류에게 사랑과 존엄이라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89개국, 1억 명의 봉사원이 차별이나 조건 없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 곳곳에 희망을 심어주고,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인도주의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112주년을 맞이하였고, 우리 충남지사도 1949년 발족하여 6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함께하며 사회봉사활동과 재난구호활동, 국제협력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아 오신 적십자 단원과 봉사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 평화통일의 튼실한 기반이 구축

〈2017.11.10. 순천향대학교 인문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시기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다시금 인식하며 자문위원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는「제18기 충남지역 자문위원 연수」가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날, 남북관계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평화통일의 튼실한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키우며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민과 함께 약속

〈2017.11.10. 충남교통연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만추의 그윽한 정취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오늘, 「2017년도 충남 소비자 대회」가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을 품고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민과 도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기쁨도 잠시,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참으로 어렵고 배고픈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면함과 단결력으로 이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 등 경제생활에 대한 주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다짐대회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민과 함께 약속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일이야말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다짐대회가 책임있는 소비문화를 도민께 널리 전파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 필요

〈2017.11.16. 천안종합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는 겨울 어귀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애국충절의 도시인 천안시에서 「제6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오로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땀방울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물질문명의 융성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이 다소 퇴보하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도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린 어르신들의 고명하신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당당하게 다시 한 번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축제의 자리가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며 돈독한 우정을 함께 나누시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노인건강대축제」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사랑하는 명문대학으로 이끌어 주시길

〈2017.11.16. 금강대학교 원각도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금강대학교 제6대 이준원 총장님의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본교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된 인간성'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자신을 완성하고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공헌하게 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모두에게 충만하고자 2002년에 설립된, 작지만 강한 지역의 명문대학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이준원 총장님께서는, 건양대와 공주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공주시장님으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는 한일고의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 오신, 우리 공주의 자부심이며 우리 충남이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쌓아 오신 많은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금강대학교를 220만 도민께서 사랑하고,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사랑하는 명문대학으로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장님의 빛나는 열정과 노력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면, 대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발전에도 새롭고 큰 계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금강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6대 이준원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카드 섬유'부활을 꿈꾸며

〈2017.11.17. 유구전통시장 광장〉

유구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군밤과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기에, '유구의 섬유,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2017 유구 자카드섬유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구읍은 섬유산업이 가장 발달하였던 곳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로 색동천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던 곳입니다. 서구 문명의 유입과 합성섬유의 대중화로 인해 섬유공장이 하나 둘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자카드 섬유'를 중심으로 부활을 꿈꾸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음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벽화거리'는 물론, 유구섬유산업의 역사와 지역민의 생활사 등을 전시하고 있는 '유구섬유전시관'이 조성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흥겨운 페스티벌 한마당이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만추와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아름다운 시기와 맞물려 전국의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유구 자카드 단지'가 '섬유 특화단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나가며, 유구의 무궁한 발전을 이끌어주길 기원하면서,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유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유구읍민과 공주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하나 되는 페스티벌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울려

〈2017.11.20. 예산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85주년 기념 창작뮤지컬」이 윤봉길의사의 고향이자 충절의 고장인 예산군에서 펼쳐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며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1세기전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셨던 애국선열 분들의 꿈은 단 하나,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지역이 낳은 윤봉길 의사께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인류의 안녕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시면서 간절히 이루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헌신하셨던 윤봉길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에게 독립운동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울려 퍼졌고, 독립의 기틀이 되어 한국인을 세계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지역 예술인 여러분의 정성어린 뮤지컬 창작품을 통해 도민께 선보이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넓혀 오시고,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등을 선보이신 협회의 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우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충남 예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연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뮤지컬과의 만남을 새롭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용사'

〈2017.11.20. 덕산 리솜스파캐슬〉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이틀 앞둔, 만추의 정취가 아쉽게 느껴지는 오늘, 도내 의용소방대장님 모두가 함께 하시는, 「2017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 워크숍」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장 여러분!

여러분을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용사'라고 하면, 딱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근무에 임하시고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처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석학 '찰스 엘리엇'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바로 봉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의용소대장님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워크숍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

〈2017.11.20. 충남도청 옆 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설을 이틀 앞두며,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나눔 문화 확산을 염원하는「희망 2018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즈음,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시고, 고령화와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네 인심이 각박해져만 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해 왔으며,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자는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무리 살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네는 그 소중한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을 뜨겁게 달궈줄 '희망나눔 캠페인'이 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촉매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음악과 예술에 대한 소양 중요

〈2017.11.22. 공주문화원 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인 오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이곳 공주문화원에서 「공주청소년오케스트라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향유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 예술을 오늘에 맞게 잘 계승 발전 시켜서 '세계 속에 충남 문화예술'로 발돋움하게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워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공주문화원」과 「공주청소년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 드리면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54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문화원」과 「공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

〈2017. 11. 25. 온양민속박물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제11회 충남 문인화협회 특별기획전」이 서해안 시대의 첨단산업도시인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문인화 작가 여러분!

문인화는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조선시대의 사대부에 의해 활발하게 펼쳐져 수묵산수화나 사군자 등의 소중한 작품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이 고향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은 문인화의 화풍을 절정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이렇듯 문인화는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면면이 담아 온 소중한 유산으로, 충절의 고장인 충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격조 높은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일상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작품 활동에 전념해 오시며 문인화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오시는 회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본 특별기획전을 통해 문인화는 물론 우리 도가 자랑하는 백제문화의 깊은 멋을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도민께서 멋진 작품에 매료되며 큰 감동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한국문인화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불빛

〈2017.11.25. 공주시 전막사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공주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시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오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의 뜻깊은 점등식을 마련하신, [조철호]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목회자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환하게 밝히는「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밝히는 성탄트리의 성스러운 불빛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온 세상을 비추었던 별빛과 같이, 우리사회의 모든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기쁨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불빛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염원을 담아, 백제문화에 빛나는 우리 공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망의 불빛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공주 땅 온 누리에 사랑과 온정이 넘치도록, 우리가 다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연말과 성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2017.11.25. 공주시민운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설'이 지나며,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오늘, 「제2회 공주알밤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 가족 여러분!

오늘날 생활체육은 지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성 함양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남짓 되는 짧은 역사를 지니고는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친목과 우의를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나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만족감은 '결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가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며, 회원 간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공주의 정취를 만끽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큰 힘

〈2017.11.27. 덕산 리솜스파캐슬〉

존경하는 선수와 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달, 충북에서 치러진,「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 6위의 쾌거를 이뤄주며, 충남의 기상을 드높이신 자랑스러운 선수와 임원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우승을 기록한 '카누' 선수 여러분을 비롯한 삼백 여 선수단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52개의 금메달과 56개의 은메달, 그리고 76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으신 선수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한 충남체육회와 지도교사 그리고, 경기단체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서도 다시금 느꼈습니다만, 스포츠는 단순히 힘과 기량을 겨루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내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에서도 선수단 여러분과 함께 220만 도민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단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도민께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고향의 명예를 빛내주시는 여러분의 땀방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주신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해단식이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2017.11.29. 리버스컨벤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공주시협의회 회원 수련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 아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운동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주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범적인 활동들도,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밝고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소중한 대회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공주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서로를 사랑해 주시길

〈2017.11.29. 경복궁웨딩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몸은 추워지고 있지만,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공주시모란보건진료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행복한 황혼의 리마인드 웨딩」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우리사회가 진정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복지가족 여러분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열 세 쌍의 어르신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한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하는 '황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걸어 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었다는 증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함께하신 자녀분들에게 어떠한 말보다도 진한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서로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늘과 같은 좋은 행사가 자주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높여가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언제나 복지 가족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웃으시는 일 많으시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2017.11.30.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을 한 달 남겨둔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식량산업이자 전략산업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는 달리, 관리 · 유통의 어려움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해 그간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인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으로 농산물 관리와 유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 출하의 선진적 유통체계가 구축되어 고품질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대량 소비지 지속 출하를 통해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어 판로확대로 인한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관리,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사랑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자식 돌보듯 귀하게 키우신 농산물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준공을 축하드리며,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의 부흥을 통해 도 예술 전반적인 발전하길

〈2017.12.1.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청양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12월의 첫 날인 오늘,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청양군지회 창립식 및 지회장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영국의 작가(체스터튼)가 말하길, "좋은 문화는 무성한 잎을 품고 있는 나무가 우리 머리 위를 덮어주고 있는 것과 같고, 나쁜 문화는 모두가 획일적인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만의 고유하고 소중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면서,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다양한 '한국연예예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힘찬 출발과 같이, 앞으로도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의 부흥을 통해 도 예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민과 공감하는 무대를 넓혀가면서, 청양군과 충남 예술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도 출신의 연예인들이 더욱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 주시고, 젊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실현 주도적인 역할 기대

〈2017.12.6. 공주대 본부 10층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대설'을 하루 앞두며,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오늘, 「2017년 4분기 민주평통 공주시협의회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입장이 시시각각 다양하게 급변하는 등 국민 모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날, 남북관계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키우며 지역의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더욱이, '평창올림픽'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정기회의와 역량강화 워크숍의 자리를 축하드리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해야

〈2017.12.8. 국립공주박물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설'이 하루 지나며 깊어가는 겨울이 느껴지는 오늘, 「2017년 문화관광해설 시연 경진대회」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백제유적이 살아 숨쉬는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쇼핑을 비롯한 제조업, 그리고 건설과 교통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연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저성장 기조와 북핵위협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여 진정한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유적 등을 전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며 우리 도가 대한민국 관광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문화관광 가족 여러분 모두의 힘이 모아진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언제나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의 날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경진대회를 통해 즐겁게 화합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

〈2017.12.8. 예산 윤봉길체육관〉

새마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실천 의지를 다지는 「2017년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충절의 고장인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씨앗은 새마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태동할 당시 한국 사회에 가장 소망되는 정신 세 가지를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으로 보아, 이를 새마을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펼쳐주셨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으며, 이젠 유네스코가 인정하며 UN이 적극 권장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은 복지, 문화,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더불어 잘살아보자."라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문화운동이 바로 '제2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께서 펼치고 계신 '제2새마을운동'이 더 나은 우리 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서로 자비를 베풀자

〈2017.12.9. 금오산 향천사 약사여래불〉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새하얀 눈이 뒤덮이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치면서, 깊어가고 있는 겨울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백제천년고찰인 이곳 금오산 향천사에서 대의왕이신 약사여래부처님 점안법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이곳은 백제 의자왕16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점안식을 통해 우리는 대자비의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부처님의 눈으로 바다와 같은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내려지고, 힘없는 중생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품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애로움과 지혜를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서로 자비를 베풀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승불교 경전인 '유마경'에서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채워진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이상세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 해에도, 불자 여러분께서 언제나 심신을 가다듬으며 우리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널리 펼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약사여래부처님의 점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공주인

〈2017.12.13. 피에스타 귀족 강남점〉

공주향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재경 향우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 7월부터 도의회 의장직을 맡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아 전국 의장님들과 함께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물어가는 세밑에서, 이렇게 재경 공주 향우 여러분과 송구영신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이 고향은 떠올리는 것만으로 언제나 푸근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오늘의 만남도 '우리는 영원한 공주인'이라는 끈끈한 인연이 있기에, 아무리 오랜만이라도 금방 옛날로 돌아가, 추억을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명배우 '오드리 헵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태어난 고향은 경의를 표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향우 여러분의 그 마음과 공주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공주의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이 고장에서 낳고 자란 공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고장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린 정담도 나누시고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감성 치료하여 활력 넘치는 삶 만들어

〈2017.12.21. 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생각나는 '동지'를 하루 앞 둔 오늘, 「2017년 충남장애인문화예술축제'잇다'기념식 및 축하공연」이 펼쳐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늘날의 베토벤'이 많이 계십니다. 신체의 불편함을 딛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계신, 베토벤과 같은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이를 이겨내는 힘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문화예술 속에 면면히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상처받은 감성을 치료하여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 분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선물 받게 됨은 물론,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의 소중한 문화예술축제의 한마당도 여러분이 그 끼와 재능을 맘껏 뽐내시며,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

〈2017.12.29.〉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2017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등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서로를 따뜻하게 돕는 사연들이 도내 곳곳에서 꽃을 피웠으며,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모범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사십 분 도의원 모두가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살펴보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2017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Ⅱ

도민과 함께

Ⅱ-3 2018년도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1.1.〉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18년 무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 온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사십 분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2018.1.3. 공주문화원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무술년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공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2018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공주와 우리 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며,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일치단결하여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슬기로운 면모를 발휘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공주시가 백제의 숨결을 품고 약동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또한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

〈2018.1.3. 예산 더센트렐웨딩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무술년 새해를 맞아 도내 여성 리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2018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도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셨던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오늘날, 여성으로서의 삶은 가족 안에서의 든든한 울타리는 물론, 당당하게 남성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더욱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들이 살고 싶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힘찬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새 해에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사십 분 도의원 모두가 열심히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화합하는 의미 있는 해

〈2018.1.4. 공주 리버스컨벤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올 해,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공주시와 충남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가 화합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직 공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올 해는「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

〈2018.1.8.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무술년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공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2018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공주와 우리 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부처님의 은덕으로 전 세계가 화합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직 공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리면서,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2018.1.8.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무술년 새해를 맞아 「2018년 충청남도 신년교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내 기관 · 단체장님들과 기업체 임원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2018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도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전 세계가 화합하며 발전해나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사십 분 의원 모두가 열심히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 실천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2018.1.12. 한국효실천시민연대 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한 무술년 새해를 맞아, 「한국효실천시민연대 2018년도 신년교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해,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황금 개'와 같이 우리 도와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님을 남들보다 더욱 편안히 잘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슴 깊이 품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식으로서 뿌듯해하기에는 늘 부족하기만 한 게 자식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식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미처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운 고민들은 언제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효의 실천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어르신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제도 개선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신년교례회의 자리가 도민 여러분께서 '효'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회와 공주의 더 큰 도약 이끌어주길

〈2018.1.20. 유구 그랜드회관〉

자랑스러운 유구읍 청년회원 여러분!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 새 해를 맞아 「유구읍청년회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그동안 유구읍청년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을 맞으시는 [위철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취임하시는 [김대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4대 [김대식] 회장님은 그동안 유구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신 분으로, 앞으로 청년회와 공주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는 현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백제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고대왕국이 힘차게 부활하고 있지만, 세종시 출범과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인구수가 11만선이 붕괴되어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새 해를 맞아, 공주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유구읍청년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만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 공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오. 저 또한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값진 활동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뜨거운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라는 가치를 “행동”으로

〈2018.1.26. 공주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무술년 새 해를 맞이하면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공주시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과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사회봉사활동과 재난구호활동, 국제협력 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아 오신 적십자 봉사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적십자사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중심 봉사단체입니다. 적십자사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구호사업 등은 “인도주의” 라는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 또한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공 되길

〈2018.2.6.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영명학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학업에 정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두고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246명(중:100회86명, 고:98회160명)의 졸업생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그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정든 친구들을 떠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함과 순탄함도 있겠지만 반대로, 무한경쟁과 변화무쌍한 사회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맞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공이 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올 해로 개교 112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새롭게 바꾸는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제자사랑과 열정이 더해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학생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발전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

〈2018.2.20. 공주영명고등학교 영명봉황체육관내〉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공주영명고등학교 '영명봉황체육관 준공식'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재학생들의 체력증진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준공된 영명봉황체육관은 태권도와 역도에 미래의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전천후 시설입니다.

또한 학교 체육 수업 내실화는 물론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올림픽 꿈나무 육성은 체육시설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준공식 행사는 체육발전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저 또한 학생들의 체육시설은 물론 학습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 해로 개교 112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새롭게 바꾸는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제자사랑과 열정이 더해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영명봉황체육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 분위기 확산 꾸준한 활약

〈2018.2.20. 공주 신관동 백제새마을금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 새 해를 맞아「민족통일 충남공주시협의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9일부터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리고 계시는'민족통일협의회'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민족통일협의회 가족 여러분!

분단의 시간이 길어져가는 현 상황에서, 민족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꾸준한 활약을 부탁드리며,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공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공주시협의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 또한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잠재력을 스스로 계발하고 봉사하는 단체

〈2018.2.27. 공주 두리웨딩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오늘, 「한국걸스카우트충남 · 세종연맹 임원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걸스카우트충남 · 세종연맹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다,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김정희] 연맹장님과 임원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취임하시는 [홍은진] 연맹장님과 임원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취임하신 [홍은진] 연맹장님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신 분으로, 앞으로 충남 · 세종연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랑스러운 걸스카우트 가족 여러분! 1958년 '대한소녀단 창립'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걸스카우트는 투철한 국가관과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스스로 계발하며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우리사회에 주춧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더욱이 충남 · 세종연맹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꿈을 소신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 사회기여 등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걸스카우트의 명예에 걸맞게 우리사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도민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III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http://council.chungnam.go.kr

지방의 정보화를 선도

〈2016.7.15.〉

「충남신문」이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윤광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창간 8주년을 맞는「충남신문」도 지방의 정보화를 선도함은 물론,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큰 사랑과 신뢰를 쌓아 나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면서, 서해안비전을 선포하고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이 서해안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충남신문」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

〈2016.7.18.〉

「내포타임즈」가 창간 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성신문」은 3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왔으며, 「내포타임즈」는 2012년 8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홍성신문 · 내포타임즈」 윤두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포타임즈」도 내포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내포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충남도의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포타임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

〈2016.8.17.〉

「중도일보」가 창간 6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도일보는 1951년 8월에 창간되어 격동과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 대한민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충청인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스포츠행사, 민속대제전, 분야별 봉사상 시상 등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정신을 함양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내포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도일보 창간 65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며

〈2016.8.19.〉

김진경 충청남도의정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윤석우입니다. 그동안 공주시를 연고로 하는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도민 여러분의 뜻이라 생각하고 도의회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충남도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회원님들의 후배이신 현직 도의원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210만 도민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신 의정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창조의정』이라는 '제10대 충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이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며 예산과 정책 등을 원활히 심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인상'등도 집행부 및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현안입니다. 충남의 모든 의원님들은 물론, 전국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강화하여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도민과 호흡하는 '열린 의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환황해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백제역사문화 및 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서산 민항 유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파를 떠나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지속하고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정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의회는 1991년에 부활되어 사반세기동안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지신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려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가교역할을 의회가 수행해야 합니다. 주민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교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실 제10대 도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 · 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풍요롭고 낭만이 가득한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며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의정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

〈2016.9.2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권 정론지인 금강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언론인 여러분!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창간 10주년을 맞는「금강뉴스」도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큰 사랑과 신뢰를 쌓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금강뉴스」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정신을 함양 기여

〈2016.9.29.〉

「동양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라는 제작정신으로 사반세기의 시간 동안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동양일보」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조철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동양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체육행사, 학술심포지엄 등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정신을 함양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포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충남의 발전을 힘차게 응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동양일보」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지역 정통 언론

〈2016.10.11.〉

「내포시대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참 언론을 추구고자 하는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박해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내포시대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내포시대'는 알찬 정보, 생동감 있는 기사, 독자 중심의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지방언론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다양한 지역민의 여론형성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내포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간 10주년 맞이하는 내포시대가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호흡하며, 지역민의 희망을 찾아주는 내포지역 정통 언론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포민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으며, 충남의 발전에 늘 앞장서는 '내포시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포시대신문사」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

〈2016.10.11.〉

「백제신문」이 창간 1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밝은 생각, 좋은 소식'의 기치로 17년이라는 시간을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 「백제신문」은 충남지역의 종합시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신문 '청양닷컴'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올바른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임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제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청지역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포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충남의 발전을 힘차게 응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백제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유일 장애인 전문지로 다양한 정보 제공

〈2016.10.11.〉

「충남장애인신문」이 창간 1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활 현장을 대변하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탁정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지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해 온「충남장애인신문」은, 2002년 10월 창간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13년 7월에는 인터넷신문「e행복뉴스」를 창간하여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선진국 등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여러 조례를 정비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충남도의 핵심가치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증진하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도민 누구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깊어가는 가을에 창간 14주년을 맞이하는 충남장애인신문이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자

〈2016.11.10.〉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지난 7월,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힘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제14대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이동희 전반기 회장님과 박래학 후반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앞장서 주신 전국의 시 · 도의회 이임 의장님들께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이렇게 서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진정한 도약을 염원하며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했던 지방의회의 역사는 이제 25년이라는 사반세기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나이로 스물다섯 살이면, 군대도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펼치게 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면서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의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전국 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며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치재정권 ·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으며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꾸준하게 소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의장님들과 언제나 긴밀히 협력하며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은 당면현안과제로 삼아야 할 사항이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인상' 등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4대 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들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국 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의회의 힘찬 활동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2016.11.18.〉

반갑습니다.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윤석우입니다.

우리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전국 17개 시 · 도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입니다. 1991년에 임의기관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제15대 전반기 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했던 지방의회의 역사는 이제 25년이라는 사반세기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나이로 스물다섯 살이면, 병역도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게 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파생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독립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보다도 지방의회가 이러한 특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권이라는 실질적인 입법권을 갖고는 있지만, 법률과 국회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대칭적인 권한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만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와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4대 협의회에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나갈 것이며,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 등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결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그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과 내포지역 다각적인 정보 제공

〈2016.12.5.〉

「홍성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성신문」은 3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정한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온 · 오프라인의 시대에 대응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는 「내포타임즈」를 발행하여 내포신도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윤두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발달 등으로 정보의 홍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가치관이 대립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지게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신문」도 충남의 새로운 중심인 홍성과 내포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충남도의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성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길

〈2016.12.15.〉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금강일보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먼저, 「금강춘추」의 발행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윤성국 금강일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2017년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 해였습니다. 침체된 경제여건이 지속되는가운데 연말에는탄핵 정국을맞으며 온국민들이 힘겹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새 해의 시작은 묵은 해의 끝과 맞닿아 있지만, 금년 정유년은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힘차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항상 연구해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의 폭을 넓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의 가장 역사 깊은 언론사

〈2017.2.3.〉

힘찬 새벽을 알리는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정유년에 「충청일보」가 창간 71주년을 맞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일보는 1946년 창간한 이래,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언론 역사의 큰 획을 그으며 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규택 충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이 71이면 망팔(望八)이라고 합니다. 이젠 여든까지 넉넉히 살 수 있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장수(長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충청일보가 광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큰 격변기를 정면으로 맞서가면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이제는 그 역사가 80년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의 가장 역사 깊은 언론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이를 정책을 반영시켜 나가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충청일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청일보의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각적이고 유용한 정보 실시간 제공

〈2017.2.16.〉

따스한 새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에, 충남 대표 인터넷신문인 「C뉴스041」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도내 방방곡곡의 소식을 충실하게 전해주는데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모여 올바른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론을 모아주며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지게 만들어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C뉴스041」도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충남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 번 「C뉴스041」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종합일간지로 발돋움 참 언론의 모습

〈2017.2.16.〉

힘찬 새벽을 알리는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정유년에, '세상을 보는 바른 시선'을 추구하는 「서울일보」가 창간 1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충실하게 전해주는데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모여 올바른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론을 모아주며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지게 만들어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세계는서울로, 서울은세계로'라는기치를내걸고힘차게출발한「서울일보」는이제전국종합일간지로 발돋움하여 참 언론의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노력에 도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면서,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일보」에서도 우리 충남도의회와 언제나 함께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우수 축제 알리는 계기 마련

〈2017.3.15.〉

충청투데이를 사랑하는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찬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의 새봄에, '충청의 축제' 화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권 최대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며 충청권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은 충청투데이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지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데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지면에 담아내며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참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발간하는 '충청의 축제' 화보 책자도, 우리 충남이 자랑하는 지역 축제들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충남은 멋스러운 백제문화의 숨결을 도내 곳곳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갯벌을 품은 서해안과 천년고찰을 안고 있는 명산들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풍습과 특산물을 선보이는 축제들이

사시사철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남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과 농민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주민들이 화합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 곳곳의 축제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멋진 화보로 발간하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이번 화보집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서, 충청권의 우수한 축제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충청의 축제' 화보 책자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충청투데이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및 의료 분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2017.3.20.〉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새봄을 맞으며, 「충청의약뉴스」가 새롭게 창간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라는 정신으로 사반세기의 시간 동안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 「동양일보」에서, 자매 인터넷신문인 「충청의약뉴스」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에 올바르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어 이를 잘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충청의약뉴스」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보건 및 의료 분야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충청인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의약뉴스」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충청인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자리매김하며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살아 숨 쉬길

〈2017.3.27.〉

밝고 건강한 지역 언론 문화의 창달을 위해 앞장서 온 「충남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일보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언제나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이를 정책을 반영시켜 나가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일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를 꿈꾸며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일보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시대 중심지 꿈꾸며 힘차게 정진

〈2017.4.20.〉

충청인의 희망찬 새아침을 여는「충청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충청신문은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면에 채워 주시면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경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언제나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언론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언제나 충청신문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를 꿈꾸며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충청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대 전반기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7.5.10.〉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의 활동 사항들과 주요 동정을 수록하고, 의장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담아내는 「제7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보가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힘차게 출발한 「제15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느덧 일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채워지면서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여러 국내외적인 정치·사회적 격랑 속에서도 언제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신 전국 의장님들과 의원님들께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15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고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겨워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새 희망의

시대를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라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6년에 걸친 지방자치의 경험들은 주민 우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주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스스로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곧 나라의 더 큰 혼란을 막고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 예전 '메르스 사태' 등을 보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방정부가 있었기에,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을 움켜쥐는 중앙집권적 이념보다 자치를 바탕으로 권력을 나누어 상생 발전하는 지방분권에 가깝습니다. 중앙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의 뜻에 의해 펼쳐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 균형발전과 완전한 지방분권을 우선에 두고 각종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되었지만, 국정농단이 문제된 지난 해 말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제 새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국회의원들과 지방 4대 협의체장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으며, 3월과 4월에 걸쳐 서울과 부산, 그리고 충남에서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더욱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걸어 온 길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도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보',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등 당면 과제들을 반드시 관철시켜, 지방의회의 주인인 지역주민 모두가 진정으로 흐뭇해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갑시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협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2017.5.23.〉

밝고 건강한 지역 언론 문화의 창달을 위해 앞장서 온, 중부권 최고언론사인 「충청투데이」가 창간 27주년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투데이는 사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충청권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충청문화를 꽃 피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져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나갈 때에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언제나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충청투데이와 언제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투데이」의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과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언론

〈2017.6.13.〉

충남의 새로운 내포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홍성의 희망언론이자 행복신문인 「홍주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주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홍성과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언론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한관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져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나갈 때에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홍주신문도 홍성과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언제나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홍주신문과 언제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느덧 5년째 맞고 있는 내포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데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홍주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지역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의 국가 발전 중심축 역할

〈2017.7.1.〉

'밝은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월간시사저널 청풍」이 창간 2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실공히 중부권을 대표하는 시사저널의 선두 주자로서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청풍」은 2013년, 2015년,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컨텐츠 기사 우수 잡지'에 선정되었을 만큼 충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오고 있는 자랑스러운 저널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한평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방언론의 역할은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간 27주년을 맞는 월간시사저널「청풍」도 지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에 노력해오며 충청권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청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며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도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서해안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월간시사저널 청풍의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언제나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밑바탕으로 창간

〈2017.7.14.〉

백제왕도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부여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21세기 부여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력한 고대국가로 성장했던 백제의 힘은 각 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서 상생해 나가는 데에 있었습니다. 백제인의 당차지만 온화한 성품 그리고 자신의 개성 있고 수준 높은 문화를 신라, 가야, 왜에 전해 준 국제성과 개방성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동시에 오늘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이고 기풍일 것입니다.

「21세기 부여신문」은 그러한 대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밑바탕으로 창간하여 13년의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동안 참 언론인의 자세로 열심히 정진해 오신 '황규산'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방언론의 역할은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부여신문」도 지역민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애로와 현안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지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21세기 부여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부여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2017.7.19.〉

천안시민이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정론지인 「충남신문」이 창간 9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지역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윤광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창간 9주년을 맞는 「충남신문」도 그동안 지방의 정보화를 선도하면서 지역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애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지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도는 새로운 내포시대와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충남신문」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충남의 힘찬 미래를 위해 노력해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신문」의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의 발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

〈2017.8.1.〉

충남의 새로운 중심인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인 「내포타임즈」가 창간 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포타임즈」는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던 2012년 8월 첫 발행을 시작한 이래 신도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며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홍성신문 · 내포타임즈」 윤두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발달 속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포타임즈」도 내포지역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내포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포타임즈」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정신 함양

〈2017.8.28.〉

「중도일보」가 창간 6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도일보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8월에 창간되어 격동과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 대한민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정론지입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충청인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스포츠행사, 민속대제전, 분야별 봉사상 시상 등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정신을 함양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내포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도일보 창간 66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지역 종합시사지로 자리매김

〈2017.10.10.〉

「백제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밝은 생각, 좋은 소식'의 기치로 사람으로 치면 성년에 이르게 되는 시간을 충청인과 함께 호흡해 온 「백제신문」은, 이제 충남지역 종합시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신문 '청양닷컴'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올바른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이인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제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청지역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해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충남의 발전을 힘차게 응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백제신문」의 창간 18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

〈2017.10.23.〉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충남장애인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생활 현장을 대변하시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탁정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지로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해 온 「충남장애인신문」은, 2002년 10월 창간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7월에는 인터넷신문 「e행복뉴스」를 창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여론을 빠르고 올바르게 형성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여러 조례를 정비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 증진'을 도의 핵심가치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증진하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충남장애인신문」이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대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이정표 제시

〈2017.10.24.〉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충남청하문학회」가 11집 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지역 문학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오시며, 이번의 뜻깊은 문집을 발간하신 박진수 충남청하문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와 문학은, 작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하기 위한 고뇌의 상징이며, 평범하면서도 고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영혼을 통해 잉태된 한 마디 한 구절은 옥과 구슬이 되어 세상을 빛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각종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인간의 가치도 성심이 아닌 물질의 잣대로 가늠되는 척박한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의 정신과 삶의 현상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학은 우리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이정표를 제시하고 새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통하여 우리시대의 갈등과 정신적 결핍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작가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문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충남청하문학회」의 11집 문집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청하문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작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며

〈2017.11.8.〉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활동 사항과 주요 동정을 수록하고 의장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을 담아내는「제8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보가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제15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힘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양준욱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15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해 주시어 일 년여의 시간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이 국민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게 해주는 일 년이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도 참으로 바쁘고 뜻깊게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연 초부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펼쳐진 토론회를 통해 각 계 각 층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에 대해서도 지방이 한 목소리로 힘을 낼 때만이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올바르게 마련될 것입니다.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더욱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사반세기가 넘은 시간을 걸어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도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등 당면과제들을 조속히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협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

〈2017.11.13.〉

「홍성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성신문」은 3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정한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왔고, 2012년부터는「내포타임즈」발행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담아내시는 윤두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의 홍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가치관이 대립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의제로 이어지게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신문」도 충남의 새로운 중심인 홍성과 내포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도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성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6. 7. 1. ~ 2018. 3. 5.)

Ⅳ 언론보도 기고문

http://council.chungnam.go.kr

호남고속철도(KTX), 저속 철도로 만들 것인가

〈2016.10.31.〉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개통으로 시작되었다. 수운이나 우마차, 인력거나 자전거 등에 의존하던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철도의 개통은 가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경인선의 뒤를 이어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러일전쟁의 전쟁물자 공급수단으로 사용된 경의선은 일본군에 의하여 군용 부설철도로 1906년에 개통되었다.

1914년에는 대전과 목포 사이의 호남선이 개통되었고, 1929년에는 조치원과 충주를 잇는 충북선, 1936년에는 전라선, 1939년에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경춘선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우리사회 꿈의 낭보를 울렸던 철도는 남북전쟁으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반도 분단이 결국, 철도까지 멈추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기도 했다.

그런 아픔도 잠시, 철도는 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동력을 발판삼아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증기기관차는 디젤기관차와 디젤전기기관차로 발전하여 오늘날에도 무궁화 열차가 매일 수백 ㎞의 철로를 쉬지 않고 누비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바로 전기를 이용하는 KTX(Korea Train eXpress)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부터다. 당시 KTX 신설은 한국 교통 체계의 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KTX는 속도면에서 비행기 다음으로 빠르고, 안전성에서는 비행기와 선박보다 뛰어나다. 수송면 역시 선박 다음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다. 심지어 기후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빠른'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이처럼 정확하고 빠른 특성을 지닌 KTX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과연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X 일부 구간이 자동차 보다 느린 곳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실제 대전~김천, 천안·아산~오송 등 전국 10여 곳이 저속 운행하는 곳으로 꼽혔다. 경부고속철 KTX 광명~천안아산역 구간은 지난해 136일이나 90㎞ 이하 저속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에는 70㎞이하 서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시속 300㎞ 이상을 자랑하는 KTX가 일부 구간에서 시속 60~90㎞ 밖에 운행을 못한다면 많은 승객은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세종역이 찬란한 백제문화역사의 관문인 공주역과 국내 유일의 분기점인 오송역 사이에 들어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주역과 오송역 간 거리는 44㎞에 불과하다. 시간으로 따지면 10여분 남짓으로 중간에 세종역이 신설되면 22㎞씩 반분하게 되어 44㎞ 거리에 KTX 기차역 3개가 들어서는 국내 유일의 초미니 구간이 된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준용하고 있는 적정 역간 거리 57㎞, 최소 역간 거리 42.7㎞을 크게 벗어남으로써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해 철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호남권 이용객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세종역 신설이 현실화 된다면 고속철도의 기능상실과 함께 운행의 비효율성 유발, 이용객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측면과 지역 간의 갈등 초래 등 수많은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충남 서남부권 개발의 중심지인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로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오송역의 기능저하 등 충청권의 상생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KTX 세종역 신설은 단순히 정치적 공약·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에 함께 힘을 합쳤던 것처럼 충청권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무엇이 진정 국가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꽃

〈2017.1.11.〉

얼마 전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한 식당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선 도의원인 나로서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다.

희망찬 정유년 새 해를 맞으며 본「수요광장」에 함께하게 되어, 이렇게 첫 번째 펜을 들게 되었다. 이 뜻깊은 시작을 이렇게 하려 한다.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그 식당의 사장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과 공감의 영역을 조금이나마 넓혀보려고 한다.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은 공무원 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임용되어 도와 시 · 군에서 각종 공적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정책 시행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의 확충, 주민생활경제 안정 등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곧 210만 충남도민들께서 각자 스스로는 해결하기 힘든 공공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 공복(公僕)이라 일컫는 공직자들을 채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업무가 잘 수행하는지 살피고, 또 공직자들에게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려면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한다. 210만 명 도민 각자가 한 마디씩만 한다 하여도 공직자들은 210만 마디의 말씀을 듣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일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각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나 대신 이러한 일들을 살피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초의원들은 각 시·군의회에서, 광역의원들은 시·도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원들은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열어 공개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각 사안들을 결정하여 시·도와 시·군·구,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등이 일을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

내가 1995년부터 몸담고 있는 도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첫째,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 계획표인 예산을 확정하며,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도청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감독한다. 넷째, 도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일들(청원과 진정)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현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40명의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36명의 지역구 의원들과 4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민 그 자체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개진하며 활동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지방의회는 그 줄기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불리고 있다.

2017년 정유년 올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부문이 많아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한 해 지방자치의 꽃이 진정으로 예쁘게 피어나기를 기원해본다.

닭, 그리고 정유년(丁酉年)

〈2017.2.8.〉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은 봄이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다. 일반적으로는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일로 여기고 있으나,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새해의 기운이 드는 시기로 보고 있다.

올해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인만큼, 닭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와 정유년에 일어났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세계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바로 '닭'이다. 닭은 1년에 26억 마리가 소비된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닭고기는 사랑받고 있으며 종교나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닭고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닭이 국조로 닭 사랑은 유별나다. 17세기 국왕 앙리 4세는 "일요일에는 모든 프랑스 국민이 닭고기를 즐길 수 있게 하라"고 명하기도 했다. 프랑스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닭을 매우 즐긴다. 작년 한 해만 9억 마리가 소비됐다.

과거에는 사위 등 귀한 손님이 오면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기도 했다. 알도 주고 번식도 하는 귀한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는 것은 어렵던 옛 시절 예와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표현이었다.

이렇듯 뭇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닭이지만 닭이 갖는 의미는 식재료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닭의 울음소리는 날이 밝아옴을 알려준다. 시계가 없던 시절 새벽녘, 어슴푸레한 하늘을 향해 우렁차게 "꼬끼오"라 울부짖는 닭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자명종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날이 밝아왔기 때문에 조상들은 닭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상서로운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닭은 십이지 동물 중 유일한 새이기도 하다. 고고한 학도 아니고 전설속의 붕새도 아닌 닭이 십이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닭이 사람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동물이었음을 말해준다. 임금을 상징하는 '새 중의 왕' 봉황도 야생 닭의 모습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닭은 친근하고, 덕이 있으며, 상서로움을 두루 갖춘 동물이다. 이러한 닭의 속성을 갖춘 '붉은 닭의 해' 정유년에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정유년하면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597년의 정유재란이다. 1592년 임진년에 왜국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임진왜란이고, 휴전회담이 결렬되어 재차 조선을 침략한 것이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은 모든 것이 열세였지만 왜군을 국토에서 몰아내고 국난을 극복한 승리의 전쟁이다. 배 열두 척으로 왜선 300여 척을 격퇴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도 정유재란 중의 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정유년이었다.

정유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으로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들 수 있다. 열강의 조선 침탈이 가속화되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당시, 고종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근대화를 위한 발을 내딛는 동시에, 절망적이던 상황에서 희망으로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정유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진 희망찬 해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국내 · 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다. 곳곳에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있다. 닭의 울음이 어둠을 깨고 새벽을 맞이하듯 정유년인 올해 우리나라에도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뜨거운 열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17.3.8.〉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 상황을 걱정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탄핵 정국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신다. 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갈등과 부조리의 상황들은 대통령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30년 전인 1987년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 체계이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서비스가 시작되고 실질적인 마무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앙집중적 행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크기는 작지만 잘 살아가는 선진국의 대표라 일컫는 스위스는 그 성공비결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를 포함한 연방제도'에 있다고 얘기한다. 지방끼리 경쟁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방마다 기업하기 좋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보니,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중앙집권형 국가였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헌법에 규정하고, 자율적인 행정권과 행정입법권 등을 명문화하는

전면적인 지방분권화 개헌을 실시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 후 잠시 내각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바뀌게 되어 국가의 성장을 집중된 권력 체계 하에서 주도하게 된다. 여기에 남다른 성실함과 근면을 지닌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 유래가 없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새 물결 속에서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국가가 모두 관할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역설적이게도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로 인한 기능마비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큰 틀에서의 살림은 국가가 챙기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밀접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역할임을 헌법에서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의 하급기관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패를 겪는 곳도 나올 것이고, 부패로 더욱 망가지는 곳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가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일부 실패사례는 경고기능으로 작동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공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중앙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양극화, 청년실업, 외교, 국방, 경제상황 등 당면한 국가과제들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부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더 이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을 때만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지속될 것이다.

인절미를 생각하며

〈2017.5.10.〉

며칠 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빠 모두 모여 저녁 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모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손주의 재롱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후식으로 여러 주전부리가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한 것은 인절미였다. 부드럽고 쫄깃한 질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고소한 콩고물은 혀를 즐겁게 했다. 손주는 더 달라고 야단법석이었다. 이처럼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인 인절미를 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기에, 오늘은 인절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먹던 인절미지만, 인절미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절미는 조선 중기에 내 고향 공주에서 만들어진 떡이다.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는 신하인 이괄이 일으킨 난을 피해 공주 공산성까지 피난 오게 되었다. 난리 통에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을까. 심신이 지치고 배고픈 임금을 위해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콩고물에 묻힌 떡을 만들어 바쳤다.

인조가 맛을 보니 떡이 참 뛰어나다. "그것 참 절묘한 맛이로구나. 이 떡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지만 처음 보는 떡이니 신하들도 이름을 알 리 만무했다. 이에 '임씨가 만든 절묘한 맛의 떡'이라는 뜻으로 '임절미'라 칭하다가, 발음상의 편의로 '인절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일반 백성이 아무리 맛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들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까. 그저 지역적 명물이 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임금의 극찬 한 번으로 인절미는 조선 방방곡곡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알려진 인절미는 맛도 맛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돋보이는 떡이다. 인절미 고물은 콩가루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흑임자, 깨, 잣 등 먹는 사람 기호에 맞게 묻히기 나름이다. 먹는 방법에도 정답이 없다. 불에 구워먹기도 하고 기름에 지져 먹기도 한다. 조청에 찍어 먹으면 꿀맛이다. 최근에는 인절미와 빙수를 결합한 상품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인절미가 하나의 고물, 하나의 먹는 방법만 가능한 떡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중적인 사랑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갖가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절미의 유래를 되새겨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인절미가 가진 유연함과 포용력으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 지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거는 기대

〈2017.6.14.〉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라는 아직은 조금 낯선 정책이 등장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이 사업의 개념은,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최근,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다음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2017년 3월,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최 모(71세)씨는 경찰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말했다. 구청이 나서서 조사한 결과, 최씨는 앞서 몇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 시장을 지나다 허기에 지쳐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간 것이다.

그의 통장 잔액은 1만원. 시장에서 허드렛일을 해서 번 돈과 기초연금 20만 4천원이 매달 수입의 전부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어 가족도 없다. 게다가 청각장애자다. 이렇게

보면 그는 기초수급자, 법정장애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다. 다행이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나머지 복지 지원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그래서 빵이 아닌 김치를 훔친 대한민국의 현대판 장발장이 되었다.

행정전산망이 세계 수준급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김치를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가 '본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되 혹시 주변에서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 전산화가 잘 되어있고 복지지원체계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복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복지를 제공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청주의 원칙을 유지하되 복지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에서는 후자의 시각에서 복지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하게 될 역할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통합서비스 지원'이다.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직과 자원 활용'이다. 이 · 통장과 봉사단체 등 각종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다.'는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지정책에 대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볼 때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24절기에 깃든 옛 선조의 지혜

〈2017.7.12.〉

지난 7일은 절기 상 '소서(小暑)'였다. '작은 더위'라는 뜻을 지니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또한 이 시기는 주로 여름 장마철에 해당되어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로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했는데, 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때쯤으로 보았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쯤 뒤인 소서 때에 김매기를 했던 것이다. 모 뿌리에 잡초가 얽히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했다. 각자의 논에만 김매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있는 집의 논까지 함께 김매기를 해주는 등 두레의 풍습도 이어갔었다.

그리고 '늦모심기'도 이루어졌다. 하지부터 소서까지 심는 모를 늦모라고 하는데, 오랜 가뭄에 논물이 없거나 일손이 늦어진 사람들이 늦모심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또한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서'를 비롯한 '24절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24절기는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음력은 날짜를 세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날씨의 변화를 잘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를 24등분 한 뒤, 날씨의 변화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원이 360 ° 이기에, 이를 24등분 하면 한 칸은 15 ° 에 해당된다. 즉, 15 ° 만큼 바뀔 때의 상황에 황하 유역 지방의 날씨를 나타내는 용어를 붙여 24절기를 완성한 것이다.

즉, 24절기는 음력을 사용하는 시대에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사실상 양력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졌지만,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정했기에 양력의 날짜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4절기의 날짜는 양력으로 매월 3일에서 9일 사이, 그리고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런데 절기와 절기 사이는 대부분 15일이지만 14일 또는 16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원이 아닌 약간 찌그러진 타원모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15 ° 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물 때'라는 말이 있다. 일곱물이다, 아홉물이다, 하면서 만조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아본 후 고기잡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는 음력이 기준이 된다. 즉 달의 움직임을 갖고 측정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최첨단 기술에도 음력을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력을 도입한 시기가 대한제국 말엽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그런

점에서 양력이 없었던 농경국가 시절에도 24절기를 사용하며 마치 농사일정표처럼 농사짓는 순서와 시기, 방법 등을 제시한 옛 선조의 지혜가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계절별로 각각 6개의 절기를 담고 있기에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모습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4계절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4절기는 결코 급변하거나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옛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는 24절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여러모로 생활에 유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삼복'더위란 없다

〈2017.8.9.〉

여전히 덥긴 하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서서히 끝자락에 들어서고 있다.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더위도 끝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올 해는 초복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6월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왔다. 극심한 가뭄도 겹치면서 온 국민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장마 기간 중에도 30도를 웃도는 고온현상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충북과 충남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농가가 극심한 피해와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막바지 여름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 '삼복' 더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한다.

삼복은 시기상으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있는 '잡절'에 해당된다. 24절기에 속하지 않기에 잡절이라 불리지만, 한자인 엎드릴 복(伏)자에서 보듯이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있는 형상, 즉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때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지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나라 덕공 2년(기원전 676년)에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 견공을 잡아 열독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나쁜 기운과 해충을 막아내자는 뜻으로 복날에 성안에서 삼복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국 세시기'에서 삼복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양반들은 빙표를 받아 나라에서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인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기도 했으며, 백성들은 산과 계곡으로 올라가 발을 담그고 술과 음식을 나누는 탁족을 즐겼다.

예전에는 삼복음식으로 주로 단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반감 등으로 닭에 인삼과 대추, 찹쌀을 넣어 깊게 우려내는 삼계탕이 대표적인 복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한 해의 가장 더운 절기에 나쁜 액운을 쫓고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팥죽을 끓여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아무튼, 우리네 조상은 이 덥고 힘든 시기를 서로의 이웃을 위해 음식과 정을 나누며 보냈기에 기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커진 현대인들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조상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최근에는 삼복더위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워낙에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말복이 지나서도 더위가 지속되기에 삼복이 아니라 오복이라고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여름철 북극의 얼음이 한 달 동안 녹는 양이 남한 면적에 육박한다고 하며,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들은 이미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섭씨 3도가 올라가면 최대 40억 명이 물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기근 피해자도 5억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심각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이 바로 수산생물이라고 한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수산생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보물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평균수온은 지난 40년간 1.3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의 해양평균수온이 0.5도 상승하였다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산물생산의 주종 또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명태가 사라졌기에 시중 동태탕의 원산지는 러시아인지 오래이며, 현재 바닷가에서는 오징어 대신에 낙지가 고등어 대신에 갈치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높아지는 기온과 수온에 맞춰가며 농업과 수산업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기관과 농어업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도전정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2017.9.13.〉

"몸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답하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인삼이다. 만병통치약이라 부를 만큼, 인삼은 질병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혈액순환, 피로해소, 두뇌개발 등에 좋은 영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삼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나 인삼 중의 인삼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려인삼 재배지로는 금산, 풍기, 제천, 강화 지역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금산 인삼은 가장 유명하고, 또 최고로 꼽히는 인삼이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인삼이다. 금산 인삼이 이토록 최고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그 재배 역사가 유구한 까닭이다. 금산에는 개삼터라는 곳이 있다. 인삼 재배가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 시기가 무려 1,500년 전이다.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인삼을 기르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곳이기에 그만큼 좋은 인삼을 생산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약재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삼의 약효는 주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온다. 이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인삼으로 치는데, 금산 인삼은 사포닌 종류와 함량이 인삼 중 으뜸이라 한다.

이렇게 뛰어난 약효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금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이다. 인삼은 재배가 무척 까다로운 작물로, 서늘하고 그늘지며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만 자란다. 금산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인삼이 좋아하는 서늘하고 그늘진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토질 또한 사양토질로 배수가 원활하다. 말하자면 인삼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셋째, 전국 인삼의 유통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의 80%가 금산으로 집결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인삼 가공 역시 대부분 금산에서 이루어진다. 유통량과 인삼 가공에서 타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명실상부한 인삼의 허브다.

넷째, 금산 인삼을 세계 최고로 브랜드화하려는 충남도와 금산군의 노력 때문이다. 더욱 좋은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삼약초연구소를 설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년 인삼축제를 열고 4년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인삼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단일 품목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엑스포까지 꾸준히 개최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오는 9월 22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게 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인삼은 물론 생산자재 및 기술, 그리고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미용 제품들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등이 펼쳐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인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 퍼레이드, 인삼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 인삼캐기 체험 등을 마련해 누구나 인삼의 긍정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금산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지구촌에서 첫째가는 웰빙 건강 도시, 명실상부한 인삼 교역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백제문화, 그윽한 향기를 만나다

〈2017.9.14.〉

'천리물길 비단강'인 금강이 유유히 감싸며 흐르고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 국가였던 백제왕국의 찬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과 유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숨 쉬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8일 대한민국의 12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백제 후기 8개 유적들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8개 유적지 중 6개가 웅진시대(475~538년)와 사비시대(538~660년)에 백제의 왕도가 위치해 있었던 공주시와 부여군에 분포해 있다.

백제문화제는 이러한 백제왕도의 중심지역에서 63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백제역사의 실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대왕국의 탁월한 예술미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고 있다.

올 해 「제63회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이번 주제는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백제의 진취성과 개방성, 창조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97개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벅찬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막식은 9월 29일 공주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일본에 기악무를 전파했던 미마지를 소재로 한 '한류백제 미마지 미디어아트쇼' 등 신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선보이게 된다.

공주시는 금강변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그리고 주변 시가지 등에서 다채로운 볼거리가 진행된다. 관람의 백미는,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백제한화불꽃축제'이다. 중부권 최대의 규모의 불꽃이 3막으로 펼쳐지게 되며 금강의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공주시 8개 읍 · 면 · 동을 비롯해 시민, 대학생, 다문화가정, 관광객 등이 흥겹게 참여하는 '웅진성퍼레이드', 금강위에서 펼쳐지는 실경공연인 '웅진판타지아', 백제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는 '백제마을고마촌', 백제교류국 사절단 모습을 재현하는 '대백제 교류왕국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여군은 정림사지를 중심으로 주변 시가지와 구드래공원,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등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부여 축제 프로그램의 관람 포인트는 역사와 문화의 재현에 있다. 백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백제역사문화행렬'은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거리축제로 재구성한 행사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백제문화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삼충제와 수륙재는 195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시원 프로그램이며,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가장 깊게 담고

있다. 그리고 663년 금강하구에서 백제-왜, 신라-당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백강전투를 테마로 구성한 서사뮤지컬인 '백강의 노래', 제26대 성왕의 사비성 천도를 재현하는 '백제사비천도행렬'과 사비백제의 번영을 기리는 '백제사비정도고유제'등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년도의 백제문화제는 지난'2010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의미를 이어가면서, 2021년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칭 '백제문화제엑스포'를 한걸음씩 가시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 특히 백제문화제엑스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제행사 승인과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덧붙이면서 이번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백제문화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이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이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재된 백제유산에 대한 확장 등재는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백제 유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추가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관계 기관의 지원과 도민의 큰 관심이 더해진다면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과 전라도를 아우르는 백제문화제의 더 큰 발전이다. 현재도 우리의 백제문화제를 모티브로 하여 서울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익산에서는 '서동축제'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공주와 부여가 중심이 되어 서울과 익산을 아우르는 더욱 성대한 백제문화제가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녹고 있는 서해 바다

〈2017.11.7.〉

입동이 지나며, 따끈따끈한 군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겨울철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쁜 꽃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던 나무들은 오색 단풍을 드리우다가 잎사귀들을 떨구기 시작했다. 어김없이 계절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맞닿은 서해에서는 반대로 겨울을 맞으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2017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5년, 사반세기가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데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 서해바다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하여, 여름과 가을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10월 말, 한중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하게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얼어붙었던 바다가 조금씩 녹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각 기업체와 관광업계 등에서 반색을 하며 움츠렸던 대중국 관련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당초,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룽옌항 간 국제여객선'이 역사적인 첫 취항을 하려 했던 시기가 올해 가을이었다. 과거 2010년도에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정기항로를 개설하기로 확정하면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3년도에 한중국제여객선 취항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추진 의지를 담아 충남도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서산시와 선사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 후 2016년도까지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공사를 하며 기반조성이 마무리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에 '국제여객선 취항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등 취항을 목표로 여러 기관의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공들여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사안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드 갈등으로 인해 취항이 무기한 잠정 연기되는 아픔을 인내하며 조속하게 추진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지금 서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소식은 서산시는 물론 우리 도민 모두에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제여객선 취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객 선사 등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드문제 등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언제든 바로 국제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대산항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중국 간 인적 · 물적 교류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 걸쳐 많은 유동인구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항만에서의 직접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 및 가공업, 그리고 각종 소비 촉진 등 간접 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 분야가 활성화되며 지역경제가 큰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백제문화, 온천, 갯벌 등 관광 및 체험코스를 연계한 형태로 상품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빛나는 공주와 부여 등의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1월, 중국 곤명에서 있을 한중 해운회담이 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계 부서에서는 보고 있다. 녹고 있는 서해바다의 얼음이 따뜻한 순풍이 되어 불어와 서해안시대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본다.

세밑을 맞는 지방의회에 대한 단상

〈2017.12.13.〉

세밑이다. 음력 섣달 그믐을 뜻하는 '세밑'은 오늘날에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라는 뜻으로 두루 쓰이고 있다. 옛날, 섣달 그믐날 밤에는 방이나 마루, 부엌, 다락, 뒷간, 외양간에 불을 밝게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해서, 밤새 눈썹을 세는 날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는, 섣달 중의 경신일(庚申日)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는 도교(道敎) 장생법의 하나인 경신수세(庚申守歲)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사람 몸에 기생하던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을 빠져나와 옥황상제에게 지난날의 죄를 고해 바쳐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삼시충이 옥황상제께 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신앙의 한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세밑이 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며 잘못했던 점은 뉘우치게 되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리고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뜻깊은 시기라는 점도 같았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왔다. 필자 또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참으로 열심히 정진하여 온 시간들이었다.

올 해는 특히,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이 국민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게 해주는 일 년이기도 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11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113건의 조례를 비롯해 총 18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81개 기관에 대해 총 359건에 달하는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여섯 개의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위'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펼쳐 항상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소중한 시기였다.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연초부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펼쳤고, 이를 통해 각 계 각 층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에 대해서도, 지방이 한 목소리로 힘을 낼 때만이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올바르게 마련될 것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허용' 등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꼭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는 '민선 7기 충청남도'와 '제11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다.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방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모두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도록 관심을 높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해본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2018. 3. 15. ~ 2018. 6. 30.)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충남도립대 비전선포식 (2018. 3. 19.)



▶▶ 충남통합방위회의 (2018. 3. 22.)



▶▶ 유익환 의장 기자 간담회 (2018. 3. 29.)



▶▶ 김부겸 행자부장관 접견 (2018. 3. 30.)



▶▶ 순직소방관 합동 영결식 (2018. 4. 2.)



▶▶ 303회 임시회-1차 본회의 (2018. 4. 3.)



▶▶ 303회 임시회-1차 본회의 (2018. 4. 3.)



▶▶ 충남수산인한마음대회 (2018. 4. 7.)



▶▶ 유관순상 시상식 (2018. 4. 9.)



▶▶ 예산군 신청사 개청식 (2018.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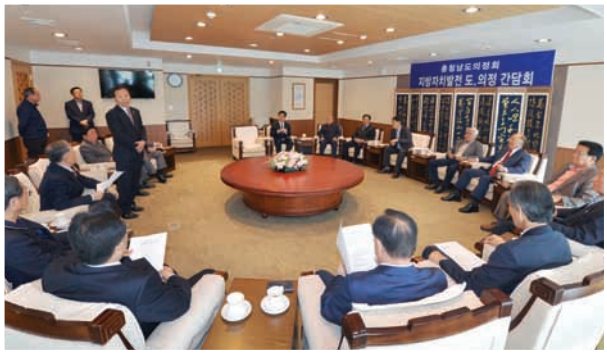
▶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2018. 4. 13.)



▶ 해상해난 합동훈련 (2018. 4. 16.)



충남도서관개관식 (2018. 4. 25.)



지방자치발전 의정간담회 (2018. 5. 3.)



부처님오신날 관불의식 (2018. 5. 2.)



장애학생체육대회 충남선수단 발대식 (2018. 5. 9.)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2018.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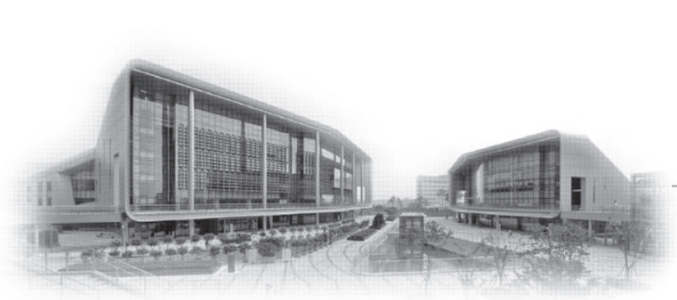
현충일 추념식 (2018. 6. 6.)



▶▶ 의정결산기자회견 (2018. 6. 18.)



▶▶ 6 · 25전쟁 68주년 기념행사 (2018. 6. 25.)



목 차

CHAPTER I
원내외 의정활동

I - 1. 개회사 ····· 651
- 제303회 임시회 / 2018.4.3. ····· 653
- 제304회 정례회 / 2018.6.18. ····· 658

I - 2. 그 외 활동 ····· 663
- 제10대 후반기 의장 당선인사 / 2018.3.15. ····· 665
- 충남도립대학교 개교20주년 기념식 / 2018.3.19. ····· 667
-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2018.3.22. ····· 669
- 충남도서관 개관식 / 2018.4.25. ····· 670
- 제10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 / 2018.6.18. ····· 672

CHAPTER II
도민과 함께

2018년도 ····· 677
- 국가유공자 장례의전지원 선양단 발대식 / 2018.3.21. ····· 679
- 제26회 태안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전진대회 / 2018.3.28. ····· 681
- 제36회 충청남도 연극제 / 2018.3.29. ····· 682
-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제 / 2018.3.31. ····· 683
- 2018년 충청남도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 2018.4.2. ····· 685
- 제1회 충남수산인 한마음대회 / 2018.4.7. ····· 687
- 민병갈 박사 서거 16주기 추모식 / 2018.4.8. ····· 689
-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 / 2018.4.9. ····· 690
-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취항식 / 2018.4.12. ····· 691
- 2018년 태안소방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 2018.4.12. ····· 693
- 제1회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연극제 / 2018.4.12. ····· 694
- 2018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 2018.4.13. ····· 695
- 2018 해상재난 합동훈련 / 2018.4.16. ····· 696



CONTENTS

CHAPTER II
도민과 함께

- 2018년 제7회 태안 세계튤립축제 / 2018.4.20. ····· 698
-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5회 장애인 어울림 축제 / 2018.4.24. ····· 700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남도지부 제20주년 창립기념식 / 2018.4.27. ····· 701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 법회 / 2018.5.2. ····· 703
-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 2018.5.9. ····· 704
- 공주라이온스클럽 창립 제50주년 기념행사 / 2018.5.12. ····· 706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기념식 / 2018.5.18. ····· 707
- (사)좋은이웃 창립14주년 기념 어르신섬김 "효실천"행사 / 2018.5.29. ····· 709
- K-WATER 충청현대화사업단 개소식 / 2018.6.4. ····· 711
-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 2018.6.5. ····· 713
-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 2018.6.14. ····· 715
-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개관식 / 2018.6.25. ····· 717

CHAPTER III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언론사 등 창간 · 발간 축사 ····· 719

- 충청남도의정회보 제9호 발간 / 2018.4.20. ····· 72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 제9호 발간 / 2018.5.15. ····· 724
- 태안신문 창간 28주년 / 2018.5.17. ····· 727

CHAPTER IV
언론보도 기고문

언론보도 기고문 ····· 729

- 중도일보 월요아침에 기고문 / 2018.5.21. ····· 731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I 원내외 의정활동

http://council.chungnam.go.kr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Ⅰ

원내외 의정활동

Ⅰ-1 개회사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실현되길

〈2018.4.3. 본회의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도지사권행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봄기운이 넘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의 민생현장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주 아산소방서에 재직하시다 소방임무수행 중 꽃다운 나이에 순직하신 세분의 소방관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깊은 위로와 애도에 마음을 전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소방공직자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도로상의 현장 안전조치

등 미흡한 점이나 제도 개선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려 다시 한 번 전 세계가 화합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는 충남의 아들로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도지사 궐위사태로 많은 도민들께서는 걱정과 함께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도정의 거품들을 거둬냄으로써 한 치의 행정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0여년 가까이 끌어온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는 소식에 또 한번 실망감을 느끼면서 본계약 무산에 이르기까지 준비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재개에 대한 승인이 '보류'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내포신도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16개 항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6조 3천억 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신속 시행'이라는 3대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개헌은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도 벌써 4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도민과 약속했던 주요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사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보다 적극적인 영농시책들을 추진해 풍년농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봄철 산불 예방에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도민들의 철저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이면 충남도서관이 개관합니다. 도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자 내포신도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4월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 가는 시간이면서도 학교폭력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도합니다.

안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지도와 관리를 다하여 주실 것을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6 · 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선거준비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나 공직자의 선거개입 또는 엄중한 선거중립 위반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 간 도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

〈2018.6.18. 본회의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럽고 짙푸른 초록이 가득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당선여부를 떠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민생현장을 찾아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04회 정례회는 지난 2014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충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제10대 도의회 기간 동안 726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244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모임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공부하는 의회 상도 정립해 나갔으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촉구'등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민의 뜻과 지역 여론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갔으며,

더욱이 '전국체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뉴저지주'와 중국 '지린성' · '윈난성' · '헤이룽장성'등 4개 의회와 새롭게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4개국 10개 지방의회와의 끈끈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는 등,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서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쉬움도 남지만 제11대 의회에서는 제10대 의회의 성과를 교훈 삼아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회가 성숙한 의회 상을 구현하고 여러 일들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고귀한 소임을 다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빈틈없이 수행해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9일 간 각종 조례안 처리와 2017 회계 연도 결산 심사,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철저한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 심사로 제10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작은 충고에도 귀 기울이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변화하는 제11대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22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Ⅰ

원내외 의정활동

Ⅰ-2 그 외 활동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갈 것

〈2018.3.15. 본회의장〉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먼저, 사임하신 윤석우 전 의장에 이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지금 이 순간 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비록 짧은 의장직 임기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안희정 전 도지사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충격에 빠져 매우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10대 의회를 누수없이 잘 마무리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출해주신 220만 도민을 위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경륜 높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은기간 2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원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당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

〈2018.3.19.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새 봄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도립대학교 개교2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 1998년에 개교한 이래, 20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학에서 쌓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공직자를 700여명 이상 배출하여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의 상아탑이자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대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유수대학들과 협약을 체결, 복수학위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양성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어 충남도립대에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지속되어 도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명문 대학으로서 그 명성이 더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남도립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도립대학교 개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 보호와 개선을 위해 노력 절실

〈2018.3.22.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봄을 재촉하며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틔우는 오늘,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특히 꽃과 바다의 고장이자 저의 고향인 태안에서 성대히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는 지금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로 인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물은 공기와 같이 필수한 존재로 물을 사먹는 시대에 안정된 물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물의 날을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매년 겨울과 봄에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절약 그리고 지혜로운 활용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가뭄 극복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강-보령댐 간 도수로 설치, 광역상수도 보급확대, 해수담수화시설 사업 등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행사는 소중한 생명'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지역 물관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실천과 다짐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역할 다하길

〈2018.4.25. 충남도서관 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봄정취가 물씬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오늘, 도민의 희망을 담아 건립된 행복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음을 시작하는, 「충남도서관 개관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충남 지식정보의 중심, 행복이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내포신도시 주민과 도민에게 도서의 향기가 가득한 충남도서관이 개관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에는 별다른 문화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대전이나 천안 등 대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개관을 통하여 도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내포신도시가 충청남도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소장하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서관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많은 공공 도서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 지원기능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어 우리도 문화예술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게 될것입니다.

모쪼록 충남도서관이 개관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힘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남도서관이 내포신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

〈2018.6.18. 도의회 브리핑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4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도의회는 4년간 총 34회 485일간의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활동 사항을 언론인 여러분과 220만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22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

제10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를 비전으로 도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연구모임, 의정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민의를 파악하는 노력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면,

정례회 9회와 임시회 25회, 총 34회 485일간의 회기를 통해, '725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196건을 포함해 총 473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332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223건 등 총1,629건에 달하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275건의 '5분 발언'과 413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정책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0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실례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위'의 활발한 활동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뉴저지주'와 중국 '지린성' '윈난성' '헤이룽장성' 등 4개 의회와 새롭게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4개국 10개 지방의회와의 끈끈한 국제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2016년 4월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는 등,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총 63회에 걸쳐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7개의 연구모임에서 총 63회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가졌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여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 122개교 5,6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본회의 개방을 통해 3,844명의 도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제10대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쉬움도 남지만, 제11대 의회에서는 제10대 의회를 교훈 삼아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10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의회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하고 다양한 도민의 뜻을 헤아리고자 최선을 다한 의회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작은 충고에도 귀 기울이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변화하는 제11대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4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Ⅱ 도민과 함께

http://council.chungnam.go.kr

Ⅱ

도민과 함께

2018년도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다지는 고귀한 첫걸음

〈2018.3.21. 충남도청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생명의 봄기운이 기지개를 펴는 오늘, 「국가유공자 장례의전지원 선양단 발대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크고 작은 전투에 참전하여 풍전등화와 같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호국의 영웅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송일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청남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일권]지부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선배의원님(5대)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었기에 더욱더 감회가 남다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조국과 겨레를 위해 값진 젊음을 바쳤고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여러분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한 희생 뒤에 국가유공자분들은 정작 돌아가실 때는 외롭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서는 2013년부터 고인의 영혼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정중한 장례의전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일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대식은 우리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다지는 고귀한 첫걸음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정성어린 장례의전 지원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표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 장례의전지원 선양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청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

〈2018.3.28. 태안군민체육관〉

농업경영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우리 농업인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한마당인 「제26회 태안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 에서 많은 도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직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은 아무리 첨단산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미래성장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결코 자본주의와 시장논리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힘차게 뒷받침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농업경영인 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겁고 뜻 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하면서, 「한국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향토문화예술의 밑거름

〈2018.3.29. 서산시 문화회관〉

연극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새봄을 시작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제36회 충청남도 연극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우리지역 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승원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로 서른여섯 번 째를 맞는 충남연극제는 지역 연극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연극문화의 확산을 통해 충남의 향토 연극예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일간 5개 시 · 군을 대표하는 극단이 지난 1년간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연극제에 참여하게 될 충남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20만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예술성 높은 공연들이 펼쳐져, 우리지역 연극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연극은 우리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명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지역의 연극은 지역주민의 생활상과 가치관, 그리고 남다른 애향심을 표출하는 귀중한 향토문화예술의 밑거름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주민에게 연극을 알리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충남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문화 예술인들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2018.3.31. 서산시 해미읍성 내 특설무대〉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 봄의 싱그럽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에, 지역의 자연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이 될「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역사의 숨결이 숨 쉬는 이곳 해미읍성에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조항오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문화 유산 중 산수의 온갖 풍경을 닮아 아름다운 빛과 형상의 다양함을 담고 있는 수석은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소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자연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일은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노력과 미적 안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 분재, 서각 등의 전시회도 지역 예술인들의 정성어린 작품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이 감상하며 여유로움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특히, 본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교황이 다녀간 천주교의 성지인 해미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내포지역 자연문화 예술인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 인구 확대와 관련 시설 확충에도 함께 노력

〈2018.4.2. 현대더링스C.C〉

골프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가득한 오늘, 「2018년도 충청남도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가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내 골프 동호인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생활체육으로서의 골프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유승훈 충청남도 골프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스포츠는 문화,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며 함께 발전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전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성 함양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동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의 한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0만 도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로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골프

인구의 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아울러 아름다운 태안 지역의 봄의 정취를 물씬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골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수산정책 절실

〈2018.4.7. 태안군 만리포 공영주차장〉

수산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우리 수산인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한마당인 「수산인의 날 기념 제1회 충남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특히 유류피해를 극복하고 청정 태안으로 거듭난 이곳 만리포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다는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수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국민에게 식량 공급원이 되는 중요한 식량 산업이며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이자 국가적 기간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도 20만 수산인 생계와 직결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만큼, 우수한 수산자원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수산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천혜의 청정 바다와 갯벌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육성,

어촌관광 활성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수산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지역 수산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고된 일상은 잠시 잊고 수산인 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겁고 뜻 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하면서,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故 민병갈 박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추모

〈2018.4.8. 천리포수목원 밀러가든 내 추모식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오늘, '서해안의 푸른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곳 천리포수목원에서 「민병갈 박사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태안의 헐벗은 산림을 15,800여 종류의 식물 등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일궈내신 故 민병갈 박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추모합니다. 故 민병갈 박사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출생으로 사재를 털어 척박했던 태안에서 1962년 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천리포수목원의 오늘이 있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한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며, 더구나 식물 전문가도 아닌 그가 국제적인 수목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식물에 대한 열정과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천리포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수목원전문가양성교육 및 산림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식물을 수집 · 보전하여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식물 연구 · 교육에 힘쓰는 등, 故 민병갈 박사의 유훈을 받들어 사람들에게 자연사랑 정신을 심고 창의적 영감과 행복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땅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자연사랑과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故 민병갈 박사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순 열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상

〈2018.4.9. 충남도청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새봄의 완연한 기운이 가득한 오늘,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되새겨 보는,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유관순상 대상자로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온 도민의 뜻을 모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독립만세를 부르다 모진고문과 옥살이로 꽃다운 나이 열여덟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그 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자유와 평화는 유관순 열사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진정한 평화의 정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상식은 독립의 횃불을 밝힌 유관순 열사의 헌신적인 희생을 되새겨 보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관리 전천후 역할 기대

〈2018.4.12. 보령시 대천항 관공선 부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봄의 향기가 가득한 오늘, 우리 서해바다의 자랑스런 파수꾼으로 첫발을 내딛는「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 취항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도에서 아름다운 항구로 대표되는 대천항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바다는 미래 식량 자원인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 증가와 함께 해양활동도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해상에서의 위험도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취항하는 "충남해양호" 는 우리지역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로 단속,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의 우수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에 전천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한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우리도를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도 하게 될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은 기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어업인 여러분의 인식변화와

자발적인 어업질서를 준수하고 실천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충남해양호가 우리 어선과 어민들의 친절한 협조자이자 반려자가 되길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님들간 결속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

〈2018.4.12.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과 소방가족 여러분! 화창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오늘,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능력 향상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18년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환황해 서해안 시대의 중심 태안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오늘날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 불안 요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고장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잘 보듬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처우개선과 편의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펼쳐지는 기술경연의 자리에서 그동안 연마하신 기량과 실력을 뽐내시고 이어지는 화합의 자리에서는,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대원님들간 결속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보길

〈2018.4.12. 충남도청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투명한 이슬을 머금은 이봄에, 「제1회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연극제」가 유관순 열사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이곳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애국정신을 가슴깊이 새겨 유관순 열사의 정신계승을 위해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연극제 행사를 마련하신, 정승택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연극제는 독립만세를 부르다 모진고문과 옥살이로 꽃다운 나이 열여덟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1독립만세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각국에서도 깨달아야 할 진정한 평화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평화정신의 세계화에 노력하시는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렇듯 이번 연극제는 지역의 연극예술을 애국정신으로 승화하고 독립의 횃불을 밝힌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보는 아주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며, 여러분들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은 건강한 삶 유지 첩경

〈2018.4.13.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8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자연생태 휴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이곳 서천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아낌없는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가장 못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00세 시대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지금, 건강한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지금처럼 생활체육에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여가활동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철저한 대비 지속하는 것이 중요

〈2018.4.16.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바다가 봄을 마중하는 활기가 느껴지는 오늘, 「2018년 해상재난 합동훈련」을 우리도에서 관광명소 항구로 대표되는 이곳 신진항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테러와 사회적인 재난, 그리고 자연이 가져다주는 재난 상황들은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단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아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현장의 통합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긴급구조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이 공조를 돈독히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지휘와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훈련은 해상 낚시어선 충돌에 의한 다수 사상자와 선박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을 위해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300여명의 단체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의미가 깊은 종합훈련입니다.

또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주기가 되는날로, 4년전 일어났던 참사를 거울삼아 사전에 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의 훈련을 통하여 해상재난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재난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상재난 합동훈련에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즐겁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축제

〈2018.4.20. 코리아플라워파크 무대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푸른바다가 넘실거리는 오늘, 꽃의 향연을 펼치는「2018년 제7회 태안 세계튤립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지난 2002년과 2009년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과 태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이곳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태안 튤립축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세계 튤립 정상회담(WTS)에서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되어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꽃으로 피어난 바다, 대한민국이 빛나다'라는 주제로 일상 속 친근한 동물들의 모습 등을 튤립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멋을 선사하고, 야간에도 빛축제를 개최하여 자연 본연의 모습이 빛과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축제를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더욱 즐겁고 흥겨운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이토록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축제가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의 비경을 뽐내고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더욱더 사랑받는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회 태안 세계튤립축제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2018.4.24. 태안군민체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꽃들이 서로를 시샘하듯 만개한 오늘,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5회 장애인 어울림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그 불편함들이 결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과 자기성취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태안의 지체장애인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자활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초석, 세계평화의 수호자

〈2018.4.27. 충남도서관 별관 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록달록 사랑스런 꽃들이 서로의 향기를 뽐내는 오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 제20주년 창립기념식」이 행복충만 문화공간으로 발돋음을 시작하는 이곳 충남도서관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참전용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32만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십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은 위대한 금자탑으로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엽제 참전용사분들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역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는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베트남 참전의 참뜻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1993년 고엽제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난치병과 맞서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창립기념식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이 우리사회에 고귀한 가치로 뿌리내리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복리를 증진하며 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다함께 만들길

〈2018.5.2. 도청 본관 1층 로비〉

사랑하는 불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점등 법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먼저, 석가세존의 높으신 자비의 뜻을 전해 주시며 충남 발전에 앞장서 오신, 수덕사 [옹산] 큰 스님과 [정묵] 주지 스님, 마곡사 [원경] 주지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의 주지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조한영] 충남도청 불자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웃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가는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하는 「연등 점등 법회」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불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배양’과 ‘자존감 향상’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2018.5.9. 충남교육청 대강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아름다운 낭만과 활력이 넘치는 이 시기에,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 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힘찬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체육’은 건강증진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스포츠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상호협력과 소통 그리고 교감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기에 인간의 고귀한 정신문화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장애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적극적인 사회성을 함양하고 신체적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아님을 인식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열어가며 특히 장애학생들에게는 자기극복을 통한 ‘자신감 배양’과 ‘자존감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나가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자이며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의 아들로, 우리나라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와 오늘의 뜻깊은 결단식을 함께하게 되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부디 승패를 두려워말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시면서, 충남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지도교사님과 부모님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20만 도민과 함께 충남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 드리면서, 장애학생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11개 종목, 2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아(超我)의 봉사를 몸소 실천

〈2018.5.12. 공주라이온스클럽〉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공주라이온스클럽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참다운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해 오신, 이봉구 공주라이온스클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8년에 창립한 공주라이온스클럽은 "힘있는 라이온이 되자"는 구호아래 그동안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을 위해 초아(超我)의 봉사를 몸소 실천하여 봉사단체로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크고 작은 봉사 활동을 50년간 펼쳐 오셨기에 이제는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흔적을 지역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50년 활동보다 앞으로 5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무궁한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둡고 소외되어 있는 곳을 찾아 적극 봉사함으로써 이웃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공주라이온스클럽이 이번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적인 봉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

〈2018.5.18. 충청남도 문예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가정의 달 5월에,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기념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아울러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2년 제1회 식중독예방홍보 캠페인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식품관련 업체 · 공공기관 · 학계 ·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식품(食品)이라는 한자를 보면, '의식주'의 식(食)자와 입 구(口)자가 세 개 모인 물건 품(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품(品)자는 '식품', '물품', '품격' 등으로 쓰이는데

물건이나 사람들을 세 명 이상이 평가하여서 제 자리에 위치시킨다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드러나 있는 글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인 '먹거리 문제'도, 품(品)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소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 올바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기념행사 참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문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열일곱 번째 「식품안전의 날」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실현하는데 앞장서와

〈2018.5.29. 온양온천역 광장〉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5월의 끝자락에, 사단법인좋은이웃 창립제14주년 기념 어르신섬김 "효실천"행사가 이곳 건강도시 아산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소당 사단법인 좋은이웃 중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좋은이웃」은 '시골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대청소'등을 시작으로 '차상위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각종 재능기부사업' 등을 진행해 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또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민족전쟁이라는 질곡의 역사속에서 나라와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효 사상을 정립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어르신섬김 "효실천"행사로 진정한 "효"를 다시금 상기하며, 어르신들이 즐겁게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좋은이웃」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 추진 단초 제공

〈2018.6.4. 내포신도시 센텀시티 7층〉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싱그럽고 짙푸른 녹음이 더해지는 계절에 「K-WATER 충청현대화사업단」이 환황해 중심 도시 내포신도시에서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사업단이 개소하기 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병돈] K-WATER 금 · 영 · 섬 권역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로 인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물은 공기와 같이 필수한 존재로 물을 사먹는 시대에 안정된 물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K-WATER 충청현대화사업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수도현대화사업, 대산해수담수화 사업,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보령댐 도수로 운영 등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충청현대화사업단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우리지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깨끗한 물 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한 물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의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어 무엇보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청현대화사업단의 물관리 정책 사업들이 도민에게 항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K-WATER 충청현대화사업단」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사업단과 함께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노력을 지속해야

〈2018.6.5. 도청 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 도민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각국이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뒤,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일상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물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특히 우리 인류는 쾌적한 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 보존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이며, 인류의 문명도 '개발에서 보존'으로, 그리고 '성장에서 지속' 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는 백제문화의 깊은 멋을 간직한 자연친화적인 지역인 동시에, 각종 첨단산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전국 어느 곳 보다도 자연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며, 오늘 함께하신 환경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각종 환경보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소중한 행사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공감과 인식개선 필요

〈2018.6.1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먼저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로 자림매김 하고 있는 이곳 계룡시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도내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오복경]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진정수]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아낌없는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증가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순이며 더구나 70%가 가족으로 발생장소 역시 가정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자 미덕이었던 경로효친 사상은 사라지고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쉬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의 주 원인이라 여겨지는 '노인일자리문제'와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노인 인권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과 인식개선 선행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대응 등이 뒷받침 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는 노인 인권 보호는 물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두 번째로 열리게 된 이번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과 보은의 유산 깊이 새기는 노력은 우리의 몫

〈2018.6.25.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앞〉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짙푸른 녹음이 더욱 아름다운 오늘, 도민의 열망을 담아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보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발돋음을 시작하는,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개관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의 개관식이 있기까지 혼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백대기] 충남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지난 100년의 우리 근현대사를 뒤돌아 보면, 암울했던 국권침탈과 민족전쟁이라는 질곡의 역사속에서도, 세계무역수출 7위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등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축복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참전영웅, 그리고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6.25전쟁 제68주년과 보훈관 개관식의 자리에 임하며 다시 한번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기억과 보은의 유산을 깊이 새기는 노력은 우리의 몫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충남보훈공원 보훈관은 국가유공자에겐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에게는 애국애족의 호국의지를 심어주는 소중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에 보훈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관을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III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http://council.chungnam.go.kr

제10대 충청남도의회를 마무리하며

〈2018.4.20.〉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근 충청남도의정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도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도민 여러분의 뜻이라 생각하고 도의회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비록 짧은 의장직 임기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 3년(2014. 7. ~ 2017. 7.)간 5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134건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29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올 해는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고 「제11대 도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10대 의회를 누수없이 잘 마무리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도지사 궐위사태로 많은 도민들께서는 걱정과 함께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난 민선 5·6기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도정의 거품들을 거둬들이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문제사업에 대한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을 깊게 살펴봄으로써 다음 사람들이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신속 시행'이라는 3대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개헌은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겠지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도의회에서도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정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버팀목이자 선구자이신 의정회원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에 경의를 표하면서 선배님들의 고귀한 조언과 걸어오신 훌륭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220만 도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꽃의 향연이 가득 펼쳐지는 이 봄에,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유종의 美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충청남도의정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지방의회를 소망하며

〈2018.5.15.〉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익환입니다.

우선 전국 시 · 도의회 활동 사항과 주요 동정을 수록하고 의장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을 담아내는「제9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보가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유종의 美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서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임기이지만 산적한 도정 현안을 22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제10대 의회」가 마감되고「제11대 의회」가 힘차게 개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10대 의회를 누수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충남도정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이어왔습니다.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등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화, 산업적인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환황해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3지구 개발 역시 좌초되어 위기를 맞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면서 자치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개원하는 「제11대 의회」에서는 여전히 요원한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구체화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 · 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렇듯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의회의 유종의 美를 다짐해 보면서, 의회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고, 미래로 도약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도의회와 함께 충청남도의 미래를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 방안 공유하는 태안소식의 선봉장

〈2018.5.17.〉

「태안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태안신문」은 1990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하며 28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면을 채워 주시는 박철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앙언론의 위력, 디지털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지역 특유의 관심과 이슈를 전달하며 비판과 감시를 하는 등 지역 언론의 순기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안신문」은 지방자치의 부활과 맥을 같이해 오면서 지나온 28년의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며 지역 언론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태안신문」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태안 소식의 선봉장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태안신문」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의 정론직필 언론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신문사로 나날이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장 연설문집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8. 3. 15. ~ 2018. 6. 30.)

Ⅳ

언론보도 기고문

http://council.chungnam.go.kr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다짐하며

〈2018.5.21.〉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다. 힘차게 출발한 제10대 충남도의회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를 반증하듯 제10대 의회에서는 현재까지 695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235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모임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갔으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촉구'등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역 여론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갔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국체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등 굵직한 국내외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큰 발판이 되었다.

특히,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나갔다. 미국 '뉴저지주'와 중국 '지린성' ·

'윈난성' · '헤이룽장성'등 4개 의회와 새롭게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4개국 10개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이를 재건하는 시기에 유보되었다가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하였고 어느덧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음에 가슴 뿌듯하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세수구조는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더해나가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문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의회가 의회답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갑작스런 도지사 궐위사태로 많은 도민들이 걱정과 함께 도정공백을 우려하며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난 민선 5 · 6기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도정의 거품들을 거둬들이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문제사업에 대한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을 깊게 살펴봄으로써 다음 사람들이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지방의회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의회가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수 있도록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도의회와 함께 충청남도의 미래를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 설 문 집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비서실(☎ 041-635-5062)
인 쇄 세기기획인쇄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의회에 있습니다. 〈비매품〉